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 제주지역사회에서 중국인의 문화 향유에 관한 연구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 참여의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황 자 호

2022년 12월

# 제주지역사회에서 중국인의 문화 향유에 관한 연구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 참여의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황 경 수

황 자 호

이 논문을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2월

황자호의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김 주 경	
위 원	황 은 진	
위 원	고 혜 영	
위 원	강 천 오	
위 원	황 경 수	

제주대학교 대학원

2022년 12월

关于济州地区中国人的文化享有现状研究  
-以文化设施·文化活动参与意向的媒介效果为中心-

指导教师 黄京洙

黄子豪

提交此论文为行政学博士学位论文

2022年 12月

批准为黄子豪的行政学博士学位论文

审查委员长

金周经



委

员

黄思震



委

员

高惠永



委

员

姜权吾



委

员

黄京洙



济州大学 大学院

2022年 12月



A study on the enjoyment of Chinese culture in  
the Jeju community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ultural facilities and cultural  
events

Zi-Hao Huang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Soo Hwa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degree of 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

2022.1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Ju-kyong Kim

Eunjin Hwang

Hye-young Ko

Kwoh-oh Kang

Kyung-Soo Hwang  
Dec. 2022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b>제 1 장 서론</b> .....	<b>1</b>
제 1 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제 2 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4
1. 연구의 방법 .....	4
2. 연구의 범위 .....	5
<b>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b> .....	<b>8</b>
제 1 절 문화의 의미 및 분류 .....	8
1. 문화의 의미 .....	8
2. 문화의 분류 .....	12
제 2 절 문화 향유의 의미 및 분류 .....	13
1. 문화향유의 의미 .....	13
2. 문화향유의 분류 .....	17
제 3 절 제주지역사회의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 현황 .....	18
1. 제주도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현황 .....	18
2. 제주지역사회의 중국인 관한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현황 .....	23
3. 합의 및 소결 .....	31

제 4 절	문화 향유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32
1.	문화 향유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 .....	32
2.	외국인 대상으로 문화 향유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 .....	36
3.	함의 및 소결 .....	39
제 5 절	분석의 틀 .....	39
<b>제 3 장</b>	<b>연구의 설계 .....</b>	<b>43</b>
제 1 절	변수의 설정 .....	43
1.	접근성 .....	44
2.	안전성 .....	46
3.	편의성 .....	47
4.	정책지원 .....	49
제 2 절	연구의 모형 .....	50
제 3 절	조사의 설계 및 표본특성 .....	52
1.	조사의 설계 .....	52
2.	표본의 특성 .....	56
제 4 절	가설의 설정 .....	57
제 5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59
제 6 절	함의 및 소결 .....	60
<b>제 4 장</b>	<b>중국인의 문화향유에 대한 실증분석 .....</b>	<b>61</b>
제 1 절	문화시설의 실증 분석결과 .....	61

1. 변수의 기술 통계 결과 .....	61
2.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정 .....	65
3. 구조방정식분석결과 .....	72
4. 가설의 검증결과 .....	77
5. 함의 및 소결 .....	78
제 2 절 문화행사의 실증 분석결과 .....	79
1. 변수의 기술 통계 결과 .....	79
2.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정 .....	83
3.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	90
4. 가설의 검증결과 .....	95
5. 함의 및 소결 .....	96
제 3 절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비교분석 .....	97
<b>제 5 장 제주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제언 .....</b>	<b>101</b>
제 1 절 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제언 .....	101
제 2 절 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제언 .....	103
제 3 절 제주도의 중국인 문화적 적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104
<b>제 6 장 결 론 .....</b>	<b>107</b>
제 1 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	107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방향과제 .....	110

<b>【참고문헌】</b> .....	113
<b>【ABSTRACT】</b> .....	122
<b>【부록】</b> 설문지(한국어) .....	128
<b>【부록】</b> 설문지(중국어) .....	134

## 표 목차

<표 2-1> 문화의 정의 .....	11
<표 2-2> 문화의 분류 .....	12
<표 2-3> 시대에 따른 문화의 분류 .....	13
<표 2-4> 문화향유의 정의 .....	15
<표 2-5> 향유 형태의 설명 틀 .....	17
<표 2-6> 5 가지 문화 향유 참여의 모형 .....	18
<표 2-7> 제주도 문화기반시설 총괄 표 .....	19
<표 2-8> 제주도의 문화 관련시설의 수 .....	20
<표 2-9> 제주지역 인기 문화시설 관광객의 수 .....	21
<표 2-10> 제주지역 2019 년도 문화예술 활동현황 .....	22
<표 2-11> 제주지역의 중국인 등록 현황 (단위: 명) .....	24
<표 2-12> 외국인 국적별 내도 현황 (단위: 명) .....	25
<표 2-13> 제주 무사증 입국 현황 (단위: 명, %) .....	25
<표 2-14> 2017-2021 년 성별 및 거주목적에 따른 외국인의 현황 (단위:명) ...	26
<표 2-15> 2017-2021 년 연령별에 따른 외국인의 현황 (단위:명) .....	27
<표 2-16> 제주지역 중국 관련 문화행사 .....	30
<표 2-17>본 연구의 조사내용 구성 도출 .....	32
<표 2-18>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조사 구성 .....	33
<표 2-19> 서울시 향후 정책과제 .....	34
<표 2-20>광주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조사 구성 .....	35

<표 2-21> 외국인 대상으로 문화 향유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 .....	38
<표 3-1> 연구요소 토출 .....	43
<표 3-2> 설문지의 항목 구성 .....	53
<표 3-3> 연구 표본의 특성 .....	56
<표 3-4> 연구가설의 설정 .....	58
<표 4-1> 문화시설의 만족도 기술통계 결과 .....	62
<표 4-2> 문화시설의 접근성 기술통계 결과 .....	62
<표 4-3> 문화시설의 안전성 기술통계 결과 .....	63
<표 4-4> 문화시설의 편의성 기술통계 결과 .....	63
<표 4-5> 문화시설의 정책지원 기술통계 결과 .....	64
<표 4-6> 문화시설의 참여의사 기술통계 결과 .....	65
<표 4-7>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	65
<표 4-8>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	67
<표 4-9> 교육수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	67
<표 4-10> 한국어 수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	69
<표 4-11> 거주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	70
<표 4-12> 방문목적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	72
<표 4-13> 문화시설의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 결과 .....	73
<표 4-14>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 결과 .....	74
<표 4-15> 구조 모형의 적합도 .....	75
<표 4-16> 문화시설의 구조방정식 및 가설 분석 결과 .....	76
<표 4-17> 문화시설의 가설 검정 결과 .....	77

<표 4-18> 문화행사의 만족도 기술통계 결과 .....	80
<표 4-19> 문화행사의 접근성 기술통계 결과 .....	80
<표 4-20> 문화행사의 안전성 기술통계 결과 .....	81
<표 4-21> 문화행사의 편의성 기술통계 결과 .....	82
<표 4-22> 문화행사의 정책지원 기술통계 결과 .....	82
<표 4-23> 문화행사의 참여의사 기술통계 결과 .....	83
<표 4-24>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	84
<표 4-25>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	85
<표 4-26> 학력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	86
<표 4-27> 한국어 수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	87
<표 4-28> 거주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	88
<표 4-29> 방문목적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	89
<표 4-30> 문화행사의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	92
<표 4-31>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 결과 .....	92
<표 4-32> 구조 모형의 적합도 .....	93
<표 4-33> 문화행사의 구조방정식 및 가설 분석 결과 .....	95
<표 4-34> 문화행사의 가설 검증 결과 .....	96
<표 4-35>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 비교 .....	98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절차 및 전체 흐름도 .....	6
<그림 2-1> 중국 장쩌민주석이 한림공원에 남긴 글씨 .....	28
<그림 2-2> 한국 성범영원장이 중국교과서에 실렸다 .....	28
<그림 2-3> 분석의 틀 .....	41
<그림 3-1>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연구모형 .....	50
<그림 3-2> 본 연구의 모형 .....	51

## 국문초록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 우호적이며, 수천 년의 우호적 교류의 역사를 통해 풍부한 문화적,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양국의 문화교류는 일찍이 국적과 민족을 초월하여 서로 융합하고 함께 발전하여 동아시아와 세계 문명의 발전과 번영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자 한중 문화교류의 해가 마무리되는 해다. 양국 정부와 민간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해서 전개해 양국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자세로 수교를 맞이하고 있다.<sup>1)</sup> 문화도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문화의 참여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지난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핼러윈 행사 도중 14개국에서 온 외국인 26명을 포함해 154명이 숨졌다. 따라서 문화 참여 과정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 향유 과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평가와 문화 향유에 관한 고찰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과 전체적인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문화 참여 의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 및 문화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생활하면서 문화 향유를 고찰한다.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제주도는 한국의 최남단일 뿐만 아니라 한·중·일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국제자유도시다. 제주도에 있는 국제 대도시로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 제주도에 사는

1) 중앙일보 중국어판(<http://chinese.join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713>).

중국인들은 제주도의 일원으로서 함께 제주도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린다. 외국인에 지방투표권, 신변안전 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생활 속에서 문화처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를 계기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향유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화 향유에 대해 어떻게 고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다른 지역의 문화 향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문화시설, 문화행사, 문화정책, 문화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제주도의 실태를 종합해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서 중국인의 제주도 문화향유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둘째, 제주도의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에 대한 고찰한 내용이다. 이번 연구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 중국영사관, 제주도문화원 등을 통해 관련 뉴스와 함께 제주도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 중국과 관련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현황 고찰과 선행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주도의 문화시설은 관련 기구의 문화시설 분류와 본 논문의 고찰 요소를 종합하면 크게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문화공원 등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박물관은 인기 많은 국립제주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대박물관, 해녀박물관 등으로 하였고 도서관이 제주도서관, 한라도서관, 탐라도서관 등으로 하였다. 공연장은 제주도문화회관, 아트센터, 탐동 공연장, 서귀포 예술의전당 등이 있다. 미술관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등이 있다. 영화관은 CGV 제주, 롯데시네마(아라점, 삼화동점), 메가박스 제주 등이 있다. 문화공원은 돌문화공원, 4.3평화공원, 향몽유적지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로 본 연구의 기본평가의 참고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평가 내용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을 문화시설 및 행사 만족도 분석의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일반 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는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요인 부분에서 정책 지원이 추가되었다. 성별, 연령, 학력, 중국인의 한국어 수준, 거주지, 문화시설/행사의 방문목적에 따라 문화 향유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계변수로 설정했다. 종속변수는 전체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이용과정 만족도를 5가지 내용으로 만족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립변수가 문화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 참여 의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 모형은 문화 참여 의사를 매개변수로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위의 연구 모형을 사용하여 본 연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설문지를 설계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는 남성 204명, 여성 171명 총 375건의 유효한 설문 결과를 받았다.

넷째, 문화시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서 수집한 결과에 대해 기술통계, 교차분석, 구조방정식분석,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가설검증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기술통계는 종속변수인 문화시설 만족도,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 지원, 매개변수인 참여 의사 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술 통계분석을 한다. 다음으로 교차분석은 주로 성별, 연령, 학력, 한국어 수준, 거주지, 방문목적 등 6가지 통계변수와 종속변수인 문화시설 만족도,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 지원, 매개변수인 참여 의사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고찰해 보면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8을 초과하여 문화시설의 신뢰도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표준화 요인의 값들 대부분 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CR(t) 값은 모두 높게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문화시설에 대한 구조방정식 및 가설의 분석 결과를 따르면 문화시설의 접근성, 정책 지원은 문화시설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은 문화시설의 참여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 반면에 문화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기각하고 안전성과 정책 지원은 문화시설의 참여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기각한다. 매개변수인 참여 의사는 문화시설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

다섯째, 문화행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부분이다. 문화행사도 마찬가지로 설문지에서 수집한 결과에 대해 기술통계, 교차분석, 구조방정식분석,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가설검증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기술통계는 종속변수인 문화행사 만족도,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 지원, 매개변수인 참

여 의사 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술 통계분석을 한다. 다음으로 교차분석은 주로 성별, 연령, 학력, 한국어 수준, 거주지, 방문목적 등 6가지 통계변수와 종속변수인 문화행사 만족도,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 지원, 매개변수인 참여 의사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고찰해보면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8을 초과하여 문화시설의 신뢰도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표준화 요인의 값들 대부분 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R(t) 값은 모두 높게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문화행사에 대한 구조방정식 및 가설의 분석 결과를 따르면 문화행사의 접근성, 안정성과 편의성은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하고 편의성은 문화행사의 참여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 반면에 문화행사의 정책 지원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기각하고 접근성, 안전성과 정책 지원은 문화행사의 참여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기각한다. 매개변수인 참여 의사는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 부분을 통해 문화시설, 문화행사 및 제주도에서의 중국인의 문화생활 적응성 제고를 제안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문화와 향유에 관한 이론과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하게 되었고,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 향유에 대한 고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사점을 갖게 되었다. 둘째, 관련 데이터 고찰을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중국인의 문화 향유 현황에 대한 이번 연구를 통해 중국인의 문화 향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게 되었다.

**주제어:** 문화향유, 참여의사, 문화시설, 문화행사

# 제 1 장 서 론

##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연구의 배경

본 연구의 배경은 국제간의 문화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전개되었다. 국제간 문화사업, 문화교류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문화는 사회발전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 행정은 문화사업의 기본 관리 메커니즘으로서 이미 갈수록 이론가들과 실무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첫째, 제주도와 중국의 문화교류는 오래됐고 중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과 제주도의 관계는 진나라 서북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시대 말기 탐라는 독립된 해상 왕국이 되었고, 동시에 당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2004년 5월 한중 양국 정부는 「청소년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정부는 2004년부터 매년 500명의 중국 각계 우수 청년 대표를 한국에 초청하고 있다. '한·중 청년 우호 교류 프로그램'은 한·중 양국 정부가 체결한 「청소년 교류 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대형 한·중 청년 우호 교류 프로그램으로, 중국 전국청년연합(전국청련)과 한국 청소년위원회가 각각 위탁받아 이 프로그램을 구체화한다. 2006년 11월 1-10일, 귀주성(貴州省) 청년연합회 부주석 후지홍(胡吉宏)을 총단장(總團長)으로 하는 중국 청년대표단 200명이 한국 제주도를 방문했다.<sup>2)</sup> 지금까지도 제주에는 많은 중국인들이 여행과 유학을 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이다.

둘째, 제주도의 중국인 거주자나 유학생들은 제주도 문화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문화 향유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실정 인식에 있다. 제주도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섬 도시로 풍부한 자연경관과 제주 지방

2) 新浪文化(2006.11.15.) <http://www.sina.com.cn>

의 인문 풍광을 자랑한다. 기존의 문화예술시설과 행사도 많았다. 하지만 자신의 한국어 능력 부족과 문화 차이로 인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늘면서 유학생들의 학습 능력 부족,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학 능력, 유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하는 문제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수의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 생활·학업·언어문화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에는 재한 외국인 유학생 대학 중퇴율 5.9% 차지되어 어학원 전·퇴학 더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와 욕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 관련 연구들이 일상의 어려움을 알지만 문화예술 여건과 상황이 좋아지면 제주도에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중국인이든 다른 나라 외국인이든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삶의 만족도를 문화적 수단을 통해 높이는 것은 제주도민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 제주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문화교차로 인한 충돌을 해소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과 거주자가 많아 충돌사고도 적지 않다. 이번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 중인 중국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한·중 우호 관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넷째, 유학생들이 제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제주도 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28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 '제주 관광 유학생 홍보단'을 구성한 결과 총 413명이 신청했다. 국적별 유학생은 중국인 유학생이 3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5명, 몽골 4명, 러시아·필리핀 각 3명, 인도와 대만 각 2명, 프랑스·우즈베크 각 1명이다. 이번 홍보단에 참가한 이들 유학생에게는 제주도만의 역사·문화·인터넷 커뮤니티 (SNS, Social Network Service) 활용법을 교육한다. ID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은 도내 14곳의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광명소 및 시설 관광지를 무료로 출입할 수 있다.<sup>3)</sup>

다섯째, 제주지역 전체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 조선족(11.2%) 포함해서 36.0%(전국 43.5%)로 차지하고 있는 현황이고 실제 중국인 거주자 비중은 낮아

3) 연합뉴스(2011.05.02.) <https://cn.yna.co.kr>.

지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 감소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일자리 대량 소멸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체류를 위해 문화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문화적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이를 계기로 기존 중국인을 잔류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제주도의 중국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제주도 전체의 외국인 연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이번 연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서 중국인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제주지역에서의 다민족 문화교차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제주지역사회에서 중국인의 문화 욕구의 향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주지역 사회의 문화 욕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제주도의 문화 향유를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문화정책으로 문화를 조명하기 위함이다.

본 조사는 제주지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실태,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제주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다른 외국인의 충족을 위해 바람직한 문화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의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의 기존 문화시설의 문화행사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를 통해 부족하거나 중국인에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분석한다.

둘째, 제주지역에 있는 중국인들의 문화 향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1년 등록된 외국인 인구는 제주도 전체 인구의 3% 차지하고 있고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 비중은 전체 외국인의 43.3% 차지하였다.<sup>4)</sup>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중국인을 중심으로 문화적 욕구와 향유 현황을 연구하여 제주지역의 다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중국인에 대한 실질적 연구가 미비한 현실에서 이들의 문화 향유와 욕구를 알아보는 것은 중국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문화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제주도 거주 중국인의 문화 참여 의사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인의 문화 참여 의사를 파악해야 중국인의 문화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제주도로써 중국인들의 문화 참여 의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인의 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코로나19가 회복된 이후 중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한 참고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문화 향유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의 삶의 질을 높여 중국인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제주도 외국인들의 ‘주력군’으로서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문화 향유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문화적 적응성의 향상은 제주도 지역의 다문화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되고, 제주도의 외국인과 현지인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에도 일부 역할을 할 수 있다.

##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조사방법과 통계조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화향유의 분석을 위해 법, 규정, 지침 및 학자, 문헌을 탐색하여 문화, 문화향유에 관한 정의를 정리하고 본 연구의 구조 유형화 하며, 관련 연구과 논문을 통하여 이번 연구에 적합한 평가 요소를 찾아내었다. 연구요인을 바탕으로

4) 통계청(2022.06.03.검색) <https://kostat.go.kr>.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문화의 영향요인을 결합하여 연구모형을 정립하였다.

다음으로 사례분석과 데이터 분석이다. 사례분석을 보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통해 연구에 강력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연구는 연구 배경과 현황 부분 분석 시 뉴스와 웹에 기재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데이터 분석은 연구에 강력한 설득력을 제공할 수 있다. 국가통계청, 제주연구원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되는 공식 통계자료로 제주지역사회의 문화시설과 활동 현황을 정리 및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와 실증 분석 방법이다. 제주도에 거주중인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SPSS <version 18.0> 및 SPSS AMOS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 기초통계,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분석 등을 실행할 예정이다.

##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문화 예술적 욕구와 향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문화 향유는 문화예술시설과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주요 연구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문화 및 문화향유의 이론적 논의
- 제주도의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현황
- 제주도의 중국인 관련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현황
- 제주도 중국인의 문화시설에 대한 실증분석
- 제주도 중국인의 문화행사에 대한 실증분석
- 제주도 중국인의 문화 참여의사 및 만족도의 관계분석
- 제주지역의 중국인 문화적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

다. I 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목적, 방법,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II 장은 이론적 고찰 부분으로서, 문화 및 문화향유에 관한 논의, 제주지역 사회 문화의 고찰, 연구의 틀 기술하고 있다. 문화, 문화향유, 문화 참여 관련 이론을 서술하고 있고, 제주 지역에 거주중인 중국인들의 문화시설 및 행사에 대한 향유 현황과 제주도 현재 있는 문화시설 및 행사를 고찰 하여 기술한 것이고 한국에서 연구해 왔던 문화향유에 관한 사례 및 외국인 대상으로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에 대한 연구도 검토하였다. III 장은 연구의 설계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변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고, 본 연구의 변수를 결정한 후 변수에 따라 본 연구의 모형을 설계한다. 본연구의 모형을 설명하고 조사의 설계와 표본의 특성, 가설의 설정을 설명하고 있다. IV 장은 중국인의 문화향유에 대한 실증분석이다. 먼저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구분하여 SPSS <version 18.0> 및 SPSS AMOS를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술 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구조방정식분석 등을 분석하여 가설검정을 하였다. V 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문화의 영향력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제언을 하게 될 것이다. VI 장은 결론으로 이번 연구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부족한 부분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정리한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를 요약하면 다음<그림 1-1>과 같다.

I. 서론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문화의 개념		문화향유의 개념		제주지역의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 현황			문화향유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분석의 틀
문화	문화의	문화향유	문화향유	문화시설 및	중국인 관련	합의 및	문화향유에	외국인 대상	합의 및	

의 의미	분류	의 의미	의 분류	문화행 사현황	문화시 설 /행사현 황	소결	관한 선행연 구 사례	로 문화향 유 사례	소결	
---------	----	---------	---------	------------	-----------------------	----	----------------------	---------------------	----	--



Ⅲ. 연구의 설계				
변수의 설정	연구의 모형	조사의 설계 및 표본의 특성	가설의 설정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Ⅳ. 중국인의 문화향유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문화시설에 대한 분석 결과				문화행사에 대한 분석 결과			
변수의 기술통 계 결과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	구조방 정식 분석결 과	가설 의 검증	변수의 기술통 계 결과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	구조방정 식 분석결과	가설의 검증



Ⅴ. 제주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제언		
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제언	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제언	중국인 문화적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Ⅵ. 결론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연구의 한계 및 방향

<그림 1-1> 연구의 절차 및 전체 흐름도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제1절 문화의 의미 및 분류

#### 1. 문화의 의미

문화(Cultura/文化)는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는 사회적 행동, 제도, 규범, 지식, 신념, 예술, 법률, 관습, 능력, 습성을 포괄하는 포괄적 용어이다. 문화의 의미는 대체로 협의 문화와 광의 문화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문화는 문학이나 예술 분야에 관한 의미로 정신이나 물질적으로 진보한 상태나 세련된 교양이 있는 모습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문화인, 문화생활, 문화시설, 문화행사, 신문의 문화면 등이다. 광의 의미의 문화란 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독특한 생활양식을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이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 청소년문화, 기독교문화, 한국문화, 중국문화, 서양문화, 대중문화 등이 있다.<sup>5)</sup> 문화(文化)라는 두 글자의 중문 기원은 「역경」의 분괘단전(賁卦象傳)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원문은 '觀乎天文, 以察時變, 觀乎人文, 以化成天下(광호천문, 이찰시변. 관호인문, 이화성천하)' 라는 것으로 뜻은 천문을 관찰하여 시대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인문을 관찰하여 세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sup>6)</sup> 하지만 오늘날 중국어에서 '문화'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본어와 중국어의 '문화'의 의미에서 차용한 것이며, 그것이 표현하는 개념, 수집 및 의미는 고대 중국 책의 원래 의미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사람의 전통 관념에 따르면, 문화는 일종의 사회 현상으로, 그것은 인류의 오랜 창조로 인해 형성된 산물이며, 동시에 하나의 역사 현상으로, 인류 사회와 역사의 축적물이다. 정확히 말하면, 문화는 물질 속에 응결되어 물질 밖으로 유리되

5) 대한민국 교육부(2015). 문화란 무엇인가?

6) 中國人文(2021). 「易經·賁卦·象傳」.

어 전승되고 전파될 수 있는 국가나 민족의 사고방식, 가치 관념, 생활방식, 행동 규범, 예술문화, 과학기술 등 인간 상호 간에 교류하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일종의 전승 이데올로기이며, 객관적인 세계에 대한 감성적인 지식과 경험의 승화이다. 라틴어(Colere)로 문화라는 용어는 고대 로마의 철학자 Cicero가 「투스쿨룸 변론」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당시 그가 영혼의 경운이나 컬투라 아니미(cultura animi),<sup>7)</sup> 즉 농업으로 영혼의 발전이란 인류 발전의 최고 경지를 은유한 데서 유래했다. 문화의 함의는 땅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돌보고 동물을 기르는 것,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옷을 입고 몸을 꾸미고 친구를 보살피고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풍습, 그리고 도시나 시가지에 거주하면서 올바른 도덕과 심지를 기르는 것 등을 의미한다. 중세 말기에 문화는 도덕적 완벽함과 지적 능력, 예술적 성취를 가리키기 시작했다. UNESCO의 정의에 따르면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공동생활,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8)'이며, Tylor(1871)는 문화에 대한 최초의 고전적 학술적 정의를 시도한 사람이다. 그에 따르면 문화란(혹은 문명) 보다 넓은 민족지학적인 의미에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지는 또 다른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통합9)'이라고 한다. 그는 이 용어를 인위적으로 가공된 세계의 모든 총체적 집합으로 사용하였다.

이상 영향이 큰 기관이나 인물에 의해 문화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이긴 하지만, 각 학자에 있어서 문화의 정의도 차이가 있다. 문화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정의를 살펴보면 Sapir(1921)는 미국의 언어학자이며 「Language」라는 책을 저술했고, 그는 책에서 '문화라는 것은 바로 그 사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과 신앙의 총화를 말하는 것으로, 그 것에 의해 우리들의 생활조직이 결정된다10)'라고 정의하였으며 Kluckhohn & Kelley (1944)는 '문화란 역사적으로 창조되어 내려오는 것이며. 인간 행동의 가능한 기준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현재적, 잠재적,

7) Cicero, Marcus Tullius. (BC45). Tusculanes (Tusculan Disputations).45 BC: II, 15.

8) UNESCO(2017). Arts in a Digital World Summit: <https://en.unesco.org/>.

9) Tylor, E. B. (1871). Primitive Culture :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London: John Murray.

10) Edward Sapir(1921).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Harcourt, brace. 26-17.

합리적, 비합리적인 생활 및 풍속이다<sup>11)</sup>’라고 정의하였다.

또 다른 한국과 중국 문화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한국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 근거하여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sup>12)</sup>” 라고 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sup>13)</sup>”라고 정의 하였다. 한선생(2015)은 “문화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 낸 모든 것이다.” 라고 했으며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 그런 것들을 지키고 또 뒷 세대에 물려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문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 마음속의 문화는 다시 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sup>14)</sup> 구문위(2015)는 “문화는 인간이 자아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자신을 개조하는 과정, 자연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기호(문자, 이미지 등)와 소리(언어, 음운, 음표 등)의 체계적 총합이다.”라고 정의했으며 좀 더 간결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문화란 언어와 문자를 합친 것이다.<sup>15)</sup> 중국 「현대중국어사전」에서 ‘문화’의 본뜻은 ‘이문교화(以文教化)’로 인간의 성에 대한 도야(陶冶)와 덕성에 대한 교양을 의미하며, 본래 정신 영역의 범주에 속한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문화’는 점차 내실이 풍부하고 외연이 넓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학문들의 탐구·천명·쟁명의 대상이 되었다.

위 문화에 대한 여러 정의를 정리하면 아래 <표 2-1> 와 같다.

11) Clyde Kluckhohn & William Henderson Kelly(1944). The Concept of Culture. The Concept of Culture. 31.

12) 한국 「문화재보호법」 (2022.06.12.검색).

13) 한국 「문화예술진흥법」 (2022.06.12.검색).

14) 한선생(2022). 문화란 무엇인가? <https://brunch.co.kr>.

15) 구문위(2015). 「區文偉文集：淺談文化」. 广州：花城出版社.

<표 2-1> 문화의 정의

학 자	정 의
Cicero (BC45)	농업으로 영혼의 발전이란 인류 발전의 최고 경지를 은유한 데서 유래했다. 문화의 함의는 땅을 가꾸는 것뿐만 아니라 땅을 돌보고 동물을 기르는 것, 사람들의 삶을 돌보는 것.
UNESCO (2007)	UNESCO의 정의에 따르면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공동생활,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 물질적, 지적, 특징”이다.
Tylor (1871)	문화란(혹은 문명) 보다 넓은 민족지학적인 의미에서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 관습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의해 얻어지는 또 다른 능력과 습관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통합”이라고 한다.
Sapir (1921)	「Language」에서 문화라는 것은 바로 그 사회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관습과 신앙의 총화를 말하는 것으로, 그 것에 의해 우리들의 생활조직이 결정된다.
Kluckhohn & Kelley (1944)	문화란 역사적으로 창조되어 내려오는 것이며. 인간 행동의 가능한 기준으로서 존재하는 모든 현재적, 잠재적, 합리적, 비합리적인 생활 및 풍속이다.
「문화재보호 법」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문화예술 진흥법」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한선생 (2015)	문화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하기 위해 만들어 낸 모든 것이다.
구문위 (2015)	문화는 인간이 자아를 끊임없이 인식하고 자신을 개조하는 과정, 자연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개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기호(문자, 이미지 등)와 소리(언어, 음운, 음표 등)의 체계적 총합이다

「현대중국 어자전」	'문화'의 본뜻은 '이문교화(以文教化)'로 인간의 성에 대한 도야(陶冶)와 덕성에 대한 교양을 의미하며, 본래 정신 영역의 범주에 속한다.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차이에 따라 '문화'는 점차 내실이 풍부하고 외연이 넓은 다차원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학문들의 탐구·천명·쟁명의 대상이 되었다.
------------	---

## 2. 문화의 분류

문화가 가진 다양성과 복잡성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한 분류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 구분은 특정 관점에서만 분석된다. 문화 발전 시간이 오래 되었고,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분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법을 참고로 문화를 분류하면 무형문화와 유형문화, 지역에 따라 서양-동양문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문화의 분류 방법은 지역 또는 지리별, 시대별, 형성 원인별, 형식별, 연령별, 종교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음<표 2-2>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2> 문화의 분류

구 분	내 용
지역 또는 지리별	서양,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시대별	먼 옛날, 원시, 문명사 등
형성 원인별	자연문화, 인위문화 등
형식별	유형문화(도자기, 건축, 음식 등) 무형문화(기술, 솜씨, 언어, 능력 등)
연령별	노년문화, 청년문화, 소년 등
종교별	불교문화, 유대교문화, 기독교문화, 이슬람교문화

출처: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저자 작성

하나의 분류를 또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다음 <표 2-3>의 분류는

시간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그 중의 시대별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문화 분류는 선사문화, 고대문화, 근대문화, 현대문화, 포스트모던 문화, 미래문화 순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속의 근대 문화는 또 제국주의문화, 식민지문화, 현대자본주의문화 구분할 수 있다. 문화의 분류는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며,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은 문화의 정의와 기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 연구의 후속 진행을 위해 문화 정의에 대한 참고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표 2-3> 시대에 따른 문화의 분류

구 분	내 용
선사 문화	석기문화
고대 문화	그리스문화, 고대 로마문화, 고대 바빌론문화, 이란문화, 인도문화, 중화문화
근대 문화	제국주의문화, 식민지문화, 현대자본주의문화
현대 문화	사회주의문화, 자본주의문화, 제3세계문화
포스트모던 문화	선진국 문화, 개발도상국 문화, 미개발 국가 문화
미래 문화	디지털 문화

출처: 관련 자료를 참고해서 저자 작성

## 제2절 문화 향유의 의미 및 분류

### 1. 문화향유의 의미

문화향유(Cultural enjoyment/文化享有)란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신적, 물질적 만족을 주는 이 과정을 말한다. “문화향유”를 논의하는 용어와 개념을 먼저 짚어보고자 하면 ‘문화향유’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해 온 영국, 미국, 유럽 등에서는 주로 ‘Cultural enjoyment(문화향유)’, ‘Cultural Participation(문화참여)’, ‘Cultural engagement(문화참여)’등 많이 교차되어 사용

하고 있다.

‘Cultural Participation(문화참여)’, ‘Cultural engagement(문화참여)’ 둘 다 문화 참여라는 의미지만 어느 정도 차이는 있다. 먼저, ‘Cultural Participation’의 경우 넓은 의미로는 문화예술 창작과 문화예술 관람 전체를 포괄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하지만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면이 있다. 반면에 ‘Cultural engagement’ 역시 유사한 개념으로 폭넓은 ‘향유’를 일컫기도 하지만 예술적 경험이 개인에게 발하는, 혹은 개인이 투입하는 경험적 주체성과 헌신적 관계 맺기의 정도와 영향에 대한 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포한 개념이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을 살펴보면 ‘문화 향유(享有)’와 ‘문화 향수(享受)’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사실 문화 향유와 문화 향수는 문화 참여의 한 과정에 대한 표현이다. 그러나 문화 향유는 그 자체로 문화 참여의 권리를 갖는다는 점에서 객관성이 있다. 문화향수는 문화참여에 대한 표현이고 주관적이다. 문화 향유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면 Kreidler, J., & Trounstein, P.J. (2005)는 “문화 향유의 개념 모델은 예술 전문가들이 이 가장 좁은 의미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장면에 고정되어 널리 알려진 정의는 함양성 활동을 포함하고 가장 넓은 의미의 장면으로서 문화 소양을 포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문화 소양은 전통, 미학, 예의, 풍습, 언어와 예술의 유창성,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적용하는 힘을 포함한다.<sup>16)</sup>”라고 했으며 KatyaJohanson(2014)는 “향유(Participation)를 넓고 포용적인 개념으로 전문적 활동과 비전문적 활동을 모두 아우름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 다른 스킬을 갖고- 작곡가, 교사, 학생, 비평가, 후원자, 소비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의 형태로, 정기적으로나 산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sup>17)</sup>”라고 정의했다. UNESCO(2017)에 따르면 예술 인게이지먼트 (arts engagement)는 활동들과 매개체를 통한 다양하고 기획된 다양한 프로세스와 활동들, 조직행동들로 구성된 단계다. 활동과 매개는 워크숍을 통한 능동적 참여, 교육적 활동, 디지털 디바이스, 문화 간 접근 방법들, 문화기획에의 참여, 예술 작업에의 참여적 기여

16) Kreidler, J., & Trounstein, P.J. (2005). Creative Community Index: Measuring Progress Toward a Vibrant Silicon Valley. San Jose, CA: Cultural Initiatives Silicon Valley. 3-15.

17) KatyaJohanson(2014). New modes of arts participation and the limits of cultural indicators for local government. Poetics. pp43-59.

아웃리치 등이 있다.<sup>18)</sup> 한국에도 문화 향유에 대한 학자의 정의가 있다. 이대희(2001)는 “문화향유는 문화의 맛을 흡족하게 누린다는 뜻이다. 문화상품을 통해 전달되는 진정한 문화의 맛을 즐기는 행위가 문화향수다.<sup>19)</sup>”라고 했다. 김두이·금현섭(2018)은 문화예술 향유가 공연이나 전시의 형태로 유통되는 문화예술 산물을 직접 소비하는 등의 태도나 그러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의지나 선호로 정의된다.<sup>20)</sup>

앞에 논의한 문화향유에 대한 정의 외에도 많은 문화향유에 관한 개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지역문화향유’, ‘문화향유권’등이 있다. 먼저, ‘지역문화향유’의 개념은 통상적으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체험 확대를 통하여 문화적 감동과 정신적 여유를 체득케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아가 지역 문화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개념이라 정의하고 있다.<sup>21)</sup> 중국의 작가 傅才武·蔡武進(2015)는 문화 향유 권리가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며 그는 정치권력과 함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법익이자 국가와 그 정부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국제법은 물론 오늘날 세계 대다수 국가의 헌법이 문화향유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중국은 현행 헌법에도 시민의 문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sup>22)</sup> 王維·毛芳怡(2020)는 문화향유가 사람들이 문화상품이나 문화행사로 자신의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행위를 말한다. 문화오락, 교육 등이 주류를 이룬다. 지식을 바탕으로 정신노동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경제 형태에서 문화소비가 점차 주류화 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sup>23)</sup>

위의 문화 향유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말은 아래의 <표2-4>와 같다.

18) UNESCO(2017). Arts in a Digital World Summit: <https://en.unesco.org/>.

19) 이대희 (2001), 「문화산업론」, 대영문화사.

20) 김두이·금현섭 (2018). 「문화예술향유의 다양성 측면에 대한 분석: 혼종성과 균등성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12):115-143.

21) 이창기 (2015). 「공공문화예술회관 관점의 지역문화향유지수에 대한 실증연구」. 문화예술콘텐츠, (15): 273-302.

22) 傅才武·蔡武進(2006). 「文化權利論」 中國文化產業評論 (21):32-42.

23) 王 維·毛芳怡(2020). 「基于文化消費需求的文創設計研究」 理論研究 (03):102-104.

<표 2-4> 문화향유의 정의

학자	정 의
Kredler and Trounstein (2005)	문화 향유의 개념 모델은 예술 전문가들이 이 가장 좁은 의미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장면에서 고정되어 널리 알려진 정의는 함양성 활동을 포함하고 가장 넓은 의미의 장면으로서 문화 소양을 포함하는 데 목적을 둔다. 문화 소양은 전통, 미학, 예의, 풍습, 언어와 예술의 유창성,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을 적용하는 힘을 포함한다.
Johanson et al. (2014)	향유(Participation)를 넓고 포용적인 개념으로 전문적 활동과 비전문적 활동을 모두 아우름 문화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여러 다른 스킬을 갖고- 작곡가, 교사, 학생, 비평가, 후원자, 소비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의 형태로, 정기적으로나 산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UNESCO (2017)	예술 인게이지먼트 (arts engagement)는 활동들과 매개체를 통한 다양하고 기획된 다양한 프로세스와 활동들, 조직행동들로 구성된 단계다. 활동과 매개체는 워크숍을 통한 능동적 참여, 교육적 활동, 디지털 디바이스, 문화 간 접근 방법들, 문화기획에의 참여, 예술 작업에의 참여적 기여 아웃리치 등이 있다.
이대회 (2001)	문화향유는 문화의 맛을 흡족하게 누린다는 뜻이다. 문화상품을 통해 전달되는 진정한 문화의 맛을 즐기는 행위가 문화향수다.
김두이·금현섭 2018	문화예술 향유가 공연이나 전시의 형태로 유통되는 문화예술 산물을 직접 소비하는 등의 태도나 그러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자 하는 의지나 선호로 정의된다
傅才武, 蔡武進. 2015	문화 향유 권리는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며 그는 정치권력과 함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법익이자 국가와 그 정부가 보장해야 할 기본적 인권이다.
王 維·毛芳怡 2020	문화향유는 사람들이 문화상품이나 문화행사로 자신의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행위를 말한다.

## 2. 문화향유의 분류

문화적 향유에 대한 분류는 서양의 연구자들이 더 잘 분류한다. 주요 분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이다. 첫째, 문화향유 형태에 따른 분류할 수 있다. Kevin F. McCarthy KJmberly Jinnett (2001)은 실증 영구 문헌들을 토대로 향유의 수준 참여자의 특성, 참여의 동기를 중심으로 이해의 틀을 구성해 나갔다. 이 “<표 2-5>향유 형태의 설명 틀”을 통해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상황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sup>24)</sup> 이 두 가지 차원이 결합되어 다양한 유형의 예술 참여자를 구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한다. 주로 레크리에이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예: 녹음된 음악을 듣거나 드라마를 보는 것)은 미디어를 통해 참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사회적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 즉 ‘레크리에이션 참가자’는 라이브 공연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표 2-5> 향유 형태의 설명 틀

		What Person Seeks	
		Entertainment	Fulfillment
Participation Preference	Developing proficiency (self-focused)	Participation through media	Hands-on participation
	Social experience	Attendance (casual)	Attendance (aficionado)

출처:Kevin F. McCarthy KJmberly Jinnett (2001)

둘째, 문화 참여의 형식에 따른 분류하고자 하면, 미국 문화향유 분야에서 킨 설턴트로 오랜 기간 활약해온 Brown. A. S.(2004)은 문화예술의 의미와 가치를 되짚으며, 예술향유에 있어서 향유자의 참여 정도와 창의성에 대한 제어권리를 행사하는 정도에 따라 다섯 가지의 모드로 구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sup>25)</sup> 그는

24) Kevin F. McCarthy KJmberly Jinnett (2001). A New Framework for Building Participation in the Arts. Wallace-Reader's. 17-18.

25) Brown. A. S.(2004) The Values Study: Rediscover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rts

연구된 다양한 분야에서 <표 2 -6>과 같이 개인의 상대적 창작 통계량을 기반으로 5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예술 활동을 식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 2 -6> 5가지 문화 향유 참여의 모형

구분	정의
창작형 참여 Inventive Participation	기술 수준(예: 작곡, 시 쓰기, 그림 그리기)에 상관없이 독특하고 색다른 예술적 예술 창작 활동에 마음, 몸, 정신을 참여시킨다.
해석적 참여 Interpretive Participation	기존의 예술 작품에 개별적으로 또는 협력적으로 생기나 가치를 부여하거나 개인을 예술학습(예: 밴드 연주, 춤 배우기)에 참여하는 창의적인 자기표현 행위이다.
큐레이터형 참여 Curatorial Participation	자신의 예술적 감수성(예: 예술 수집, 음악 다운로드 및 cd 굿기)을 만족시키기 위해 의도를 갖고 예술 선택, 구성 및 수집하는 창조적 행위이다.
관찰형 참여 Observational Participation	타인(예: 라이브 공연 참석, 미술관 방문)에 의해 창작, 구성 또는 연주된 예술 프로그램 또는 예술 작품을 보거나 들을 때 발생함. 이 유형은 1) 라이브 이벤트 참여, 2) 전자 미디어 기반 참여의 두 가지하위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
주변환경으로 인한 참여 Ambient Participation	참여자가 선택하지 않은 예술과 만남을 포함시킴(예: 건축 및 공공예술 감상, 상점에서 음악 감상)

출처:(Brown 2004)p12쪽의 내용으로 직접 작성

### 제3절 제주지역사회의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 현황

#### 1. 제주도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현황

Participation, Hartford, CT. Connecticut Commission on Culture and Tourism. 17-30.

(1) 제주도의 문화시설의 현황

제주도는 바다에 떠 있는 섬으로써 청정한 공기와 아름다운 경관, 오염되지 않은 산과 바다를 보유하고 있어 섬 전체가 자연매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독특한 인본주의적 관습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는 유무형의 문화가 많이 있다.

유·무형문화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문화 시설과 문화 활동이다. 제주도의 문화시설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다. 제주도의 문화예술홈페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의 문화기반시설정보를 따르면 공연장(41개), 박물관/미술관(78개), 도서관(21개), 기타(문화학교,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문고 등 총198개) 크게 4가지로(343개) 문화시설을 구분하고 있다.<sup>26)</sup> 또한 표2-10에 따라 공연장과 영화관을 공연시설로 구분하였고 도서관에는 지차체, 교육청과 개인사립도서관이 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같은 분류에 속하며, 국립과 사립을 포함하고 있고 전시관, 자료관, 식물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기타 문화시설로는 문예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문화학교 문화고가 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의 이번 분류는 종류와 전시관 수를 구체적으로 구분했지만 어떤 문화시설이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표 2-7> 제주도 문화기반시설 총괄 표

구분	내역	계
공연시설(42)	공연장34, 영화관8	42
도서관(21)	지차체	14
	교육청	6
	개인	1
박물관/미술관 (78)	국립박물관	1
	대학박물관	1
	교육박물관	1
	국립박물관	7
	사립박물관	17
	국립미술관	7
	사립미술관	13
	전시관/자료관	22

26) 문화예술 <https://www.jeju.go.kr/culture/ar>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식물원	9
기타 문화시설 (198)	문예회관	1
	문화의집	20
	문화원	3
	문화학교	14
	문화고	159

자료: 제주도청(2022.10검색) 공개된 자료로 적자 작성.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문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는 없지만 공개된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해당 문화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있다. 발표 자료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여행시설을 한데 모아 발표하지만 그중에서 발표되는 문화시설의 내용을 추려 정리할 수 있다. 문화행정과 공개된 「문화시설(미술관, 박물관)설치 현황(2021.04기준)」으로 보면 제주도에 있는 박물관은 77개, 미술관은 20개가 공개되었고 모든 문화시설의 명칭과 구체적인 주소도 표시되어 있다. 도서관과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발표했지만 도서관은 주로 공립의 대형 도서관을 기준으로 했다. 한편 위의 분류와 달리 영화관은 영화관 전체의 수가 아니라 전 지역 영화관 관람관의 수에 따라 분류된다. 문화행정과는 문화공원에 대한 분류는 없지만 디지털융합과가 발표한 「도시공원 현황(2021.11기준)」에서 문화공원을 따로 찾을 수 있다. 「도시공원 현황(2021.11기준)」에 따르면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등 7종 248곳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문화 관련 문화공원과 역사공원은 총 10개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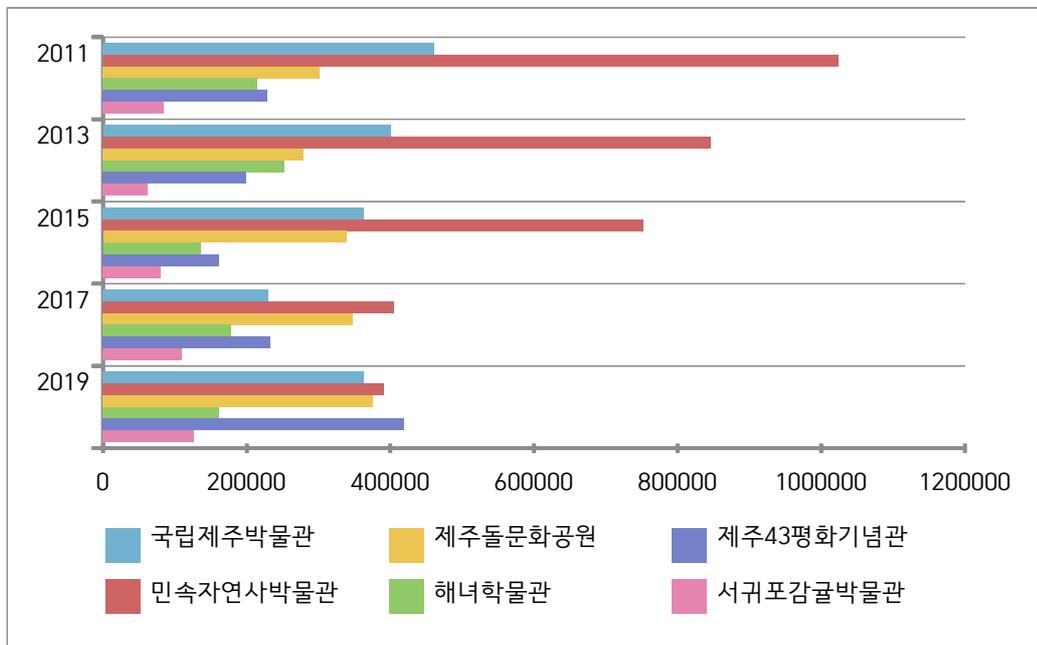
<표 2-8> 제주도의 문화 관련시설의 수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데이터 수집
박물관	77	38	3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행정과2021.04
미술관	20	10	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행정과2021.04
도서관	22	11	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행정과2021.08
공연장	35	25	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행정과2022.07
영화관	35	28	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행정과2021.08
문화공원	10	9	1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2021.11

자료: 제주도청(2022.10검색) 공개된 자료로 적자 작성.

제주 지역의 인기 문화시설을 둘러보면 지난 한 해 동안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인기가 가장 높았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의 방문객 수는 가장 빠르게 떨어졌다. 반면 해녀박물관과 제주 돌문화공원은 관람객 수가 꾸준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한중 정치관계의 영향으로 2017년 저점을 찍었으나 2018년 이후 다시 완화되는 양상이다. 제주 43평화박물관과 서귀포감골박물관은 매년 관람객이 다른 요인에 덜 영향을 받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 전체적으로 2019년 말 코로나 19 발발과 중국 대외정책으로 2020년 제주도 관광객은 최근 십 년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코로나19가 완화되고 국가별 정책이 풀리면서 세계질서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

<표 2-9> 제주지역 인기 문화시설 관람객의 수 (단위:명)



자료: 제주도청(2022.09검색) 공개된 자료로 적자 작성.

(2) 제주도의 문화행사의 현황

축제에 대한 연구는 외국보다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지만, 지역축제를 분류

하는 유형에 대해서는 통일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이 활용되지 않는다. 지역축제의 유형에 대한 연구를 고찰해 보면, 가장 많이 분류되는 유형으로서 문화예술축제, 지역특산물축제, 전통문화축제, 자연관광축제 등 4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외에 문화관광축제, 지역특성화축제, 생태자연축제, 경연·산업축제, 일반지역축제, 지역테마형축제, 레저스포츠축제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sup>27)</sup>

제주도는 섬의 고유한 문화를 살린 독특한 축제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코로나 19 여파로 2020년 이후 많은 문화예술축제가 취소됐고 올해 들어 많이 회복됐지만 관광객 부족으로 아직 코로나19 이전 상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역 2019년도 문화예술 활동현황을 살펴보면 제주 지역에서 인기한 축제가 33회나 열렸는데, 이 중 상반기에만 22회가 몰려 연중 3분의 2를 차지했다. 한국관광공사와 제주도청 모두 제주도 축제를 구체적으로 기록했지만 분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주도 축제의 행사 내용과 형식에 따라 저자는 크게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전통풍습축제는 제주들불축제, 탐라문화제, 덕수리전통민속재현축제 등이 있다. 지역문화축제는 제주해녀축제, 제주방어축제, 세계문화유산축제 등이다. 문화예술축제는 제주국제관악축제, 제주책축제, 세계합창축제 등이고 자연식물축제는 제주왕벚꽃축제, 감귤축제, 동백축제, 유채꽃축제 등이 있다.

<표 2-10> 제주지역 2019년도 문화예술 활동현황

월별	축제
1월	제주 허브동산 별빛놀이 01.01-12.31 한림공원 수선화축제(꽃 전시) 01.01-01.31 서귀포 겨울바다 국제펭귄수영대회 01.01.
2월	제주카패스타 02.28-03.03 노리메 매화축제(꽃 전시) 02.09- 03.10 제주목관아 설맞이 민속놀이마당 02.05-02.06 제주민속촌 설맞이 멩질날 왕 놀당갑씨(멩질연휴에와서놀다가세 요) 02.02-02.06 한림공원 매화축제(꽃 전시) 02.01-03.10
3월	가파도 청보리축제 03.30-05.12

27) 김경선·서구원 (2010). 「지역축제유형에 따른 축제성공요인 영향 비교」.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9(-):147-158.

	제주왕벚꽃축제(꽃 전시) 03.29-03.31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대회 03.23-03.24 [최우수축제] 제22회 제주들불축제 03.07-03.10
4월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04.26-08.28 휴애리 수국축제 04.13-07.14 한라산 청정 고사리 축제 04.27-04.28 제주 유채꽃축제(꽃 전시) 04.04-04.07 한림공원 튜립축제(꽃 전시) 04.01-04.21
5월	제주 방선문 축제(신선이 머무는 곳) 05.04-05.05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05.08-05.11 제주국제관광마라톤축제 05.26 한림공원 부겐빌레아 축제 05.22-06.20
6월	제12회 제주 해비치아트페스티벌 06.10-06.13
7월	잔 페스티벌 07.26-07.28 한림공원 연꽃축제(꽃 전시) 07.17-08.31
8월	제주국제관악제-제주국제관악콩쿠르 08.08-08.16
9월	한림공원 꽃무릇축제(꽃 전시) 09.15-09.26 제주감귤박람회 11.08-11.12 제12회 제주해녀축제 09.21-09.23
10월	탐라문화제 10.09-10.13 핑크물리축제 10.08-11.30
11월	한림공원 국화축제(꽃 전시) 11.06-11.28 휴애리 동백축제(꽃 전시) 11.15-02.02
12월	제주성산일출축제 12.30-01.01

참고: 제주도청(제주대표축제): <https://www.visitjeju.net> 공개된 자료로 재작성

## 2. 제주지역사회의 중국인 관한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현황

### (1) 제주지역사회의 중국인 현황

중국관광연구원 국제소장 양강송 대표과제팀이 발간한 「중국 해외여행 발전 연차보고서 2021」에 따르면 상위 15개 해외여행지는 중국 마카오, 홍콩, 베트남, 한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미국,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영국, 호주, 캐나

다,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중국 마카오를 찾는 중국 본토 관광객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 중국 해외여행은 전반적으로 정체된 채 바닥을 훑고 있다. 2022년에는 해외여행 시장의 회복 행보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추세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코로나19 대응 추이와 원활한 정책 조율이 이뤄지는 목적지부터 먼저 회복될 전망이다. 「중국 해외여행 발전 연차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에도 2020년 중국의 연간 해외여행객은 2033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9% 감소했다. 2021년 해외여행 예상 인원은 2562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의 17%였지만 2020년에 비해 27%나 늘었다. 코로나19 이전 역대 나들이 규모에 비해 해외여행은 여전히 거의 정체된 상태다.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 정책은 2002년 시작됐으며 체류기간은 30일 이내다.<sup>28)</sup>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잠정적으로 시행이 중단되었다.<sup>29)</sup> 2002년 9월 중국이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무비자 출국을 허용한 지 일주일 만에 중국인 관광객 53명이 처음으로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했다. 제주지역의 중국인 등록 현황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기록된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이전까지 전체 외국인 등록의 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그 중에 중국인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전체 외국인 중 중국인 등록 건수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표 2 -11> 제주지역의 중국인 등록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외국인수	7,128	8,736	10,864	14,204	16,960	19,593	21,689	24,841	25,668	22,943	20,717
중국인의 수	명	2,197	2,560	3,691	5,709	7,343	9,001	9,955	10,968	10,844	9,258
	%	0.31	0.29	0.34	0.40	0.43	0.46	0.46	0.44	0.42	0.40

출처: 통계청(2022.06.03.검색) <https://kostat.go.kr> 공개된 자료로 제작성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19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등)로 참고함.

29) 제주공항은 2022년 6월 1일부터 '무비자 입국'이 다시 재개된다.

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이 절대적인 수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이 3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해가 최고조에 달했다. 이후 일부 사건의 영향으로 2017년 방문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 외에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도 제주도를 찾는 사람이 많다. 의외로 2021년 제주도에선 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한다.

<표 2-12> 외국인 국적별 내도 현황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3,603,021	1,230,604	1,244,832	1,726,132	212,767	48,278
일본	47,997	55,359	86,634	87,975	7,638	972
미국	33,605	32,651	31,270	39,827	9,696	10,746
대만	38,046	28,994	51,331	87,981	10,185	304
중국	3,061,522	747,315	666,120	1,079,133	103,288	6,381
홍콩	44,757	48,952	49,085	56,268	10,168	191
싱가포르	50,566	33,732	28,572	26,345	2,680	227
말레이시아	66,207	49,524	68,353	67,877	10,092	763
기타	260,321	234,077	263,467	280,726	68,191	28,694

출처: 통계청(2022.06.03.검색) <https://kostat.go.kr> 공개된 자료로 재작성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수를 봐도 2016년 말 공항 체류 사태와 2019년 말 코로나19 여파로 증가율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비자 입국 외국인 중 중국인이 99%를 넘는다. 중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차이로 다른 나라를 앞서고 있다.

<표 2-13> 제주 무사증 입국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계	918,682	357,590	519,945	813,518	72,117	-
(증감률)	45.9	-61.1	45.4	56.4	-91.1	-
중국인	912,121	347,573	506,121	797,312	70,270	-

(증감률)	46.3	-61.9	45.6	57.5	-91.2	-
기타	6,561	10,017	13,824	16,206	1,847	-
(증감률)	6.5	52.7	38.0	17.2	-88.6	-

출처: 통계청(2022.06.03.검색) <https://kostat.go.kr> 공개된 자료로 재작성

중국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외국인들이 제주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제주도 구성원으로서 한국인처럼 일정한 권리(예: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인 지방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를 갖고 있다. 특히 생활과 관련된 문화가 권리를 누리면서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된다. 이번 연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제주지역 중국인 현황을 분석한 뒤 중국 관련 문화시설과 축제행사 실태를 살펴봐야 한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특성에 대한 데이터는 없지만 제주도의 전반적인 외국인의 특성을 통해 제주도의 중국인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통계청 공개된 제주도의 성별에 따른 외국인의 현황을 보면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계속 높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기타외국인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외국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 2-14> 2017-2021년 성별 및 거주목적에 따른 외국인의 현황 (단위:명)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소계	11652	8748	14884	10403	16496	11521	15169	11662	14288	10922
외국인 근로자	6634		7486		7571		6886		6486	
결혼 이민자	2468		2617		2742		2887		2929	
유학생	1349		1886		2290		2059		2037	

외국국적 동포	1911	2034	2087	2222	2207
기타 외국인	5920	8710	10835	10514	9561
소계	20400	25287	28017	26831	25210
한국국적 외국인	1721	1888	2112	2320	2468

출처: 통계청(2022.11.30.검색) <https://kostat.go.kr>공개된 자료로 재작성

통계청 공개된 2017-2021년 제주도의 연령별에 따른 외국인의 현황을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20대가 가장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했지만 2020년 이후에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중에서 40대, 50대, 70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2021년 외국인 연령별로는 30대 8309명이 가장 많았고 20대 6655명, 40대 4749명, 50대 2242명, 10대 이하 1155명, 60대 1078명, 10대 661명, 60대 이상 361명 순이었다. 이상의 자료와 논술을 통해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의 수와 기본 상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후속 설문조사에 참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하였다.

<표 2-15> 2017-2021년 연령별에 따른 외국인의 현황 (단위:명)

연령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0 - 9세	537	736	1167	1244	1155
10 - 19세	673	911	992	748	661
20 - 29세	7107	8826	9083	7706	6655
30 - 39세	6240	7970	8796	8757	8309
40 - 49세	3076	3790	4468	4669	4749
50 - 59세	1655	1834	2154	2228	2242
60 - 69세	877	950	1023	1133	1078
70세 이상	235	270	334	346	361
한계	20400	25287	28017	26831	25210

출처: 통계청(2022.11.30.검색) <https://kostat.go.kr>공개된 자료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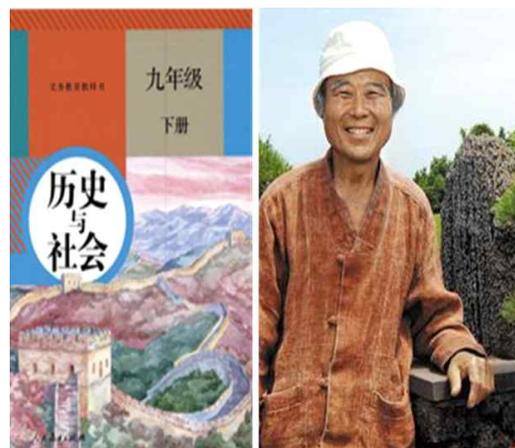
## (2) 제주지역사회의 중국인 관한 문화예술 시설현황

한국과 중국의 역사적 유대와 우호 관계는 고대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양의 하와이로 알려져 있어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지다.

같은 동아시아 문화권인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 중국은 한국과의 문화관 교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일부 문화시설 간 교류행사에서 드러난다. 예컨대 2021년 상하이박물관이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소띠 해 전시가 그것이다. 한중 동시 개최했으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상하이박물관이 선정한 소띠 유물 2점을 전시 중이었다. 2005년에도 국립제주박물관과 중국 절강성(浙江省)박물관 공동 순회 전시하였다.



<그림2-1> 중국 장쩌민주석이  
한림공원에 남긴 글씨



<그림2-2> 한국 성범영원장이  
중국교과서에 실렸다

생각하는 정원(Spirited Garden)은 중국 국가여유국(CNTA) 품질관광서비스 인증 QSC(Quality Service Certification)를 받을 정도로 중국에서 유명하다. 장쩌민(江泽民) 중국 국가주석은 1995년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제주도의 생각하는 정원(Spirited Garden)에 가서 정부 지원 없이 조성된 세계적 수준의 정원을 보고 농민의 개척 정신을 배워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며 중국으로 돌아왔다. 성범영

원장이 운영하는 생각하는 정원(Spirited Garden)은 중국 각계각층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수용했다. 초대 주한 중국대사인 장팅옌은 중국에서의 수차례 연설을 통해 수십 년 동안 배운 독특하고 뛰어난 옹기 기술을 전수했다고 말했다. 중국 지도자들은 그를 한중 관계 발전의 '영웅'으로 칭송했다. 1995년 장쩌민 주석, 1998년 후진타오 주석 방문 이후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한국의 유명 관광지, 제주도의 생각하는 정원(Spirited Garden)의 성범영 원장이 중국의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다.<sup>30)</sup> 후진타오 주석(1998년)과 시진핑 성장(2005년)<sup>31)</sup>도 제주도를 잇따라 방문했다. 성범영원장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들을 상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초청해 행사를 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문화시설에 대한 교류가 많이 있다. 중국 상하이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터를 비롯해 최치원기념관과 안중근 동상 등 한국인의 흔적이 남아 있다. 아쉽게도 중국 역사의 흔적은 한국에 없다. 이세기 회장은 서복공원 건립을 준비하기 위해 정부 기업과 수없이 소통한 끝에 수십억 원의 기금을 모아 2005년 5월 18일 서복기념관을 건립했다. 서복공원 조성은 한중 문화시설 교류에서 대표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 정용화 대사 및 중국문화부부장 채무 제주도 방문 해 서복공원 태산돌 제막식 참석했다. 그리고 서귀포라는 이름의 유래를 통해 중국과 제주도의 우호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기원전 219년에 진나라의 연금술사 서복이 진시황에 의해 보내어 500명의 소년 소녀를 이끌고 불사의 영약을 찾기 위해 제주도(당시에는 영주라고 불림)로 갔다고 한다. 서복은 제주도 정방폭포 앞바다에 도착하여 제주도에서 비약을 발견하고 서쪽으로 가 귀국하였다. 이 주변을 가리켜 '(서불이) 서쪽으로[西] 돌아간[歸] 포구[浦]'라는 뜻으로 지어졌다 한다.

### (3) 제주지역사회의 중국인 관한 문화예술 행사현황

30) 朝鮮日報中文版 cn.chosun.com-濟州島“思索之苑”被寫入中國課本.

31) 시진핑은 2003~2007년 저장성(浙江省) 서기,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주임, 저장(省江)성 군구(軍區) 당위원회 제1서기였다. 2013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중국 공산당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제주도에서도 축제 문화가 극도로 발달했다. 벚꽃축제, 유채꽃축제, 국제마라톤, 국제아이언맨대회, 추자황어축제, 서귀포 세븐마일페스티벌, 탐라문화제, 가을역사문화제, 제주자화꽃축제, 성산의 날 축제, 제주감귤축제, 봄축제 등 거의 모든 축제가 자연, 역사, 민속 등 전통문화와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제주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제주도 해녀축제는 중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녀문화'는 이제 제주관광의 중요한 브랜드가 되었다. 제주도 해녀문화박물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녀문화를 중심으로 어촌, 민속, 어업 등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이다.

제주지역사회의 중국인 관한 문화예술 활동을 고찰해 보면 현재 제주에는 대회, 공연, 축하공연 등 많은 문화예술 활동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사관, 친선협회, 대학 등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다. 민간 부문에서 운영하는 자발적인 활동은 아직 상대적으로 적다. 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제주에서 열린 중국 관련 행사는 많았다. 하지만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 여파로 2년 가까이 관련 문화행사가 주춤하다 2021년 9월에야 문화예술행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아래<표2-16>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2-16> 제주지역 중국 관련 문화행사

날 짜	행 사
2021.11.29.	제주도와 산시성 공동으로 '한중말 말하기 대회' 개최
2021.09.25.	제주도 한중온라인 교향악단 콘서트
2019.10.24.	2019년 한중 어린이'끼'경연대회
2019.10.15.	평춘태 총영사 'Tanluo Cultural Festival' 환영 만찬 참석
2019.08.29.	제1회 제주국제우수武術대회
2019.07.29.	2019 제주 화교 모임 활동
2019.08.15.	평춘타이 총영사, 광복 74주년 기념행사 참석
2019.04.03.	평춘타이 총영사, 제주 4·3 사태 71주년 기념식 참석
2018.12.31.	한중 친선 화합의 밤
2018.11.04.	2018년 한국어 말하기 경연대회

2018.10.23.	한중일 국제 서북문화제
2018.05.10.	제3회 동아시아 문화수도 청년문화하계캠프
2018.05.31.	중국어 노래 경연대회
2017.11.27.	2017년 한중 어린이'끼'경연대회
2017.09.25.	한중 수교 25주년, 사상의 정원 개관 25주년
2017.09.22.	제5회 한중친선제 한중서예전
2017.09.12.	평춘태 총영사 '제주신화월드' 시찰 및 제주대학교, 관광대학교 도서 기증 및 연설
2017.05.22.	제10회 제주다민족문화축제
2017.02.06.	정유년(丁酉年) 차이나데이
2016.12.25.	한중 어린이'끼'경연대회
2015.07.24.	2015 국립제주박물관과 중국 절강성浙江省박물관 공동 순회전시
2015.08.28.	장신 총영사 제23회 한중일 청소년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

### 3. 합의 및 소결

제주도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답사를 통해 제주도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기본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후속 설문조사의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절은 제주도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고찰과 제주도의 중국인과 관련된 문화행사와 문화시설에 대한 고찰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관한 자료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 연구를 복합하여 분류를 하였다. 둘째, 출입국 공개된 자료를 통해 제주도의 외국인 등록 현황과 내도 현황을 파악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실제 외국인과 중국인 인구를 조사한 뒤 문화원, 신문, 제주 주재 중국영사관 등을 통해 제주도의 기존 중국인 관련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분석하여 분류하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대상과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에 대한 참고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과 제주도의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고찰된 내용에 의한 고찰에 의하면, 이번 연구의 고찰 내용은 다음<표 2-17>과 같다.

<표 2-17>본 연구의 조사내용 구성 도출

구분	분 류	내 용
문화 시설	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등
	도서관	제주도서관, 한라도서관, 탐라도서관 등
	공연장	제주도문예회관, 아트센터, 탐동공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미술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등
	영화관	CGV제주, 롯데시네마(아라점,삼화등점), 메가박스제주 등
	문화공원	돌문화공원, 4.3평화공원, 향몽유적지 등
문화 행사	전통풍습축제	제주들불축제, 탐라문화제, 덕수리전통민속재현축제 등
	지역문화축제	제주해녀축제, 제주방어축제, 세계문화유산축제 등
	문화예술축제	제주국제관악축제, 제주책축제, 세계합창축제 등
	자연식물축제	제주왕벚꽃축제, 감귤축제, 동백축제, 유채꽃축제 등

출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

이번 연구도 제주도의 기존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중국인들의 향유현황을 분석한다. 문화예술시설은 박물관도서관 공연장인 미술관 영화관문화공원 5개 부문에서, 문화예술행사는 전통풍속축제, 지역문화축제, 음악독서축제, 자연식물축제 등 4개 유형의 축제에서 연구를 만들어 연구 분석할 예정이다.

#### 제4절 문화 향유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 1. 문화 향유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

###### (1) 관한 선행연구 사례

문화향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관련연구를 찾아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화향유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002년에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조사를 실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 거주 만20세 이상 60세미만 성인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공공문화예술 향유 실태, 그리고 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에 대한 조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됐다. 특히 정책에 대한 평가와 조언은 전체 연구에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sup>32)</sup>

<표 2-18>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조사 구성

구 분	조사내용
응답자의 특성	학력, 직업, 수입, 가구 수 등
서울시민의 여가 및 문화활동	서울시민의 여가활용실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행사 참여실태 서울시민의 적극적인 문화예술활동실태 문화정보이용실태
서울시민의 공공문화예술 향유실태	서울시 공공문화시설 이용실태 서울시 공공문화프로그램 참여실태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평가	서울시 도시문화공간조성정책에 대한 평가 공공문화시설 이용만족도에 대한 평가 공공문화시설의 문화예술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축제에 대한 평가
서울시 문화정책의 방향	서울시 및 자치구 문화행정 평가 서울시 문화정책의 방향

참고: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조사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서울시민의 문화향유현황을 개선하기 위한 다음<표2-19>과 같은 정책 제언을 했다. 첫째는 주민생활권을 중심으로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문화 분포지도 작성, 국립문화

3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2).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조사.

공원의 문화 공간 조성, 생활권 단위 소규모 공원(거리) 일상적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 소비 공간과 문화공간의 복합화 등이다. 둘째는 시설의 내실화 및 소규모 시설이다. 기존 시설의 이용내실화, 소규모 문화시설확충,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일률적인 확충보다는 지역단위별 부족한 시설을 확충 등이다. 셋째는 주민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축제 개발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주민수요조사, 오픈스페이스에서 소규모 지역단위 행사 개최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운영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활성화이다. 문화 관련 사이트의 구축 및 개편, 동영상 멀티미디어 이용을 통한 홍보 확대,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곳에 문화정보 게시판 확충 등이다. 이런 정책 제언들을 살펴봄으로써 이번 연구의 후속 정책 제언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 2-19> 서울시 향후 정책과제

구 분	정책과제내용
주민생활권 중심으로 문화공간 조성	서울시 문화분포지도 작성 국립공원을 문화공간으로 조성 생활권 단위 소규모 공원, 거리 등 일상적인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조성 소비공간과 문화공간의 복합화
시설의 내실화 및 소규모 시설 등	기존 시설의 이용내실화 소규모 문화시설확충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 일률적인 확충보다는 지역단위별 부족한 시설을 확충
주민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축제 개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주민수요조사 오픈스페이스에서 소규모 지역단위 행사 개최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 운영
정보제공활성화	서울시 문화 관련 사이트의 구축 및 개편 동영상, 멀티미디어 이용을 통한 홍보 확대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곳에 문화정보 게시판 확충

참고: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조사 (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또 다른 문화향유에 관한 연구를 고찰 하면 전남대학교 글로벌 디아스포라연

구소의 류재한 (2016)은 광주시민의 문화예술 욕구조사의 결과 분석 연구에 따라 연구는 문화예술 시설과 문화예술 활동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됐다.<sup>33)</sup> 문화예술 시설은 영화관, 도서관, 기념관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문화예술행사는 행사, 축제, 전시회, 음악회 등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표 2-20>광주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조사 구성

구 분	내 용
문화예술 시설	영화관, 도서관, 문화센터, 기념관/전시관, 미술관, 박물관, 야외 공연장, 연극공연장(소극장), 문예회관, 복지회관, 구민회관, 청소년회관, 문화원.
문화예술 행사	세계아리랑축전, 아시아문화전당 행사, 김치축제, 명사 강연회 , 대중가수 콘서트, 음악회, 미술 전시회, 충장축제, 비엔날레.

참고: 류재한 (2016). 「광주시민 문화예술 욕구조사의 결과 분석 연구」 .

다음으로 제주도와 관련된 문화예술 시설이나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연구를 고찰한다. 김부애·김수희(2014)는 해외 설계사가 제주도에서 설계한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의 지역문화적 특성을 접목해 제주도도 완성할 수 있는 건축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sup>34)</sup> 김태일 (2009)은 제주도의 문화시설의 지역적 분포를 분석하여 일부 문화시설의 불합리한 분포를 고려하여 이상적인 지역에 문화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sup>35)</sup> 우기남·송성진(2008)은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중심으로 축제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로 연구해 제주도 지역 축제에 대한 인프라 개선, 놀이 프로그램 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sup>36)</sup> 김태관(2013)은 통영국제음악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관령국제음악제, 제주국제관악제, 제주국제합창제 등 5개 음악축제와 관련 사

33) 류재한 (2016). 「광주시민 문화예술 욕구조사의 결과 분석 연구」 .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19):225-246.

34) 김부애·김수희 (2014). 「제주지역 현대건축의 배치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 및 제주의 문화·집회시설에 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농촌건축, (12):117-124.

35) 김태일 (2009). 「제주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분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濟州島研究, (32):69-86.

36) 우기남·송성진 (2008). 「제주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 2008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중심으로」 . 濟州觀光學研究 , (12):163-200.

례 분석을 통해 반인 대상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악 및 성악 아카데미 운영, 음악축제 상설단체 육성·운영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sup>37)</sup>

## 2. 외국인 대상으로 문화 향유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

통계청(2022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전망을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가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년 5,019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하였고 내국인 구성비는 2020년 96.7%에서 2040년 95.7%로 감소하고, 외국인은 2020년 3.3%에서 2040년 4.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다. 또한,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83만 명에서, 2030년 3,221만 명, 2040년 2,676만 명 수준일 것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sup>38)</sup> 한국의 인구 문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큰 도전이다. 외국인 비중이 높아지면 외국인의 한국 문화 적응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외국인들의 문화적 적응하기 어려움과 한국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중요하다.

외국인 대상으로 문화 향유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를 고찰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재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적 적응, 문화시설 만족도 등을 연구한 것이다. 두 번째는 모든 재한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보면, 임지혜·최정화(2009)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문화향유 실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여가 문화 향유 과정의 사회적 만족, 신체적, 환경적 만족, 교육적 만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서는 모든 요인에서 여자보다 남자의 여가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sup>39)</sup> 반결·노희경·이승환(2022)의 연구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들어가 있는 한국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보다 쉽게 한국문화에 적응할 수

37) 김태관 (2013). 「제주지역 음악축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육성 방안」.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3): 37-63.

38) 전영수(2022). 「대한민국 인구 트렌드2022-2027:인구 절벽 위기를 기회로 맞바꿀 새로운 미래지도」. 단행문.

39) 임지혜·최정화(200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향유 실태 연구- 중국인 유학생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1): 348-363.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고 이와 같이 다른 문화권의 생활에 적응한 후 이들이 인지하는 한국의 목적지의 이미지는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올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고 했다.<sup>40)</sup> 문성준·우분 (2019)은 한국에 거주 중인 젊은 중국 이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일본 대만과 함께 많은 이민자들이 정착한 주요 국가 중 하나로 국제결혼과 노동이민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화적 가치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이민자들의 대인 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험하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 이민자들의 중국 문화 가치관은 다른 중국 이민자들과의 인적 교류에 영향을 미쳤고, 이들의 한국 문화 가치관은 통계학적으로 연관성이 없었다. 또 중국 이민자의 한국문화 가치관은 다른 중국 이민자와의 인적 교류나 한국인과의 인적 교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sup>41)</sup>

둘째, 한국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희정(2019)은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역사문화 교육 방안을 논의했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대상으로는 대구의 원도심을 선정하였다. 이는 대구지역에서 학습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의 역사문화 학습에 대한 욕구(호기심)를 탐색(research)하고 구체적인 답사 대상을 학생 자신들의 모둠 활동을 통해 선정했다. 대구 도심축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문화 가운데 ‘삼성상회’의 자취를 중심으로 수업계획안을 제시하였다.<sup>42)</sup> 박선옥(2021)은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가자의 다문화 인식 개선 연구를 했다. 프로젝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한 결과, 교육 전과 비교하여 학생들은 다문화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었고,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는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을 통해 외국인의 문화적 전통과 습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마침내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sup>43)</sup> 박광원·강현옥

40) 반걸·노희경·이승환(2022). 한국 체류 중국인 문화콘텐츠 경험이 문화변용과 목적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컨벤션연구. 18(1): 25-43.

41) 문성준·우분 (2019). 「국내에 거주하는 젊은 중국인들의 문화 가치 형성과 대인 접촉도」. 다문화사회연구. 19(2): 79-102.

42) 이희정 (201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역사문화 교육방안 연구: 대구 원도심의 문화유산 답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64(1): 1-30.

(2016)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개최된 외국인축제에 방문한 이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주 외국인의 문화적응과 여가만족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연구를 했다. 모형을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우선 현지 문화는 여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여가 만족도는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지역적응성은 업무만족도 향상에 적극적이며, 이에 따라 지자체가 기존 시설과 레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경우 국내적응력과 직업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sup>44)</sup> 강순화(2009)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관광 이벤트 방문 동기변수를 바탕으로 시장을 세분화시켜 각 세분시장의 특성을 밝히는 것으로 적극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 를 위한 기본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연구했다.<sup>45)</sup> 오정학·허상현(2006)은 한국 국내 문화관광지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형태, 방문동기, 중요요소(편리성, 안전성, 서비스, 시설 등), 만족도 등이 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를 연구를 하였다.<sup>46)</sup> 위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 2-21>과 같다.

<표 2-21> 외국인 대상으로 문화 향유에 관한 선행연구 사례

적자	연구 대상	연구내용
임지혜·최정화 (2009)	중국인 유학생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문화향유 실태 연구
반결·노희경·이승환 (2022)	체류 중국인	문화콘텐츠 경험이 문화변용과 목적 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문성준·우분 (2019)	젊은 중국인	문화 가치 형성 대인 접촉도
이희정 (2019)	외국인 유학생	한국 역사문화 교육방안 연구
박선옥 (2021)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인식 프로그램

43) 박선옥 (2021).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가자의 다문화 인식 개선 연구」. 漢城語文學. 38(-): 109-131.

44) 박광원·강현옥 (2016). 「이주 외국인의 문화적응과 여가만족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6(71): 209-218.

45) 강순화(2009. ) 「주한외국인의 문화관광이벤트 방문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3): 303-320.

46) 오정학·허상현(2006). 「외국인 관광객의 문화관광 행태에 관한 비교 연구: 수원 화상을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21(2):141-154.

박광원·강현욱 (2016)	이주 외국인	문화적응과 여가만족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
강순화 (2009)	주한 외국인	문화관광이벤트 방문동기
오정학·허상현 (2006)	외국인 관광객	편리성, 안전성, 접근성, 서비스, 등

이상의 제한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주로 제한 중국인과 외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고 나아가 문화를 이용한 외국인 수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 이번 제주도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3. 합의 및 소결

이 부분은 문화향유에 관한 선행연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관련 연구에 대한 고찰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화향유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고찰의 주요내용은 문화시설, 문화예술 활동, 문화 참여의사, 문화교육, 문화정책 등임을 알게 되었다. 선행 연구의 요약과 본 연구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요 연구구상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주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연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은 제주도의 기존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공연장, 도서관 등을 둘러본다. 문화 행사는 주로 제주도의 문화 축제 행사를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다. 문화시설과 문화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문화 참여의사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문화향유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찰로 후속 연구모형 설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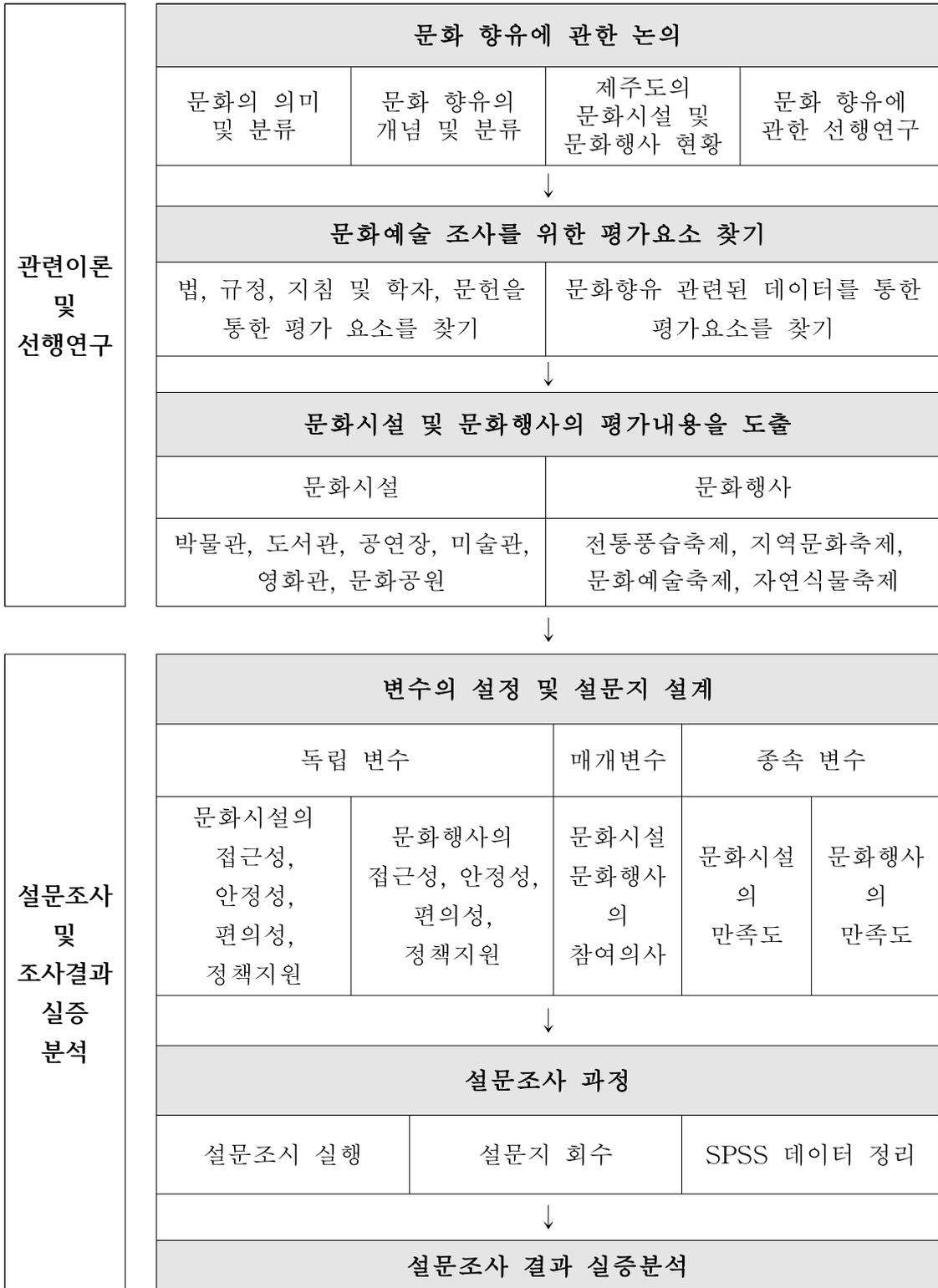
### 제5절 분석의 틀

이번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로 spss 데이터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주요 절차는 <그림 2-3> 분석의 틀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부분이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주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가 주를 이룬다. 먼저 문화의 개념 및 분류, 문화향유의 개념 및 분류 네 가지 용언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 그 고찰로 기초지식을 이해하고 후속 논문의 집필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그리고 관련 법, 규정, 지침 및 학자, 문헌을 통해 문화적 향유에 대한 평가 요소를 고찰하고, 문화 향유 관련 데이터를 결합해 평가 요소를 찾아본다. 연구 대상자들의 제주 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문화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대상자의 문화적 관심분야, 문화예술 활동 고려요인, 문화예술 활동 정보획득 등의 요소로 평가한다. 문화 향유는 제주 지역의 기존 관람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관람 시설과 가장 인기가 많은 축제에 대한 연구 대상자들의 평가요소를 한다.

둘째,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 분석부분이다. 설문지 설계 부분을 보면 통계변수는 성별, 연령별, 한국어 능력, 학력, 거주지, 방문목적 등 여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개변수는 문화 참여의 의사로 하고 종속변수는 문화시설의 만족도와 문화행사의 만족도는 두 가지 각도를 중심으로 분석된다. 설문조사는 제주지역 거주·유학 중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현지·인터넷 병행 설문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각 설문지를 번호를 매겨 무효 설문지를 제거한 후 유효 설문지에 대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 다음 수집된 데이터를 spss로 정리 분석하는데, 분석 내용은 주로 수집된 자료를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 기초통계,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분석 등이 있다.

셋째, 정책제언 부분이다. 설문 분석 부분을 통해 연구 결과를 정리하고, 연구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 조언을 한다. 문화시설과 문화행사 두 가지 부문으로 정책 제언도 할 계획이다.



	문화예술 시설 만족도에 대한 분석				문화예술 활동 만족도에 대한 분석			
	변수의 기술 통계 결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정	구조방정식분석 결과	가설의 검증	변수의 기술 통계 결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정	구조방정식분석 결과	가설의 검증
정책제언	↓							
	제주지역 문화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문화시설 만족도에 대한 정책제언		문화행사 만족도에 대한 정책제언		중국인의 문화적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그림 2-3> 분석의 틀

## 제 3 장 연구의 설계

### 제1절 변수의 설정

Parasuraman(1988)은 무형성,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이질성, 소멸성을 서비스의 특징을 바탕으로 유형성,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공감성을 특성으로 한 서비스품질(SERVQUAL) 척도를 개발하였다.<sup>47)</sup> 이번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문화 향유에 대한 연구이며 이전 장의 이론조사와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에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며 접근성, 안전성, 활동내용, 홍보내용, 인적서비스, 안내서비스, 편의시설 등이 주요 연구변수이다. 제주도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공동적인 평가 가능한 요인을 고려하고 본연구의 연구대상의 특수성을 맞춰 본 연구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요 요소는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임을 확인하였다. 요소의 구체적인 고찰의미와 주로 고찰내용은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연구요소 토출

고찰요소	구분	개념
접근성	고찰의미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접근했을 때의 교통방식 다양한지, 이용하지 편한지 등 평가
	고찰내용	주차장, 안내표시, 교통시설, 기타설비 등
안전성	고찰의미	문화 참여 성과에서 안전성에 대한 인식과 평가
	고찰내용	주로 통로, 소방시설, 직원의 능력

47) A. Parasuraman, V. A. Zeithaml, and L. L. Berry. (1998). SERVQUAL : A Multiple-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4(1):12-40.

편의성	고찰의미	중국인들의 제주도 문화 참여 과정에 대한 편의시설과 관련 종사자들의 서비스 만족도
	고찰내용	편의시설, 접수대, 화장실, 종사자 등
정책지원	고찰의미	정책지원이 문화 참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찰내용	언어 지원, 안내 지원, 도민할인, 공동 구매 할인

### 1. 접근성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접근했을 때의 교통방식 다양한지, 이용하지 편한지 등 평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에 대한 접근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 보면, 신두섭·박승규(2012)는 주민수요에 따른 효율적인 공공문화기반 시설 이용을 위해 기존 연구의 보완연구로 전서군 구내에서 1인당 문화관광예산과 공급시설 수를 기준에 상중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문화기초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행했다.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도출하였다. 분석한 결과, 각각의 고려 측면에서는 편의성 요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지만 접근 편리성도 높아 나타났다.<sup>48)</sup> 김주진·정봉현(2018)도 문화시설만족도를 연구할 때 문화시설의 접근성은 주로 교통시설만족도, 주차시설만족도, 휴게공간만족도 등의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했다.<sup>49)</sup> 백승기(2006)는 지역축제의 참여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축제내용, 접근성, 참여용이성, 행사시설, 주변 지역적 특성 등 요인으로 분석하였<sup>50)</sup>고 서희석·류지원(2013)도 전라북도의 6개 축제를 중심으로 축제의 만족도를 접근성, 안내, 프로그램, 음식 및 특산품등 요인을 연구했다.<sup>51)</sup> 고승익·윤동구·정승훈·박은아(2000)은 행사장시설 및 접근성, 행사장환경, 행사내용, 가격(비용), 행사진행

48) 신두섭·박승규 (2012).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한국문화경제학회, 15(03):139-159.

49) 김주진·정봉현 (2018). 「지역예약도 및 문화시설 만족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 학술대회, 18(06):728-741.

50) 백승기 (2006).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그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락문화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0(2):137-156.

51) 서희석·류지원 (2013). 「지역축제의 환경단서가 방문객의 축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라북도 고창군 6개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7(2):133-158.

등 5개의 요인에 22개의 측정항목을 사용하였고.<sup>52)</sup> 송은아(2012)는 공연장에 적합한 서비스품질 측정요인이 물리적 증거, 직원의 신뢰와 응대 등에 관련된 인적 서비스, 할인혜택 등 촉진요인, 주차서비스로 도출했다.<sup>53)</sup> 노봉호,정강환(2004)은 행사장의 접근성, 주차시설 편의성, 프로그램의 교육성, 흥미성, 사전홍보 인지도, 안내요원 서비스등 요인으로 문화예술제의 평가를 하였고<sup>54)</sup> 정병웅(2005)은 홍보 및 안내, 행사진행 전반(접근방식, 주차장, 등), 프로그램의 내용, 쇼핑 및 음식, 운영 및 국민 참여, 외국인 관광객 수용자세, 숙박 및 연계관광 등으로 이루어졌다.<sup>55)</sup> 부숙진(2018)은 지역축제환경단서를 평가했을 때 접근성, 편의시설, 홍보, 행사, 기념품, 음식을 6가지 요소로 분석하였다.<sup>56)</sup> 박경일·박종희(2005)는 경주에 문화관광지역의 편의시설 만족도와 접근성에 대해 연구를 실행했는데 건물의 외부시설인 도로, 매개시설인 주차장, 내부시설인 계단, 통로, 공공시설인 안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불만족한 내용이 안내표시, 도로 및 노면상태, 마땅한 교통수단 등이 있다.<sup>57)</sup> 제주도는 지질구조가 주로 단단한 화산암인데다 주거지역이 분산돼 있어 서울 부산 같은 도시에 지하철을 소유하지 않으려 한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이동방식이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여행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박영주·윤우석(2016)는 문화행사가 범죄예방, 재난 및 사건예방, 편의의 3가지 관점에서 연구되며, 그 중 재난 및 사건예방과 편의에 대해서는 주로 안내, 시설, 소방장비, 접근성, 편의시설, 출입구 등의 안전성을 고찰한다.<sup>58)</sup> 이상의 연구를 통해 접근성이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접근성을 고려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첫 번째로 평가한 것이다.

52) 고승익·윤동구·정승훈·박은아 (2000). 「축제 방문동기 세분화에 따른 지각된 성과와 만족 분석」. 관광학연구. 23(2):246-266.

53) 송은아 (2012). 「공연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12(5): 19-23.

54) 노봉호·정강환 (2004). 「문화예술제 행사 평가연구: 단원미술제 사례」. 디자인學研究. 17(4):319-326.

55) 정병웅 (2005). 「아산 성웅이순신 축제의 행사평가: 문화관광축제 지정 이전과 이후 평가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농촌. -(4):1-22.

56) 부숙진 (2018). 「외국인 관광객이 지각하는 지역축제 환경단서와 축제효과, 축제만족과의 관계:2017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을 중심으로」. 한국마이스관광학회. 18(1):103-121.

57) 박경일·박종희 (2005). 「경주 문화관광지역의 편의시설 만족도와 접근성에 대한 연구」. 경주 지역발전협의회, 13(03):137-160.

58) 박영주·윤우석 (2013). 「안전하고 편리한 다중운집행사 개최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국경찰연구. 15(4):69-96.

## 2. 안전성

안전성은 문화 향유 참여 과정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문제이지만 문화 시설과 문화 활동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나 서울 이태원 핼로윈 사태는 안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다.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는 형식과 장소의 차별성이 크기 때문에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분리하여 고찰함으로써 공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사한 요소를 찾을 수 있다. 문화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연구를 고찰해 보면 김규리·장영호·김주연(2021)이 공공문화시설의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을 연구했을 때 공공문화시설의 안전성 및 디자인의 관한 안전 정책 및 법률로 분석하였고<sup>59)</sup> 갈원모(2008)가 공연장 안전에 관한 해내·외의 관련법규와 무대사고의 사례를 살펴보고 공연장의 무대에 잠재해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를 분석함으로써 공연장 사고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제시하였다.<sup>60)</sup> 왕한진·이왕기·손기상(2017)은 더욱 구체적으로 관객석의 통로, 계단 등의 중요성을 강조해 공연장 안정방침, 리더십 및 설치인지 영역, 교육 및 훈련영역, 평가 및 점검 영역 등 제조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sup>61)</sup> 공석주·이석만(2017)은 안전 매뉴얼 개발, 출입도구의 관리, 이동노선의 관리, 인력운영, 안전상황실 등 안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sup>62)</sup> 후속 결론 부분의 정책 제안에서 참조할 때 도움을 될 수 있다. 김태민(2014)은 법제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sup>63)</sup> 이민형(2012)이 민간경비 제도적으로 연구하였다.<sup>64)</sup> 전찬호(2014)는 도서관의 재난대비와 안전대책을 분석해 예방 및 완화 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3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sup>65)</sup> 문화행사의

59) 김규리·장영호·김주연 (2021). 「공공문화시설의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한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16(1):349-358.

60) 갈원모 (2008). 「국내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대책에 관한연구」. 대한안전경영학회. 28(1):101-111.

61) 왕한진·이왕기·손기상 (2017). 「공연·행사장 안전 의식도 조사」. 한국문화산업학회 17(1):53-60.

62) 공석주·이석만 (2017). 「대규모 행사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경비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 12(1):23-49.

63) 김태민 (2014) 「지방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련 법제 고찰 및 정책제언」. 한국지방자치연구. 16(3):241-266.

64) 이민형 (2012).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2):161-184.

65) 전찬호 (2014). 「도서관의 재난대비와 안전대책: 재난관리를 위한 도서관의 재난대비계획」. 한국도서관협회 55(7):16-22.

안전성에 관한 연구고찰을 보면 김현식·김주호(2015)는 금산인삼축제를 중심으로 안전성을 조절효과로 지역축제 서비스 개선을 연구했는데, 그 중 안전성은 식품 안전과 시설안전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됐다.<sup>66)</sup> 정승환·최영재·정혜진(2017)은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중심으로 축제서비스품질이 만족도 연구했는데, 축제서비스품질의 평가요소가 축제프로그램, 사전홍보, 안전성 3가지 요소로 했다. 안전성에 대한 결과는 '안정성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가 기각하고 '안정성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가 채택되었다.<sup>67)</sup>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연구는 그 중의 주요 통로, 소방시설, 직원의 능력 등을 조사할 것이다.

### 3. 편의성

편의성도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고찰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편의성 관련 연구 고찰하면 신두섭·박승규(2012)는 주민 수요에 근거하는 효율적인 공공 문화 기반 시설 이용을 위해서, 기존의 연구의 보완 연구로서 전 시군 구내에서 1인당의 문화 관광 예산과 공급 시설수를 기준으로 상중하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 문화 기초시설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행했다. 공공문화기반시설의 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하여 도출했다. 분석한 결과, 각각의 고려 측면에서는 편의성 요인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접근편리성도 높게 나타났다.<sup>68)</sup> 조현호·유영준(1999)은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소싸움축제를 문화이벤트 연구하였다. 그 변수는 편의적 요소, 놀이적 요소, 심리적 요소 등으로 분석하였고 문화관광 개발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해야 하고 편의시설도 충분해야 한다고 했다.<sup>69)</sup> 최용복·부창산(2007)은 제주도의 벚꽃축제를 참여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만족의 속성을 측정한 결과 편의시설, 상품, 먹

66) 김현식·김주호 (2015). 「지역축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안전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금산인삼축제를 중심으로」.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17(3):141-163.

67) 정승환·최영재·정혜진 (2017). 「축제서비스품질이 만족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중심으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6(4):207-223.

68) 신두섭·박승규 (2012). 「공공문화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한국문화경제학회. 15(03):139-159.

69) 조현호·유영준 (1999). 「지역축제의 만족도에 관한연구: 청도 소싸움축제를 대상으로」. 경주대학교논문집. 12(1)49-68.

거리, 즐길 거리, 운영 등 5가지 요인으로 나타났고<sup>70)</sup> 이장주(1997)가 축제 이미지 속성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진도영등재를 대상으로 편의적 요소, 놀이적 요소, 심리적 요소, 지역적 요소, 제의적 요소, 참여적 요소로 구성된 30개의 측정항목을 개발하여 유희성, 신기성, 이용성, 향토성, 전통성, 체험성, 교육성이라는 7개의 속성 항목을 밝혀냈다.<sup>71)</sup> 이정실·양일용(2003)은 부산의 국제아트페스티벌을 대상으로 축제의 만족도 요인을 편의성 그리고 편리성, 축제매력, 경제성, 시설성, 청결 및 유익성, 등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sup>72)</sup> 박경일·박종희(2005)도 문화관광 부속 편의시설에 대한 연구 분석을 했다, 그 결과는 장애인용 화장실 부족, 접수대 및 매표소 이용하기 어려움, 관광관련업체 종사자들의 장애인 대한 무관심 등이 부족한 사항이 있다.<sup>73)</sup> 접근성에서 고찰했던 부숙진(2018)은 지역축제환경단서를 평가했을 때 접근성, 편의시설, 홍보, 행사, 기념품, 음식을 6가지 요소로 분석하였다.<sup>74)</sup> 정병웅(2005)은 아산에서 실행하고 있는 성웅이순신 축제를 사례로 홍보 및 안내, 행사진행 전반(주차장, 등), 프로그램의 내용, 쇼핑 및 음식, 운영 및 국민 참여, 외국인 관광객 수용자세, 숙박 및 연계관광 등을 연구하였다.<sup>75)</sup> 김범석(2018)은 공연장 서비스 품질이 공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공연 만족의 속성을 측정한 요인 직원의 친절도, 편의성, 시설우수성 등 5가지로 연구했다.<sup>76)</sup> 위에 고찰된 연구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시설이용의 어려움과 직원들의 불친절함 등 불편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어 본 연구가 편의시설의 자체이용과 시설직원들의 태도를 파악해 중국인들의 문화시설 이용과정에도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

70) 최용복·부창산 (2007).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이 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벚꽃축제를 중심으로」. 법과정제. 13(2):269-288.

71) 이장주 (1997). 「지역축제의 이미지측정척도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72) 이정실·양일용 (2003). 「지역축제 방문동기 세분화 및 만족의 차이: 부산 국제아트페스티벌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4(3):143-156.

73) 박경일·박종희 (2005). 「경주 문화관광지역의 편의시설 만족도와 접근성에 대한 연구」. 경주 지역발전협의회, 13(03):137-160.

74) 부숙진 (2018). 「외국인 관광객이 지각하는 지역축제 환경단서와 축제효과, 축제만족과의 관계:2017 대장경제세계문화축전을 중심으로」. 한국마이스관광학회. 18(1):103-121.

75) 정병웅 (2005). 「아산 성웅이순신 축제의 행사평가: 문화관광축제 지정 이전과 이후 평가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4):1-22.

76) 김범석 (2018). 「공연장 서비스 품질이 공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객 경험가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혁신연구 1(1):181-195.

#### 4. 정책지원

넷 번째는 정책지원의 측면이다. 중국인의 정책지원에 대한 고찰은 일부 문화 시설의 만족도에서 찾을 수 있지만, 가장 주요한 정책지원은 문화관광 등 관련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경기연구원의 연구원인 김홍식·좌승희(2009)는 경기도의 방문한 중국인 대상으로 연구 했는데 그 결과 중 한국여행시 가장 불편했던 사항은 ‘언어소통 불편’(68.7%)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싼 물가’(41.6%),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16.5%), ‘안내표지판’(11.5%), ‘교통 혼잡’(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sup>77)</sup> 또한 문화시설 공연장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송은아(2012)는 공연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할인혜택, 인적서비스, 주차서비스 등으로 이루어 졌다고 했다.<sup>78)</sup> 문화행사 축제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정병웅(2005)은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의 만족도 평가를 했을 때 외국인 안내대책, 외국어 안내판 설치, 통역도움이 운영실태, 외국인 방문객의 수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지수·이재욱·강민규·유승주·은성배·윤영선·곽노섭·정진만(2017)은 모바일 소프트웨어의 발달로 외국인의 모바일 언어 지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sup>79)</sup> 조석주(2007)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과 관련하여 외국인의 정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외국인을 단순히 일시적 체류자가 아니라 생활화·지역주민으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외국인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참가를 촉구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sup>80)</sup> 김재영(2000)은 모든 외국어 표기나 안내문이 영어와 일본어에 국한되어 있으니 날로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특히 중국인 관광객 많이 찾아가는 관광지와 관광사업체의 안내표지판 등에 중국어 시급히 증가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했다.<sup>81)</sup> 남부현·최석규(2021)는

77) 김홍식·좌승희 (2009). 「경기도의 대중국 관광마케팅 전략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31(-):1-8.

78) 송은아 (2012). 「공연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12(5)19-23.

79) 박지수·이재욱·강민규·유승주·은성배·윤영선·곽노섭·정진만 (2017).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지원 모바일 서버 설계 및 구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7(6):138-139.

80) 조석주 (2007).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강화방안: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07(2):271-304.

81) 김재영 (2000). 「중국어 문화권 외국인 관광객의 설악원 유치 방안」. 한국호텔관광학회연구. 20(9):33-56.

한국의 거주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연구를 했는데 외국인에 대한 교류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sup>82)</sup> 이번 연구의 정책적 지원은 언어적 지원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제주도의 언어적 지원 연구도 있다. 예를 들면 김중섭(2003)은 먼저 국제자유도시 추진단에 중국어 전문 담당을 임용하고, 교육청에서 도내 고등학교에서 순회 강의하도록 중국어 원어민 교사를 초빙하여 하였다는 중요성은 강조하고 중국인의 제주도 문화관광 과정에서 중국어 지향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sup>83)</sup> 또 하나는 중국인들의 공동구매 혜택에 대한 제주도의 고찰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왕이(網易)신문에 따르면 제주도 신화월드는 중국 더블행사에 맞춰 온라인 공동구매를 할인 한다.<sup>84)</sup> 따라서 본 연구는 정책 지원 측면에서 언어 지원, 안내 지원, 도민할인, 공동 구매 할인 등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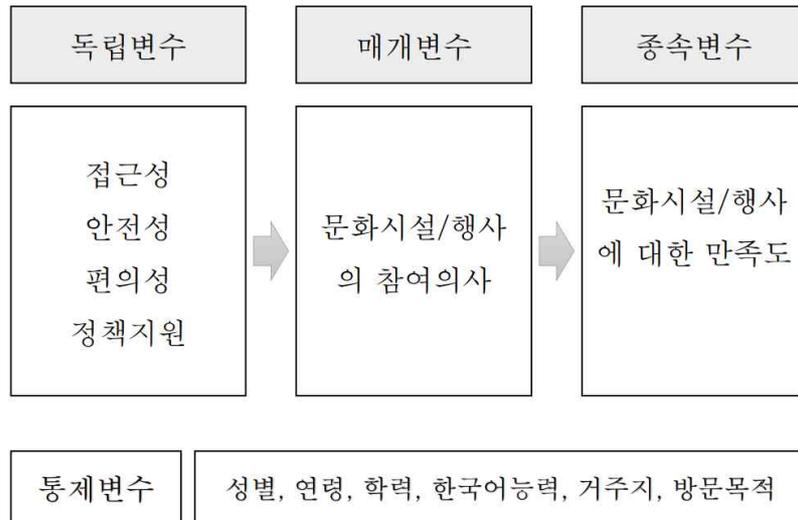
## 제2절 연구의 모형

본 연구는 문화향유의 개념과 이전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인의 제주에서 문화향유의 실태를 조사하는 틀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접근성, 안정성, 편의성, 정책지원이 참여의사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하고 문화 참여의사와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만족도의 사이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전의 이론적 검토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모형을 다음<그림3-1>과 같이 설계하였다.

82) 남부현·최석규 (2021).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와 삶의 만족도 연구: 사회적지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10(6):227-257.

83) 김중섭 (2003). 「제주도내 중국어 안내 책자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연구학회, 8(01):119-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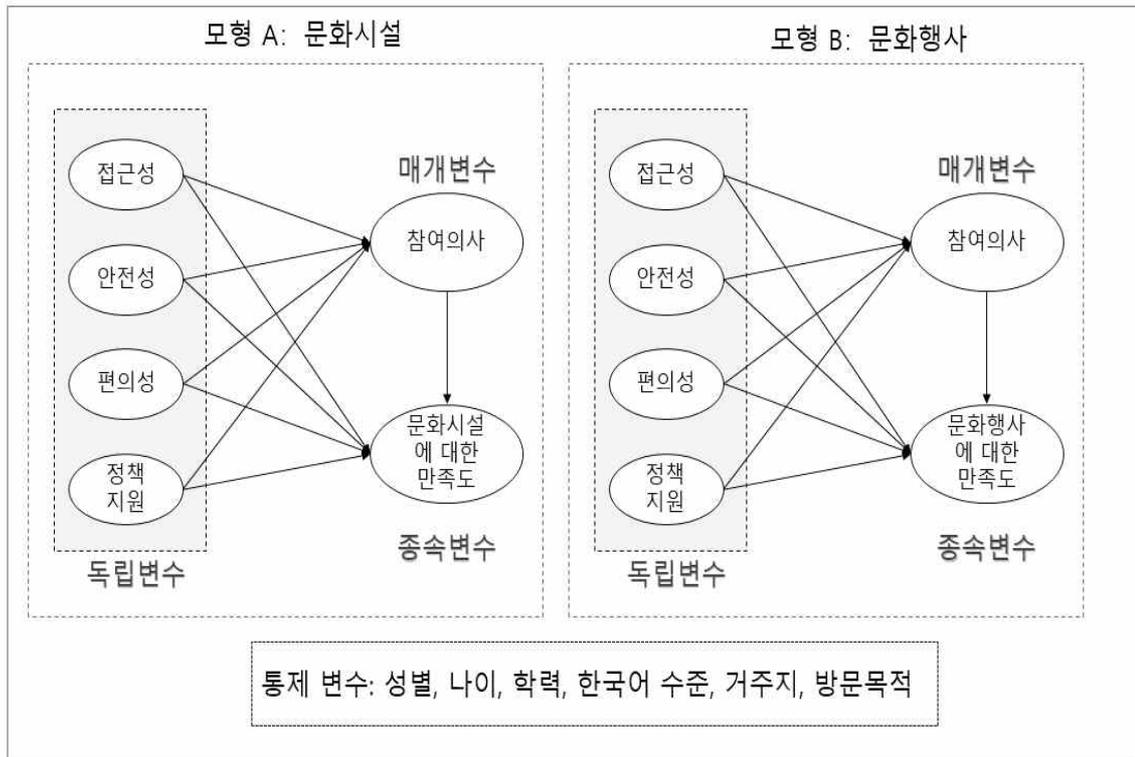
84) 網易뉴스:www.163.com(2022.10.04.검색).



<그림 3-1>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을 문화시설 및 행사 만족도 분석의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일반 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는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인 부분에서 정책 지원이 추가되었다. 성별, 연령, 학력, 중국인의 한국어 수준, 거주지, 문화시설/행사의 방문목적에 따라 문화 향유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본 연구는 주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연구 내용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두 연구모형을 하나의 연구모형으로 통합하여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최종 모형<그림 3-2>을 설계하였다.

종속변수는 전체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이용과정 만족도를 5가지 내용으로 만족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립변수가 문화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 참여 의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 모형은 문화 참여 의사를 매개변수로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위의 연구 모형을 사용하여 본 연구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3-2> 본 연구의 모형

### 제3절 조사의 설계 및 표본특성

#### 1. 조사의 설계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의 향유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여러 가지의 문화, 문화향유, 문화 참여의사 등을 관련된 이론을 고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본연구의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만족도 조사의 항목은 리커트 5등간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통계변수 부문으로, 본 연구의 통계변수 부문은 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 문화시설 방문목적이다. 성별

은 정상적으로 남녀로 구분되며 연령이 구체화되어 20대 이하, 20대, 30대, 30대 이상으로 구분된다. 학력은 의무교육<sup>85)</sup>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 석사, 대학원 박사 등으로 나뉜다. 한국어 능력은 능력 시험 수준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기본 평가를 채택하였으며 ‘전혀 못 한다, 못 한다, 보통이다, 잘 한다, 아주 잘 한다’로 나누고 있다. 거주지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로만 구분된다. 문화 참여의 원인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 가정 화목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학교 내 수업으로,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 자신 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 가족 화목을 위하여, 문화여행을 위해서, 기타 등으로 나뉜다.

두 번째 부분은 종속변수 부분이고 종속변수 부분은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문화 참여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이용과정 만족도 등 5가지 측면에서 질문을 상영한다.

세 번째 부분은 독립 변수 부분이다. 독립 변수는 주로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및 정책 지원의 네 가지 부분에서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각 차원은 3개의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질문한다. 접근성은 주로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장을 찾을 때의 과정에 대한 고찰이고 안전성은 주로 전체 사용 과정의 안전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다. 편의성은 부수적인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고찰이고, 정책지원은 중국인들이 문화시설 이용에 언어적 도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설문지의 마지막 부분은 문화 참여 의사의 매개변수 부분이다. 이 부분은 주로 참여의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고안된 설문문항이다. 참여의사 부분은 전반적, 예술성, 유익성, 홍보내용, 유행성의 5개 부분에서 제목을 설계했다.

이번 연구의 설문지의 구조와 내용의 설계는 아래 <표3-2>과 같다.

<표 3-2> 설문지의 항목 구성

변수	구분	순번	설문내용	참고
통제 변수	성별	1	귀하의 성별은 ?	
	나이	2	귀하의 연령은 ?	

85) 중국의 의무교육제도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중국의 모든 적령기 아동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9년간 무료로 입학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중화인민공화국의무교육법.

	학력	3	귀하의 학력은 ?	
	한국어능력	4	귀하의 한국어 능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거주지	5	귀하의 거주중인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방문목적	6	귀하께서 문화시설/행사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승혁 (2016) <sup>86)</sup>
종속 변수	전반적	1	제주도 문화시설 참여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고호석 (2009) <sup>87)</sup> 박선옥 (2021) <sup>88)</sup>
			제주도 문화행사 참여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서비스	2	문화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고호석 (2009) 김승혁 (2016)
			문화행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프로그램	3	문화시설의 전시된 내용 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고호석 (2009) 정병용 (2005)
			문화행사의 출연된 내용 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분위기	4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조현호·유영준 (1999) 송은아 (2012)
			문화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이용과정	5	제주도의 문화시설 전반의 이용과 체험 과정에 만족한다.	
			제주도의 문화행사 전반의 이용과 체험 과정에 만족한다.	
독립 변수	접근성	6	문화시설의 접근거리 측면에서 편리하다.	라도삼 등 (2002) <sup>89)</sup> 박경일·박종희 (2005) 장대성 (2004) <sup>90)</sup>
			문화행사의 접근거리 측면에서 편리하다.	
			문화시설에 접근 교통방식 다양하다.	
	안전성	7	문화행사에 접근 교통방식 다양하다.	
			문화시설의 근처의 안내와 지시가 명확하고 있다.	
			문화행사의 근처의 안내와 지시가 명확하고 있다.	
			문화시설의 계단, 안전통로 등 잘 되어 있다.	
	편의성	10	문화행사의 계단, 안전통로 등 잘 되어 있다.	갈원모 (2008) 장대성 (2004) 김태민 (2014) 전찬호 (2014) 정병용 (2005)
			문화시설의 직원들이 안전 관리 능력은 믿을 수 있다.	
			문화행사의 직원들이 안전 관리 능력은 믿을 수 있다.	
			문화시설의 안전 과 소방시설이 명확히 표시하여 잘 되어 있다.	
	편의성	11	문화행사의 안전 과 소방시설이 명확히 표시하여 잘 되어 있다.	장대성 (2004) 라도삼 등
문화시설의 편의점, 화장실 등 부속시설이 쾌적하게 되어 있다.				

정책지원		문화행사의 편의점, 화장실 등 부속시설이 쾌적하게 되어 있다.	(2002)
		13 문화시설의 부속 편의시설의 직원들은 친절하다.	박경일·박종희 (2005)
		문화행사의 부속 편의시설의 직원들은 친절하다.	조현호·유영준 (1999)
		14 문화시설의 부속 편의시설의 위생이 잘 유지되고 있다.	
	15 문화행사의 부속 편의시설의 위생이 잘 유지되고 있다.		
	문화시설의 관련 할인(도민할인, 美團 등) 잘 알고 쓰고 있다.	김중섭 (2003)	
	문화행사의 관련 할인(도민할인, 美團 등) 잘 알고 쓰고 있다.	김재영 (2000)	
	16 문화시설의 중국어 안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조석주 (2007)	
	문화행사의 중국어 안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송은아 (2012)	
	17 문화시설의 중국어나 영어 안내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정병용 (2005)	
매개변수	전반적	18 제주도의 문화시설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다.	고호석 (2009) 라도삼 등 (2002) 김승혁 (2016) 장기영 김명호 장소운 (2011) 조현호·유영준 (1999) 송은아 (2012)
		19 제주도의 문화행사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다.	
	예술성	예술성이 높은 문화 시설의 참여의사가 더 높다.	
		20 예술성이 높은 문화 행사의 참여의사가 더 높다.	
	유익성	문화시설 선택할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에 더 참가하고 싶다.	
		21 문화행사 선택할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에 더 참가하고 싶다.	
	홍보내용	홍보가 잘 되고, 정보 내용이 상세한 시설에 참여의사가 높다.	
22 홍보가 잘 되고, 정보 내용이 상세한 행사에 참여의사가 높다.			
유행성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에 맞춰 문화시설 참여하는 의사가 높다.		
	23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에 맞춰 문화행사 참여하는 의사가 높다.		

86) 김승혁 (2017). 「문화예술활동 참여동기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화예술 교육 학습동기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7) 고호석 (2005).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와 방문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관광학회. 16(2):25-47.

88) 박선옥 (2021).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가자의 다문화인식 개선

## 2. 표본의 특성

이번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제주도 문화 향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한 결과 375건의 유효한 설문결과를 받았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표 3-3>과 같다.

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는 남성 204명, 여성 171명 등 총 375명이 참여했다. 그 중에 20대가 250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89명(23.7%), 20대 이하 20명(5.3%), 30대 이상이 16명(4.6%) 순이었다. 학력에 따라 대학생 214명(57.1%), 대학원 석사 96명(25.6%), 대학원 박사 41명(10.9%), 고등학교 19명(5.1%), 의무교육 5명(1.3%)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어 수준에 따르면 ‘보통이다’가 138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잘 한다’가 116명(30.9), ‘아주 잘 한다’ 및 ‘못 한다’가 56명(14.9%), 전혀 못한다는 응답이 9명(2.4%)이었다. 거주지별로는 제주시가 298명(79.5%)으로 서귀포시 77명(20.5%)을 압도했다. 방문 목적에 따르면 ‘자신 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라고 응답한 자가 80명(21.3%)으로 가장 많았고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라고 응답한 자가 79명(21.1%),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라고 응답한 자가 62명(16.5%), ‘문화여행을 위하여’라고 대답한 사람이 58명(15.5%),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라고 응답한 사람이 42명(11.2%), ‘기타’라고 대답한 사람이 7명 순이었다.

<표 3-3> 연구 표본의 특성

구분	내용	빈도		구분	내용	빈도	
		명	퍼센트			명	퍼센트
성별	남성	204	54.4	나이	20대 이하	20	5.3
	여성	171	45.6		20대	250	66.7

연구」. 한성어문학. 38(2):109-131.

89) 라도삼·김수현·김중환·정선희·박혜원·강유진·권자영·나현주 (2002). 「서울시민의 문화욕구 및 향유실태 조사: 서울시 문화정책의 효율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19-130.

90) 장대성 (2004). 「국제공항 서비스품질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인천 및 김포국제공항을 대상으로」. 한국품질경영학회. 13(2):59-76.

학력	의무교육	5	1.3	거주 지	30대	89	23.7
	고등학교	19	5.1		30대 이상	16	4.6
	대학교	214	57.1		제주시	298	79.5
	대학원 석사	96	25.6		서귀포시	77	20.5
	대학원 박사	41	10.9		여가생활/취미생활을 위하여	79	21.1
한국 어 수준	전혀 못 한다	9	2.4	방문 목적	학교 내 수업으로	47	12.5
	못 한다	56	14.9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	62	16.5
	보통이다	138	36.8		자신 발전/성취감을 위하여	80	21.3
	잘 한다	116	30.9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	42	11.2
	아주 잘 한다	56	14.9		문화여행을 위하여	58	15.5
-	-	-	-		기타	7	1.9

#### 제4절 가설의 설정

본 절에서는 이론적인 논의와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 모형과 결합하여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문제와 가설 내용을 논의하였다. 이번 연구는 제주도 거주하는 중국인 400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다. 또한 문화 참여의사가 문화향유 전반에 걸쳐 매개되는 효과를 탐색한다. 본 연구의 주성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로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 지원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만족도가 있고 마지막 부분은 참여의사이다. 본 연구의 가설은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총 6가지 변수 사이에 연구문제를 도출하기 위한 설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만족도 및 참여의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이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둘째,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이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참여의사가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참여의사가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과 문화시설의 만족도를 매개하는지 알아본다. 이러한 연구 문제에 따른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구분하여 가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표3-4>과 같다.

<표 3-4> 연구가설의 설정

가설	가설의 내용
가설1	문화시설
가설1-1:	문화시설 접근성은 문화시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문화시설 안전성은 문화시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문화시설 편의성은 문화시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문화시설 정책지원은 문화시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5:	문화시설 안전성은 문화시설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6:	문화시설 접근성은 문화시설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7:	문화시설 편의성은 문화시설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8:	문화시설 정책지원은 문화시설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9:	문화시설 참여의사는 문화시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문화행사
가설2-1:	문화행사 접근성은 문화행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2:	문화행사 안전성은 문화행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3:	문화행사 편의성은 문화행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4:	문화행사 정책지원은 문화행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5:	문화행사 접근성은 문화행사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6:	문화행사 안전성은 문화행사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7:	문화행사 편의성은 문화행사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8:	문화행사 정책지원은 문화행사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9:	문화행사 참여의사는 문화행사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5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문화 향유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2022년 10월 15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이 중 설문지 설계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한 예비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제주도 거주 중국인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8일까지 무작위 설문지를 배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본 예비 설문지는 최종적으로 57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무효 설문지 9부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48부를 회수하였다. 예비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지의 신뢰도는 높지만 설문지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설문지의 만족도와 참여 의사에 대한 설문지를 수정하여 본 논문의 정식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정식 설문조사는 2022년 10월 19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총 421건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이 중 이상 답변과 무효 설문결과 45건을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유효 설문 375건을 회수하였다.

위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다.

- 먼저 Excel(2016버전)을 사용하여 설문지 데이터 이름 변경 및 잘못된 설문지 제거를 포함하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 그 다음으로 정리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SPSS(IBM SPSS26 MAC버전)로 데이터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데이터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과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했다.
- 마지막으로 아모스(IBM SPSS Amos)를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했다. 주로 신뢰도 검정,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등을 포함되어 있다.

## 제6절 합의 및 소결

이 장은 연구의 설계 부분으로 변수 설정, 연구 모형, 조사 설계 및 표본 특성, 가설 설정,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의 5가지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변수의 설정부분은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변수를 대략적으로 결정한 후, 관련 문헌과 연구결과를 수집하여 변수의 타당성을 고찰하고, 본 연구의 만족도 평가요인은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그리고 설정된 변수를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을 설계하였으며, 본 연구는 문화향유에 대한 평가를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모형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조사 설계는 본 연구의 설문지 디자인과 수집된 데이터의 표본 기본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주로 독립변수(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 매개변수(참여의사), 종속변수(만족도)의 3가지 변수 간의 관계에서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으로 전체 설문 조사 과정과 데이터 처리 방법을 설명했다. 이장의 설명을 통한 다음장의 데이터 분석 및 가설 검증을 위한 데이터 기반을 제공한다.

## 제 4 장 중국인의 문화향유에 대한 실증분석

### 제1절 문화시설의 실증 분석결과

#### 1. 변수의 기술 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데이터를 보다 명확하고 편리하게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의 이름을 변경하였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문화시설의 만족도 문항: A\_a1, A\_a2, A\_a3, A\_a4, A\_a5, A\_a

문화시설의 접근성 문항: A\_b1, A\_b2, A\_b3, A\_b

문화시설의 안정성 문항: A\_c1, A\_c2, A\_c3, A\_c

문화시설의 편의성 문항: A\_d1, A\_d2, A\_d3, A\_d

문화시설의 정책지원 문항: A\_e1, A\_e2, A\_e3, A\_e

문화시설의 참여의사 문항: A\_f1, A\_f2, A\_f3, A\_f4, A\_f5, A\_f

#### (1) 문화시설의 만족도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문화시설의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제도의 문화시설 참여 자체에 대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문항의 평균이 4.15, 표준편차가 0.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문항의 평균이 4.07, 표준편차가 0.800로 나타났다. ‘문화시설의 전시된 내용 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문항의 평균이 4.00, 표준편차가 0.816로 나타났고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문항의 평균이 4.10, 표준편차가 0.80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문화시설 전반의 이용과 체험 과정에 만족한다.’ 문항의 평균이 4.08, 표준편차가 0.782로 확인되었다.

<표 4-1> 문화시설의 만족도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대 값
A_a1	제주도 문화시설 참여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다.	4.15	0.761	1	5
A_a2	문화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4.07	0.800	1	5
A_a3	문화시설의 전시된 내용 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4.00	0.816	1	5
A_a4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4.10	0.809	1	5
A_a5	제주도의 문화시설 전반의 이용과 체험 과정에 만족한다.	4.08	0.782	1	5

(2) 문화시설의 접근성 설문분석 결과

문화시설의 전체 기술통계 결과 중에 접근성의 평균값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문화시설의 근처의 안내와 지시가 명확하다.'는 응답은 평균이 3.85, 표준편차가 0.902로 가장 높았고, '문화시설의 접근거리 측면에서 편리하다.'는 응답은 평균이 3.78, 표준편차가 0.932. '문화시설에 접근 교통방식이 다양하다.'는 평균이 3.74로 편차가 0.958로 가장 낮았다.

<표 4-2> 문화시설의 접근성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A_b1	문화시설의 접근거리 측면에서 편리하다.	3.78	0.932	1	5
A_b2	문화시설에 접근 교통방식이 다양하다.	3.74	0.958	1	5
A_b3	문화시설의 근처의 안내와 지시가 명확하다.	3.85	0.902	1	5

(3) 문화시설의 안정성 설문분석 결과

문화시설의 안정성 기술통계 결과, '문화시설의 안전 과 소방시설이 명확히 표시하여 잘 되어 있다.'는 응답은 평균이 3.97, 표준편차가 0.844로 가장 높았다. '문화시설의 직원들이 안전 관리 능력은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평균이 3.94, 표준편차가 0.854로 나타났고 '문화시설의 계단, 안전통로 등 잘 되어 있다.'는 평균이 3.94, 편차가 0.823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3> 문화시설의 안전성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A_c1	문화시설의 계단, 안전통로 등 잘 되어 있다.	3.94	0.823	1	5
A_c2	문화시설의 직원들이 안전 관리 능력은 믿을 수 있다.	3.94	0.854	1	5
A_c3	문화시설의 안전 과 소방시설이 명확히 표시하여 잘 되어 있다.	3.97	0.844	1	5

(4) 문화시설의 편의성 설문분석 결과

문화시설의 편의성 시술통계 결과를 보면 '문화시설의 편의점, 화장실 등 부속시설이 쾌적하게 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평균값이 4.13, 표준편차가 0.9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시설의 부속 편의시설의 직원들은 친절하다.'라고 응답한 평균값이 4.06, 표준편차가 0.877로 가장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시설의 부속 편의시설의 위생이 잘 유지되고 있다.'문항의 평균값이 4.08, 표준편차가 0.875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4> 문화시설의 편의성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A_d1	문화시설의 편의점, 화장실 등 부속시설이 쾌적하게 되어 있다.	4.13	0.911	1	5

A_d2	문화시설의 부속 편의시설의 직원들은 친절하다.	4.06	0.877	1	5
A_d3	문화시설의 부속 편의시설의 위생이 잘 유지되고 있다.	4.08	0.875	1	5

(5) 문화시설의 정책지원 설문분석 결과

정책지원 설문분석 기술통계 결과를 따르면 ‘문화시설의 관련 할인(도민할인, 美團 등) 잘 알고 쓰고 있다.’문항의 평균이 3.87, 표준편차가 0.894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시설의 중국어 안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문항의 평균이 3.83, 표준편차가 0.873, ‘문화시설의 중국어나 영어 안내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문항의 평균이 3.82, 표준편차가 0.837, 그 뒤를 이었다.

<표 4-5> 문화시설의 정책지원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내용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A_e1	문화시설의 관련 할인(도민할인, 美團 등) 잘 알고 쓰고 있다.	3.87	0.894	1	5
A_e2	문화시설의 중국어 안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3.83	0.873	1	5
A_e3	문화시설의 중국어나 영어 안내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3.82	0.837	1	5

(6) 문화시설의 참여의사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문화시설의 참여의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홍보가 잘 되고, 정보 내용이 상세한 시설에 참여의사가 높다.’문항의 평균이 4.19, 표준편차가 0.7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제주도의 문화시설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것이다.’문항의 평균이 4.13, 표준편차가 0.7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화 참여 의사의 평가 중 유행성(A\_f5), 유익성(A\_f3), 예술성(A\_f2)

의 평균값은 4.18이며 표준편차는 예술성(A\_f2)이 0.739, 유익성(A\_f3)이 0.728, 유행성(A\_f5)이 0.713임을 알 수 있다.

<표 4-6> 문화시설의 참여의사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A_f1	제주도의 문화시설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것이다.	4.13	0.781	1	5
A_f2	예술성이 높은 문화 시설의 참여의사 더 높다.	4.18	0.739	1	5
A_f3	문화시설 선택할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에 더 참가하고 싶다.	4.18	0.728	1	5
A_f4	홍보가 잘 되고, 정보 내용이 상세한 시설에 참여의사가 높다.	4.19	0.766	1	5
A_f5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에 맞춰 문화시설 참여하는 의사가 높다.	4.18	0.713	1	5

## 2.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정

### (1)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문화시설의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전반적 만족도(A\_a)는 남성이 4.063, 여성이 4.098. 접근성(A\_b)은 남성이 3.838, 여성이 3.731. 안전성(A\_c)은 남성이 3.962, 여성이 3.928. 편의성(A\_d)은 남성이 4.101, 여성이 4.080. 정책지원(A\_e)은 남성이 3.871. 여성이 3.799. 참여의사(A\_f)는 남성이 4.168, 여성이 4.174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의확률은 다 0.05보다 커서 통계학적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7>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구분		A_a	A_b	A_c	A_d	A_e	A_f
남	평균	4.063	3.838	3.962	4.101	3.871	4.168

성	표준편차	0.645	.8228.	0.727	0.781	0.750	0.573
여성	평균	4.098	3.731	3.928	4.080	3.799	4.174
	표준편차	0.639	0.809	0.740	0.815	0.766	0.602
f		0.284	1.605	0.207	0.067	0.834	0.012
유의확률		0.594	0.206	0.605	0.796	0.362	0.913

\*p<0.05, \*\*p<0.01, \*\*\*p<0.001

## (2) 나이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문화시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전반적 만족도(A\_a)는 20대가 4.130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3.996, 20대 이하가 3.94, 30대 이상이 3.893 순으로 볼 수 있다. 접근성(A\_b)은 20대가 3.819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3.779, 20대 이하가 3.650, 30대 이상이 3.60,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A\_c)은 30대가 4.052,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가 4.00, 20대가 3.908, 30대 이상이 3.822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성(A\_d)은 20대 이하가 4.183으로 가장 높고 20대가 4.148, 30대가 4.015, 30대 이상 3.622 순으로 볼 수 있다. 정책지원(A\_e)은 30대 이상이 3.96, 20대 이하가 3.867, 30대가 3.850, 20대가 3.824로 나타났고 참여의사(A\_f)가 20대 이하가 4.210, 20대가 4.205, 30대가 4.139, 30대 이상이 3.786의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편의성의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아서 통계학적인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8>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구분		A_a	A_b	A_c	A_d	A_e	A_f
20대 이하	평균	3.940	3.650	4.000	4.183	3.867	4.210
	표준편차	0.616	1.095	0.918	0.952	0.894	0.600
20대	평균	4.130	3.819	3.908	4.148	3.824	4.205

	표준편차	0.631	0.751	0.714	0.713	0.744	0.557
30대	평균	3.996	3.779	4.052	4.015	3.850	4.139
	표준편차	0.669	0.918	0.700	0.911	0.806	0.613
30대 이상	평균	3.893	3.600	3.822	3.622	3.956	3.787
	표준편차	0.671	0.866	0.907	0.881	0.533	0.758
f		1.339	0.662	1.296	3.722	0.135	2.378
유의확률		0.255	0.619	0.271	0.006**	0.969	0.051

\*p<0.05, \*\*p<0.01, \*\*\*p<0.001

### (3) 학력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문화시설 응답자의 학력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전반적 만족도(A\_a)는 대학원 박사가 4.185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가 4.099, 대학원 석사가 4.088, 의무교육이 3.800, 고등학교가 3.652순으로 볼 수 있다. 접근성(A\_b)은 대학원 박사가 4.065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석사가 3.830, 대학교가 3.787, 의무교육이 3.200, 고등학교가 3.175,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A\_c)은 의무교육이 4.400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4.053, 대학원 박사가 3.959, 대학원 석사가 3.948, 대학교가 3.923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성(A\_d)은 대학원 석사가 4.198로 가장 높고 대학교가 4.134, 대학원 박사가 4.057, 고등학교가 3.368, 의무교육이 3.267순으로 볼 수 있다. 정책지원(A\_e)은 의무교육이 4.400, 대학교가 3.852, 대학원 석사가 3.816, 대학원 박사가 3.797, 고등학교가 3.737로 나타났고 참여의사(A\_f)는 대학원 박사가 4.268, 대학교가 4.198, 대학원 석사가 4.160, 고등학교가 3.905, 의무교육이 3.400의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력에 따른 만족도, 접근성, 편의성, 참여의사의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아서 통계학적의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9> 교육수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구분		A_a	A_b	A_c	A_d	A_e	A_f
의무 교육	평균	3.800	3.200	4.400	3.267	4.400	3.400
	표준편차	0.663	1.121	0.435	0.983	0.548	0.894
고등 학교	평균	3.653	3.175	4.053	3.368	3.737	3.905
	표준편차	0.768	0.984	0.569	1.212	0.879	0.681
대학교	평균	4.099	3.787	3.924	4.134	3.852	4.198
	표준편차	0.662	0.836	0.762	0.825	0.773	0.590
대학원 석사	평균	4.088	3.830	3.948	4.198	3.816	4.160
	표준편차	0.571	0.689	0.700	0.590	0.680	0.553
대학원 박사	평균	4.185	4.065	3.959	4.057	3.797	4.268
	표준편차	0.568	0.723	0.742	0.591	0.809	0.468
f		2.718	4.741	0.633	6.188	0.841	3.650
유의확률		0.030*	0.001**	0.639	0.000***	0.500	0.006**

\*p<0.05, \*\*p<0.01, \*\*\*p<0.001

(4) 한국어 수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한국어 수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에 따르면 만족도(A\_a)는 ‘아주 잘 한다’문항이 4.282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문항이 4.059, ‘잘 한다’문항이 4.050, ‘못 한다’문항이 4.025, ‘전혀 못 한다’문항이 3.822 순으로 나타났다. 접근성(A\_b)은 ‘보통이다’문항이 3.850로 가장 높고 ‘아주 잘 한다’문항이 3.792, ‘잘 한다’문항이 3.790, ‘못 한다’문항이 3.714, ‘전혀 못 한다’문항이 3.296순으로 볼 수 있다. 안전성(A\_c)은 ‘전혀 못 한다’문항이 4.333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문항이 4.068, ‘못 한다’문항이 4.012, ‘아주 잘 한다’문항이 3.917, ‘잘 한다’문항이 3.756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성(A\_d)은 ‘아주 잘 한다’문항이 4.226로 가장 높고 ‘잘 한다’문항이 4.224, ‘보통이다’문항이 4.048, ‘못 한다’문항이 3.982, ‘전혀 못 한다’문항이

2.889순으로 볼 수 있다. 정책지원(A\_e)은 ‘전혀 못 한다’문항이 4.037, ‘보통이다’ 문항이 3.932, ‘못 한다’문항이 3.857, ‘아주 잘 한다’문항이 3.798, ‘잘 한다’문항이 3.721로 나타났고 참여의사(A\_f)는 ‘아주 잘 한다’문항이 4.354, ‘잘 한다’문항이 4.210, ‘보통이다’문항이 4.155, ‘못 한다’문항이 4.068, ‘전혀 못 한다’문항이 3.400의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수준에 따른 안전성, 편의성, 참여의사의 유의확률은 0.05보다 작아서 통계학적인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0> 한국어 수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구분		A_a	A_b	A_c	A_d	A_e	A_f
전혀 못 한다	평균	3.822	3.296	4.333	2.889	4.037	3.400
	표준편차	0.967	0.676	0.687	1.093	0.754	0.735
못 한다	평균	4.025	3.714	4.012	3.982	3.857	4.068
	표준편차	0.602	0.879	0.645	0.873	0.781	0.550
보통 이다	평균	4.059	3.850	4.068	4.048	3.932	4.155
	표준편차	0.578	0.806	0.713	0.795	0.704	0.566
잘 한다	평균	4.050	3.790	3.756	4.224	3.721	4.210
	표준편차	0.728	0.872	0.815	0.681	0.844	0.565
아주 잘 한다	평균	4.282	3.792	3.917	4.226	3.798	4.354
	표준편차	0.554	0.662	0.601	0.722	0.650	0.583
f		1.972	1.131	3.790	7.149	1.436	6.174
유의확률		0.098	0.342	0.005**	0.000***	0.221	0.000***

\*p<0.05, \*\*p<0.01, \*\*\*p<0.001

#### (5) 거주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문화시설 응답자의 거주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전반적 만족도(A\_a)가 제주시가 4.059, 서귀포시가 4.156, 접근성(A\_b)은 제주시가 3.815, 서귀포시가 3.688, 안전성(A\_c)은 제주시가 3.828, 서귀포시가 4.017, 편의성(A\_d)은 제주시가 4.135,

서귀포시가 3.922, 정책지원(A\_e)은 제주시가 3.812, 서귀포시가 3.939, 참여의사(A\_f)는 제주시가 4.191, 서귀포시가 4.091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만족도, 안정성, 접근성, 정책지원, 참여의사의 유의확률은 다 0.05보다 커서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의성은 0.036로 0.05보다 작아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11> 거주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구분		A_a	A_b	A_c	A_d	A_e	A_f
제주시	평균	4.059	3.815	3.928	4.135	3.812	4.191
	표준편차	0.651	0.781	0.730	0.764	0.751	0.551
서귀포시	평균	4.156	3.688	4.017	3.922	3.939	4.091
	표준편차	0.604	0.942	0.737	0.895	0.777	0.702
f		1.392	1.483	0.903	4.433	1.733	1.801
유의확률		0.239	0.224	0.343	0.036*	0.189	0.180

\*p<0.05, \*\*p<0.01, \*\*\*p<0.001

#### (6) 방문목적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문화시설의 방문목적에 따른 교차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 만족도(A\_a)는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문항이 4.282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화목을 위하여’문항이 4.267, ‘학교 내 수업으로’문항이 4.198,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문항이 4.041, ‘기타’문항이 1.000,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문항이 3.942, ‘문화여행을 위하여’문항이 3.772 순으로 볼 수 있다.

접근성(A\_b)은 ‘가족화목을 위하여’문항이 3.984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여행을 위하여’문항이 3.931,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문항이 3.808,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문항이 3.734, ‘학교 내 수업으로’문항이 3.695,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문항이 3.661, ‘기타’문항이 3.619,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A\_c)은 ‘기타’문항이 4.238로 가장 많았으며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문항이 4.118, ‘문화여행을 위하여’문항이 4.046,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문항이 3.925, ‘가족화목을 위하여’문항이 3.921, ‘학교 내 수업으로’문항이 3.787,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문항이 3.769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성(A\_d)은 ‘가족화목을 위하여’문항이 4.191로 가장 높고 ‘학교 내 수업으로’문항이 4.156,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문항이 4.092,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문항이 4.086,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문항이 4.059, ‘문화여행을 위하여’문항이 4.046, ‘기타’문항이 3.857 순으로 볼 수 있다.

정책지원(A\_e)은 ‘가족의 화목을 위하여’문항이 4.111,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문항이 3.966,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문항이 3.825, ‘학교 내 수업으로’문항이 3.816, ‘문화여행을 위하여’문항이 3.764,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문항이 3.634, ‘기타’문항이 3.476로 나타났고

참여의사(A\_f)는 ‘학교 내 수업으로’문항이 4.272, ‘가족화목을 위하여’문항이 4.262, ‘문화여행을 위하여’문항이 4.217,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문항이 4.168,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문항이 4.155,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문항이 4.089, ‘기타’문항이 3.686의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의 따른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고 정책지원이 0.05보다 작아서 통계학적인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2> 방문목적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구분		A_a	A_b	A_c	A_d	A_e	A_f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평균	4.041	3.734	4.118	4.059	3.966	4.089
	표준편차	0.620	0.873	0.643	0.782	0.737	0.567
학교 내 수업으로	평균	4.196	3.695	3.787	4.156	3.816	4.272
	표준편차	0.520	1.004	0.852	0.884	0.728	0.536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	평균	3.942	3.661	3.769	4.086	3.634	4.168
	표준편차	0.745	0.852	0.753	0.737	0.857	0.575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	평균	4.285	3.808	3.925	4.092	3.825	4.155
	표준편차	0.592	0.784	0.671	0.752	0.752	0.673
가족화목을 위하여	평균	4.267	3.984	3.921	4.191	4.111	4.262
	표준편차	0.439	0.642	0.724	0.671	0.661	0.493
문화여행을 위하여	평균	3.772	3.931	4.046	4.046	3.764	4.217
	표준편차	0.714	0.692	0.763	0.946	0.739	0.584
기타	평균	4.000	3.619	4.238	3.857	3.476	3.686
	표준편차	0.400	0.591	0.713	0.900	0.378	0.488
f		5.315	1.168	2.127	0.311	2.461	1.549
유의확률		0.000***	0.323	0.050	0.931	0.024*	0.161

\*p<0.05, \*\*p<0.01, \*\*\*p<0.001

### 3. 구조방정식분석결과

#### (1)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

본 연구의 문화시설 분석모형과 측정변수의 신뢰고 검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의 신뢰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사용된 조사도구의 문항간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점수의 분산을 고려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의 값이 0.60초과 되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문화시설의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 결과는 다음 <표 4-13>과 같다. 종속변수인 시설만족도가 0.868, 매개변수인 참여의사가 0.844이다. 독립변수인 접근성이 0.851, 안전성이 0.840, 편의성이 0.878, 정책지원이 0.842, 모두 0.8을 초과하여 문화시설의 결과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도는 후술할 타당도의 필요조건이다. 타당성을 고찰해 보면 표준화 요인의 값들도 대부분 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R(t값)는 모두 높게(p<0.01)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표 4-13> 문화시설의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 결과

변수	요인	문항	표준화 요인 값	표준오차	CR(t값)	P값	Cronba ch's a
종속 변수	시설 만족도	만족도5	1.000	-	-	-	0.868
		만족도4	1.027	0.068	15.038	***	
		만족도3	1.014	0.069	14.683	***	
		만족도2	0.928	0.068	13.610	***	
		만족도1	0.948	0.064	14.735	***	
독립 변수	접근성	접근성3	1.000	-	-	-	0.851
		접근성2	1.056	0.069	15.376	***	
		접근성1	1.092	0.068	16.031	***	
	안전성	안전성3	1.000	-	-	-	0.840
		안전성2	0.992	0.067	14.871	***	
		안전성1	0.942	0.064	14.731	***	
	편의성	편의성3	1.000	-	-	-	0.878
		편의성2	0.966	0.053	18.101	***	
		편의성1	1.023	0.055	18.435	***	
	정책지원	정책지원3	1.000	-	-	-	0.842
		정책지원2	1.141	0.075	15.228	***	
		정책지원1	1.033	0.072	14.378	***	
매개 변수	참여의사	참여의사5	1.000	-	-	-	0.844
		참여의사4	0.817	0.070	11.596	***	
		참여의사3	0.912	0.070	13.112	***	
		참여의사2	1.034	0.074	14.052	***	
		참여의사1	0.881	0.068	12.937	***	

\*p<0.05, \*\*p<0.01, \*\*\*p<0.001

## (2)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에 선행하여 문화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 참여의사,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수의 상호작용의 관계성을 분석하

기 위하여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이는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가 등간, 비율 척도인 경우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이다.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호연관성의 정도와 본 연구 결과에서 설정한 변수의 개략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4>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 결과

구분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	만족도	참여의사
접근성	1					
안전성	0.379**	1				
편의성	0.359**	0.290**	1			
정책지원	0.406**	0.500**	0.288**	1		
만족도	0.393**	0.308**	0.456**	0.160**	1	
참여의사	0.145**	0.126*	0.328**	0.037	0.294**	1

\*p<0.05, \*\*p<0.01, \*\*\*p<0.001

위에 <표 4-14>는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r값과 유의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 종속변수인 만족도, 매개변수인 참여의사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관관계 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독립변수하위 요인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독립변수의 하위요인인 편의성과 만족도의 관계가 0.45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립변수의 하위요인인 안전성과 참여의사의 관계가 0.126으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 (3)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문화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 및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 관계 사이에 참여의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모형의 절대적합도의  $\chi^2$ 값이 220.148로 나오고 RMSEA 값이 0.019로 허용 기준치 0.08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증분 적합도는 NFI 값이 0.945, TLI 값이 0.992, IFI 값이 0.993, CFI 값이 0.993으로 다 기준치 0.9보다 커서 허용기준치 내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간명적합도는 PNFI 값이 0.764, PCFI 값이 0.834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은 비교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표 4-15> 구조 모형의 적합도

모형	절대적합도		증분 적합도				간명적합도	
	$\chi^2$	RMSEA	NFI	TLI	IFI	CFI	PNFI	PCFI
기본모형	220.148	0.019	0.945	0.992	0.993	0.993	0.794	0.834
기준치		<0.08	>0.9	>0.9	>0.9	>0.9	큰 값	큰 값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표 4-16>과 같다.

첫째,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0.142)이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값은 0.038로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표준화 요인 값(0.276)이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P값(0.000)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둘째, 문화시설의 안전성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0.044)이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값은 0.499로 0.05보다 큰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문화시설의 안전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표준화 요인 값(0.041)이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P값(0.502)이 0.05보다 큰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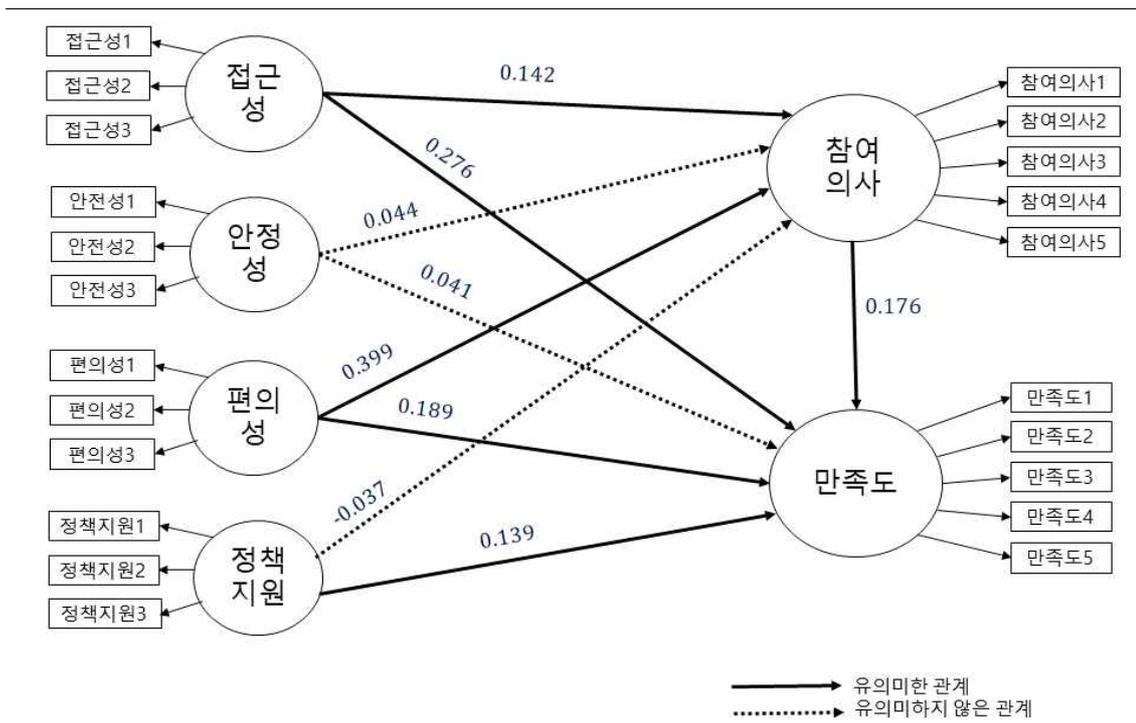
셋째, 문화시설의 편의성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0.399)이 정(+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

값은 0.000로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문화시설의 편의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표준화 요인 값(0.189)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P값(0.003)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넷째, 문화시설의 정책지원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0.037)이 부(-)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값은 0.548로 0.05보다 큰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문화시설의 정책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표준화 요인 값(0.139)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P값(0.017)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시설의 참여의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0.176)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값은 0.005로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표 4-16> 문화시설의 구조방정식 및 가설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요인 값	비표준화 요인 값	표준오차	CR(t값)	P
참여의사 ← 접근성	0.142	0.115	0.055	2.078	0.038*
참여의사 ← 안전성	0.044	0.037	0.055	0.676	0.499
참여의사 ← 편의성	0.399	0.309	0.05	6.132	0.000***
참여의사 ← 정책지원	-0.037	-0.032	0.054	-0.600	0.548
만족도 ← 참여의사	0.176	0.184	0.065	2.825	0.005**
만족도 ← 접근성	0.276	0.233	0.056	4.151	0.000***
만족도 ← 안전성	0.041	0.036	0.054	0.671	0.502
만족도 ← 편의성	0.189	0.154	0.052	2.943	0.003**
만족도 ← 정책지원	0.139	0.129	0.054	2.395	0.017*

\*p<0.05, \*\*p<0.01, \*\*\*p<0.001

#### 4. 가설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의 틀에 따라, 문화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이 독립변수, 문화시설의 만족도를 종속변수, 그리고 참여의사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상에서 검증된 문화시설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표 4-17>과 같다.

<표 4-17> 문화시설의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가설의 내용	채택 여부
가설1-1:	문화시설 접근성은 문화시설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2:	문화시설 안전성은 문화시설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1-3:	문화시설 편의성은 문화시설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4:	문화시설 정책지원은 문화시설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1-5:	문화시설 참여의사는 문화시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6:	문화시설 접근성은 문화시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7:	문화시설 안전성은 문화시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1-8:	문화시설 편의성은 문화시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1-9:	문화시설 정책지원은 문화시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문화시설에 대한 구조방정식 및 가설의 분석 결과를 따르면 문화시설의 접근성, 편의성, 정책지원은 문화시설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은 문화시설의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 반면에 문화시설의 안전성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기각하고 안전성과 정책지원은 문화시설의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기각한다. 매개변수인 참여의사는 문화시설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

## 5. 함의 및 소결

이절에서 문화시설의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기술통계, 교차분석, 구조방정식분석,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가설검증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통계는 종속변수인 문화시설 만족도,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 매개변수인 참여의사 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술통계분석을 한다. 다음으로 교차분석은 주로 성별, 연령, 학력, 한국어 수준, 거주지, 방문 목적 등 6가지 통계변수와 종속변수인 문화시설 만족도,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 매개변수인 참여의사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고찰해 보면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8을 초과하여 문화시설의 결론 신뢰도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고 표준화 요인의 값들 대부분 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R(t)값은 모두 높게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문화시설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및 가설의 검증결과를 통해 접근성, 편의성, 정책지원, 참여의사 향상이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접근성, 편의성 향상이 문화시설의 참여의사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안전성 향상은 참여의사와 만족도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다. 그만큼 문화시설 참여 과정에서 안전의식

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정책지원이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여서 정책 지원이 많을수록 참여 의사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정책적 지원(도민 할인, 중국어 정보, 서비스)이 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관심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문화시설 정책지원 대상은 주로 중국인 관광객에게 제안되고, 제주도에 장기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는 영향이 없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제2절 문화행사의 실증 분석결과

### 1. 변수의 기술 통계 결과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데이터를 보다 명확하고 편리하게 분석하기 위해 데이터의 이름을 변경하였다.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다.

문화행사의 만족도 문항: B\_a1, B\_a2, B\_a3, B\_a4, B\_a5, B\_a(평균)

문화행사의 접근성 문항: B\_b1, B\_b2, B\_b3, B\_b(평균)

문화행사의 안정성 문항: B\_c1, B\_c2, B\_c3, B\_c(평균)

문화행사의 편의성 문항: B\_d1, B\_d2, B\_d3, B\_d(평균)

문화행사의 정책지원 문항: B\_e1, B\_e2, B\_e3, B\_e(평균)

문화행사의 참여의사 문항: B\_f1, B\_f2, B\_f3, B\_f4, B\_f5, B\_f(평균)

#### (1) 문화행사의 만족도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문화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문항의 평균이 4.00, 표준편차가 0.8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행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문항이 평균이 3.94, 표준편차가 0.85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제주도 문화행사 참여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다.’ 문항의 평균이 3.95, 표준편차

가 0.818로 나타났고 ‘문화행사의 전시된 내용 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하였다.’문항의 평균이 3.95, 표준편차가 0.850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문화 행사 전반의 이용과 체험 과정에 만족한다.’문항의 평균이 3.98, 표준편차가 0.821로 확인되었다.

<표 4-18> 문화행사의 만족도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B_a1	제주도 문화행사 참여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다.	3.95	0.818	1	5
B_a2	문화행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3.94	0.857	1	5
B_a3	문화행사의 전시된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3.95	0.850	1	5
B_a4	문화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4.00	0.890	1	5
B_a5	제주도의 문화행사 전반의 이용과 체험 과정에 만족한다.	3.98	0.821	1	5

(2) 문화행사의 접근성 설문분석 결과

문화행사의 전체 기술통계 결과 중도 접근성의 평균값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문화행사의 근처의 안내와 지시가 명확하고 있다.’는 응답은 평균이 3.71, 표준편차가 0.942로 가장 높았고, ‘문화행사에 접근 교통방식 다양하다.’는 응답은 평균이 3.69, 표준편차가 0.976. ‘문화행사의 접근거리 측면에서 편리하다.’는 평균이 3.67로 편차가 0.912로 가장 낮았다.

<표 4-19> 문화행사의 접근성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B_b1	문화행사의 접근거리 측면에서 편리하다.	3.67	0.912	1	5

B_b2	문화행사에 접근 교통방식 다양하다.	3.69	0.976	1	5
B_b3	문화행사의 근처의 안내와 지시가 명확하고 있다.	3.71	0.942	1	5

### (3) 문화행사의 안전성 설문분석 결과

문화행사의 안전성 기술통계 결과, '문화행사의 계단, 안전통로 등 잘 되어 있다.'는 응답은 평균이 3.85, 표준편차가 0.923로 가장 높았다. '문화행사의 직원들이 안전 관리 능력은 믿을 수 있다.'는 응답은 평균이 3.84, 표준편차가 0.885로 나타났고 '문화행사의 안전 과 소방행사가 명확히 표시하여 잘 되어 있다.'는 평균이 3.75, 표준편차가 0.921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20> 문화행사의 안전성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B_c1	문화행사의 계단, 안전통로 등 잘 되어 있다.	3.85	0.923	1	5
B_c2	문화행사의 직원들이 안전 관리 능력은 믿을 수 있다.	3.84	0.885	1	5
B_c3	문화행사의 안전 과 소방행사가 명확히 표시 하여 잘 되어 있다.	3.75	0.921	1	5

### (4) 문화행사의 편의성 설문분석 결과

문화행사의 편의성 기술통계 결과를 보면, '문화행사의 편의점, 화장실 등 부속시설이 쾌적하게 되어 있다.'는 응답은 평균이 3.98, 표준편차가 0.946으로 가장 높았고, '문화행사의 부속 편의행사의 위생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응답은 평균이 3.95, 표준편차가 0.945. '문화행사의 부속 편의행사의 직원들은 친절하다.'는 평균이 3.85로 편차가 0.912로 가장 낮았다.

<표 4-21> 문화행사의 편의성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B_d1	문화행사의 편의점, 화장실 등 부속시설이 쾌 적하게 되어 있다.	3.98	0.946	1	5
B_d2	문화행사의 부속 편의행사의 직원들은 친절하 다.	3.85	0.912	1	5
B_d3	문화행사의 부속 편의행사의 위생이 잘 유지되 고 있다.	3.95	0.945	1	5

(5) 문화행사의 정책지원 설문분석 결과

정책지원 설문분석 기술통계 결과를 따르면 ‘문화행사의 중국어나 영어 안내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문항의 평균이 3.77, 표준편차가 0.957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행사의 중국어 안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문항의 평균이 3.74, 표준편차가 0.951, ‘문화행사의 관련 할인(도민할인, 美團 등) 잘 알고 쓰고 있다.’문항의 평균이 3.68, 표준편차가 0.939, 그 뒤를 이었다.

<표 4-22> 문화행사의 정책지원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B_e1	문화행사의 관련 할인(도민할인, 美團 등) 잘 알고 쓰고 있다.	3.68	0.939	1	5
B_e2	문화행사의 중국어 안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3.74	0.951	1	5
B_e3	문화행사의 중국어나 영어 안내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3.77	0.957	1	5

(6) 문화행사의 참여의사 설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문화행사의 참여의사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실행한 결과,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에 맞춰 문화행사 참여하는 의사가 높다.’문항의 평균이 4.17, 표준편차가 0.7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예술성이 높은 문화 행사의 참여의사 더 높다.’문항이 평균이 3.97, 표준편차가 0.83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홍보가 잘 되고, 정보 내용이 상세한 행사에 참여의사가 높다.’문항의 평균이 4.09, 표준편차가 0.771, ‘제주도의 문화행사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것이다.’문항의 평균이 4.08, 표준편차가 0.810, ‘문화행사 선택할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에 더 참가하고 싶다.’문항의 평균이 4.98, 표준편차가 0.849이었다.

<표 4-23> 문화행사의 참여의사 기술통계 결과

번호	설문내용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B_a1	제주도의 문화행사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것이다.	4.08	0.810	1	5
B_a2	예술성이 높은 문화 행사의 참여의사 더 높다.	3.97	0.836	1	5
B_a3	문화행사 선택할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에 더 참가하고 싶다.	3.98	0.849	1	5
B_a4	홍보가 잘 되고, 정보 내용이 상세한 행사에 참여의사가 높다.	4.09	0.771	1	5
B_a5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에 맞춰 문화행사 참여하는 의사가 높다.	4.17	0.797	1	5

2.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정

(1)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문화행사의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전반적 만족도(B\_a)는 남성이 3.9706,

여성이 3.9579로 나타났다. 접근성(B\_b)은 남성이 3.7582, 여성이 3.6062로 나타났다. 안전성(B\_c)은 남성이 3.8448, 여성이 3.7706로 나타났다. 편의성(B\_d)은 남성이 3.9722, 여성이 3.8733로 볼 수 있다. 정책지원(B\_e)은 남성이 3.7810, 여성이 3.6686로 볼 수 있다. 참여의사(B\_f)는 남성이 4.0853, 여성이 4.021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의확률은 다 0.05보다 커서 통계학적인 의미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4> 성별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구분		B_a	B_b	B_c	B_d	B_e	B_f
남성	평균	3.971	3.758	3.845	3.972	3.781	4.085
	표준편차	0.724	0.803	0.742	0.785	0.819	0.661
여성	평균	3.958	3.606	3.771	3.873	3.669	4.021
	표준편차	0.644	0.891	0.851	0.865	0.870	0.669
f		0.032	3.014	0.811	1.346	1.655	0.869
유의확률		0.859	0.083	0.368	0.247	0.199	0.352

\*p<0.05, \*\*p<0.01, \*\*\*p<0.001

## (2) 나이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문화행사의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전반적 만족도(B\_a)는 20대가 4.020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가 3.980, 30대가 3.863, 30대 이상이 3.760순으로 볼 수 있다. 접근성(B\_b)은 30대 이상이 3.822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가 3.733, 30대가 3.700, 20대가 3.68,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B\_c)은 30대 이상이 3.867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3.819, 20대 이하가 3.783, 30대가 3.772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성(B\_d)은 20대가 4.032로 가장 높고 20대 이하가 3.917, 30대가 3.742, 30대 이상이 3.356 순으로 볼 수 있다. 정책지원(B\_e)은 30대가 3.779, 30대 이상이 3.756, 20대 이하가 3.750, 20대가 3.707로 나타났고 참여의사(B\_f)는 20대가 4.146, 30대가 4.987, 20대 이하(3.740, 30대 이상이 3.468의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령의 따른 문화행사의 전반적인 만족도의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아서 통

계학적의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편의성과 참여의가의 유의확률 값이 0.01보다 작아서 현저한 통적학적 의미가 있는 것을 판단한다.

<표 4-25> 연령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구분		B_a	B_b	B_c	B_d	B_e	B_f
20대 이하	평균	3.980	3.733	3.783	3.917	3.750	3.740
	표준편차	0.748	1.148	0.703	0.891	0.748	0.619
20대	평균	4.020	3.680	3.819	4.032	3.707	4.146
	표준편차	0.609	0.803	0.765	0.719	0.806	0.558
30대	평균	3.863	3.700	3.772	3.742	3.779	3.987
	표준편차	0.789	0.899	0.900	0.949	0.964	0.804
30대 이상	평균	3.760	3.822	3.867	3.356	3.756	3.467
	표준편차	0.960	0.755	0.722	1.151	0.904	0.949
f		3.348	1.115	0.646	4.433	0.255	6.448
유의확률		.010*	0.349	0.630	.002**	0.907	0.000**

\*p<0.05, \*\*p<0.01, \*\*\*p<0.001

### (3) 학력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문화행사의 학력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전반적 만족도(B\_a)는 대학원 석사가 4.052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원 박사가 4.015, 대학교가 3.991, 의무교육이 3.400, 고등학교가 3.274순으로 볼 수 있다. 접근성(B\_b)은 대학원 박사가 3.837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원 석사가 3.806, 대학교가 3.654, 의무교육이 3.533, 고등학교가 3.211,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B\_c)은 대학원 석사가 3.892로 가장 많았으며 의무교육이 3.867, 대학교가 3.797, 대학원 박사가 3.789, 고등학교(3.597)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성(B\_d)은 대학원 석사가 4.028로 가장 높고 대학원 박사가 3.968, 대학교가 3.960, 고등학교가 3.263, 의무교육이 2.800순으로 볼 수 있다. 정책지원(B\_e)은 대학원 박사가 3.840, 대학교가 3.768, 의무교육이 3.733, 대학원 석사가 3.698, 고등학교가 3.298로 나타났고 참여의사(B\_f)는 대학원 박사가 4.2293, 대학

원 석사가 4.173, 대학교가 4.044, 의무교육이 3.560, 고등학교가 3.358의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력의 따른 문화행사의 전반적인 만족도, 편의성, 참여의사의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고 접근성이 0.05보다 작아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6> 학력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구분		B_a	B_b	B_c	B_d	B_e	B_f
의무 교육	평균	3.400	3.533	3.867	2.800	3.733	3.560
	표준편차	0.906	0.606	0.606	1.193	0.641	1.178
고등 학교	평균	3.274	3.211	3.597	3.263	3.298	3.358
	표준편차	0.962	0.848	0.766	0.979	1.024	0.983
대학 교	평균	3.991	3.654	3.797	3.960	3.768	4.044
	표준편차	0.676	0.859	0.848	0.860	0.846	0.649
대학 원석 사	평균	4.052	3.806	3.892	4.028	3.698	4.173
	표준편차	0.560	0.775	0.708	0.624	0.748	0.528
대학 원박 사	평균	4.015	3.837	3.789	3.968	3.805	4.229
	표준편차	0.674	0.898	0.726	0.702	0.946	0.570
f		6.519	2.459	0.629	6.238	1.475	7.948
유의확률		0.000**	0.045*	0.642	0.000**	0.209	0.000**

\*p<0.05, \*\*p<0.01, \*\*\*p<0.001

(4) 한국어 수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한국어 수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에 따르면 만족도(B\_a)는 ‘아주 잘 한다’ 문항이 4.121로 가장 많았으며 ‘잘 한다’ 문항이 4.053, ‘보통이다’ 문항이 3.955, ‘못 한다’ 문항이 3.821, ‘전혀 못 한다’ 문항이 2.88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문화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한국어수

준에 따른 전반적인 만족도의 유의확률은 0.000로 0.001보다 작아서 통계학적 의미 아주 현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접근성(B\_b)은 ‘아주 잘 한다’ 문항이 3.810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 문항이 3.715, ‘잘 한다’ 문항이 3.672, ‘못 한다’ 문항이 3.645, ‘전혀 못 한다’ 문항이 3.00순으로 볼 수 있다. 안전성(B\_c)은 ‘전혀 못 한다’ 문항이 4.185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 문항이 3.833, ‘잘 한다’ 문항이 3.810, ‘못 한다’ 문항이 3.782, ‘아주 잘 한다’ 문항이 3.726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성(B\_d)은 ‘아주 잘 한다’ 문항이 4.167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 문항이 3.961, ‘잘 한다’ 문항이 3.951, ‘못 한다’ 문항이 3.762, ‘전혀 못 한다’ 문항이 2.630 순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수준에 따른 편의성의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아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책지원(B\_e)은 ‘보통이다’ 문항이 3.797, ‘전혀 못 한다’ 문항이 3.778, ‘잘 한다’ 문항이 3.759, ‘아주 잘 한다’ 문항이 3.637, ‘못 한다’ 문항이 3.589로 나타났고 참여의사(B\_f)는 ‘잘 한다’ 문항이 4.179, ‘아주 잘 한다’ 문항이 4.179, ‘보통이다’ 문항이 4.002, ‘못 한다’ 문항이 3.946, ‘전혀 못 한다’ 문항이 3.200의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수준에 따른 참여의사의 유의확률은 0.01보다 작아서 통계학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7> 한국어 수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구분		B_a	B_b	B_c	B_d	B_e	B_f
전혀 못 한다	평균	2.889	3.000	4.185	2.630	3.778	3.200
	표준편차	1.205	0.441	0.801	0.841	0.577	0.943
못 한다	평균	3.821	3.649	3.782	3.762	3.589	3.946
	표준편차	0.661	0.902	0.825	0.894	0.890	0.787
보통 이다	평균	3.955	3.715	3.833	3.961	3.797	4.003
	표준편차	0.609	0.842	0.816	0.777	0.806	0.650
잘 한다	평균	4.053	3.672	3.810	3.951	3.759	4.179
	표준편차	0.721	0.904	0.776	0.826	0.912	0.577
아주 잘 한다	평균	4.121	3.810	3.726	4.167	3.637	4.179
	표준편차	0.554	0.675	0.747	0.636	0.774	0.565

f	7.868	1.867	0.705	7.988	0.817	6.130
유의확률	.000**	0.116	0.589	.000**	0.515	.000**

\*p<0.05, \*\*p<0.01, \*\*\*p<0.001

(5) 거주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문화행사 응답자의 거주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전반적 만족도(B\_a)는 제주시가 3.987, 서귀포시가 3.880. 접근성(B\_b)은 제주시가 3.723, 서귀포시가 3.558. 안전성(B\_c)은 제주시가 3.851, 서귀포시가 3.654. 편의성(B\_d)은 제주시가 3.996, 서귀포시가 3.662. 정책지원(B\_e)은 제주시가 3.756, 서귀포시가 3.628. 참여의사(B\_f)는 제주시가 4.103, 서귀포시가 3.875로 나타났다. 거주지에 따른 만족도, 안전성, 접근성, 정책지원의 유의확률은 다 0.05보다 커서 통계학적인 의미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의성이 0.001과 참여의사가 0.007로 0.05보다 작아서 통계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8> 거주지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구분		B_a	B_b	B_c	B_d	B_e	B_f
제주시	평균	3.987	3.723	3.851	3.996	3.756	4.103
	표준편차	0.675	0.839	0.778	0.774	0.825	0.610
서귀포시	평균	3.881	3.558	3.654	3.662	3.628	3.875
	표준편차	0.734	0.869	0.837	0.948	0.910	0.823
f		1.457	2.310	3.791	10.286	1.420	7.285
유의확률		0.228	0.129	0.052	0.001**	0.234	0.007**

\*p<0.05, \*\*p<0.01, \*\*\*p<0.001

(6) 방문목적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문화행사의 방문목적에 따른 교차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 만족도(B\_a)는 ‘가족화목을 위하여’ 문항이 4.148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 문항이 4.005,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문항이 3.970,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 문항이 3.945, ‘학교 내 수업으로’ 문항이 3.932, ‘문화여행을 위하여’ 문항이 3.835, ‘기타’ 문항이 3.828 순으로 볼 수 있다.

접근성(B\_b)은 ‘가족화목을 위하여’ 문항이 3.738로 가장 높았으며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문항이 3.725,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 문항이 3.721,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 문항이 3.699, ‘학교 내 수업으로’ 문항이 3.553, ‘문화여행을 위하여’ 문항이 3.649, ‘기타’ 문항이 3.762 그 뒤를 이었다.

안전성(B\_c)은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문항이 3.983로 가장 많았으며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 문항이 3.883,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 문항이 3.812, ‘가족화목을 위하여’ 문항이 3.770, ‘학교 내 수업으로’ 문항이 3.674, ‘문화여행을 위하여’ 문항이 3.667, ‘기타’ 문항이 3.381 순으로 나타났다.

편의성(B\_d)은 ‘가족화목을 위하여’ 문항이 4.079로 가장 높고 ‘문화여행을 위하여’ 문항이 4.006,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문항이 3.983, ‘학교 내 수업으로’ 문항이 3.929,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 문항이 3.892,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 문항이 3.790, ‘기타’ 문항이 3.333 순으로 볼 수 있다.

정책지원(B\_e)은 ‘문화여행을 위하여’ 문항이 3.816, ‘가족화목을 위하여’ 문항이 3.809, ‘학교 내 수업으로’ 문항이 3.737,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문항이 3.734,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 문항이 3.699,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 문항이 3.692, ‘기타’ 문항이 3.143로 나타났고

참여의사(B\_f)는 ‘가족화목을 위하여’ 문항이 4.195, ‘학교 내 수업으로’ 문항이 4.132,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 문항이 4.081,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 문항이 4.063, ‘기타’ 문항이 4.029, ‘문화여행을 위하여’ 문항이 4.000,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문항이 3.9544의 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방문목적의 따른 모든 유의확률은 0.05보다 커서 통계학적인 의미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9> 방문목적에 따른 교차분석결과

구분		B_a	B_b	B_c	B_d	B_e	B_f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평균	3.970	3.726	3.983	3.983	3.734	3.954
	표준편차	0.766	0.886	0.654	0.792	0.812	0.727
학교 내 수업으로	평균	3.932	3.553	3.674	3.929	3.738	4.132
	표준편차	0.682	0.974	0.904	0.911	0.935	0.656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	평균	3.945	3.699	3.812	3.790	3.699	4.081
	표준편차	0.647	0.864	0.851	0.848	0.831	0.657
자신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	평균	4.005	3.721	3.883	3.892	3.692	4.063
	표준편차	0.632	0.809	0.718	0.807	0.853	0.707
가족화목을 위하여	평균	4.148	3.738	3.770	4.079	3.810	4.195
	표준편차	0.536	0.760	0.798	0.702	0.846	0.443
문화여행을 위하여	평균	3.835	3.649	3.667	4.006	3.816	4.000
	표준편차	0.750	0.829	0.842	0.786	0.783	0.661
기타	평균	3.829	3.762	3.381	3.333	3.143	4.029
	표준편차	1.009	0.535	1.079	1.291	1.103	0.725
f		0.959	0.297	1.659	1.314	0.768	0.801
유의확률		0.453	0.938	0.130	0.250	0.596	0.570

\*p<0.05, \*\*p<0.01, \*\*\*p<0.001

### 3.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 (1)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

본 연구의 문화행사 분석모형과 측정변수의 신뢰고 검정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의 신뢰도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의 사용된 조사도구의 문항간의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문항점수의 분산을 고려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의 값이 0.60초과 되면 측정도구의 신뢰도가 높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의 문화시설의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 결과는 다음 <표4-30>과 같다. 종속변수인 시설만족도가 0.870, 매개변수인 참여의사가 0.875이다. 독립변수인 접근성이 0.879, 안전성이 0.841, 편의성이 0.855, 정책지원이 0.867, 모두 0.8을 초과하여 문화시설의 결과 신뢰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뢰도는 후술할 타당도의 필요조건이다. 타당성을 고찰해 보면 표준화 요인의 값들도 대부분 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R(t값)는 모두 높게 나타났고 P값이 0.000로 ( $p < 0.01$ )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표 4-30> 문화행사의 측정변수의 신뢰도와 타당성 검정

변수	요인	문항	표준화 요인 값	표준오차	CR(t값)	P값	Cronb ach's $\alpha$
종속 변수	시설 만족도	만족도	1.000	-	-	-	0.870
		만족도	1.010	0.070	14.457	***	
		만족도	0.995	0.066	14.984	***	
		만족도	1.016	0.067	15.204	***	
		만족도	0.943	0.064	14.729	***	
독립 변수	접근성	접근성	1.000	-	-	-	0.879
		접근성	1.155	0.064	17.952	***	
		접근성	1.048	0.06	17.569	***	
	안전성	안전성	1.000	-	-	-	0.841
		안전성	0.941	0.064	14.736	***	
		안전성	1.062	0.068	15.627	***	
	편의성	편의성	1.000	-	-	-	0.855
		편의성	0.897	0.055	16.200	***	
		편의성	0.961	0.058	16.714	***	
	정책지원	정책지원	1.000	-	-	-	0.867
		정책지원	0.985	0.054	18.207	***	
		정책지원	0.913	0.054	17.039	***	

매개 변수	참여의사	참여의사	1.000	-	-	-	0.875
		참여의사	0.951	0.060	15.751	***	
		참여의사	0.905	0.068	13.266	***	
		참여의사	1.020	0.066	15.519	***	
		참여의사	1.037	0.063	16.414	***	

\*p<0.05, \*\*p<0.01, \*\*\*p<0.001

## (2) 상관관계 분석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에 선행하여 문화행사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 참여의사,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변수의 상호작용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 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이는 변수들의 측정에 사용된 척도가 등간, 비율 척도인 경우 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이다.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 간의 상호연관성의 정도와 본 연구 결과에서 설정한 변수의 개략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1>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 결과

구분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	만족도	참여의사
접근성	1					
안전성	0.301**	1				
편의성	0.291**	-0.009	1			
정책지원	0.238**	0.244**	0.141**	1		
만족도	0.383**	0.165**	0.332**	0.238**	1	
참여의사	0.241**	0.070	0.385**	0.072	0.302**	1

\*p<0.05, \*\*p<0.01, \*\*\*p<0.001

위에 표는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r값과 유의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독립변수인 편의성과 안정성의 상관 계수만 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정성, 정책지원, 종속변수인 만족도, 매개변수인 참여의사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상관관계 계수의 값을 살펴보면, 독립변수하위 요인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독립변수의 하위요인인 편의성과 참여의사의 관계가 0.38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독립변수의 하위요인인 안전성과 참여의사의 관계가 0.070로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 (3)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문화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 및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 관계 사이에 참여의사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모형의 절대적합도의  $\chi^2$ 값이 214.623으로 나오고 RMSEA값이 0.017로 허용 기준치 0.08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증분 적합도는 NFI 값이 0.952, TLI 값이 0.994, IFI 값이 0.995, CFI 값이 0.995으로 다 기준치 0.9보다 커서 허용기준치 내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간명적합도는 PNFI 값이 0.730, PCFI 값이 0.763 기준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구모형은 비교적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표 4-32> 구조 모형의 적합도

모형	절대적합도		증분 적합도				간명적합도	
	$\chi^2$	RMSEA	NFI	TLI	IFI	CFI	PNFI	PCFI
기본모형	214.623	0.017	0.952	0.994	0.995	0.995	0.730	0.763
기준치		<0.08	>0.9	>0.9	>0.9	>0.9	큰 값	큰 값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와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표4-33>과 같다.

첫째, 문화행사의 접근성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0.042)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값은 0.539로 0.05보다 큰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표준화 요인 값(0.142)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P값이 0.000로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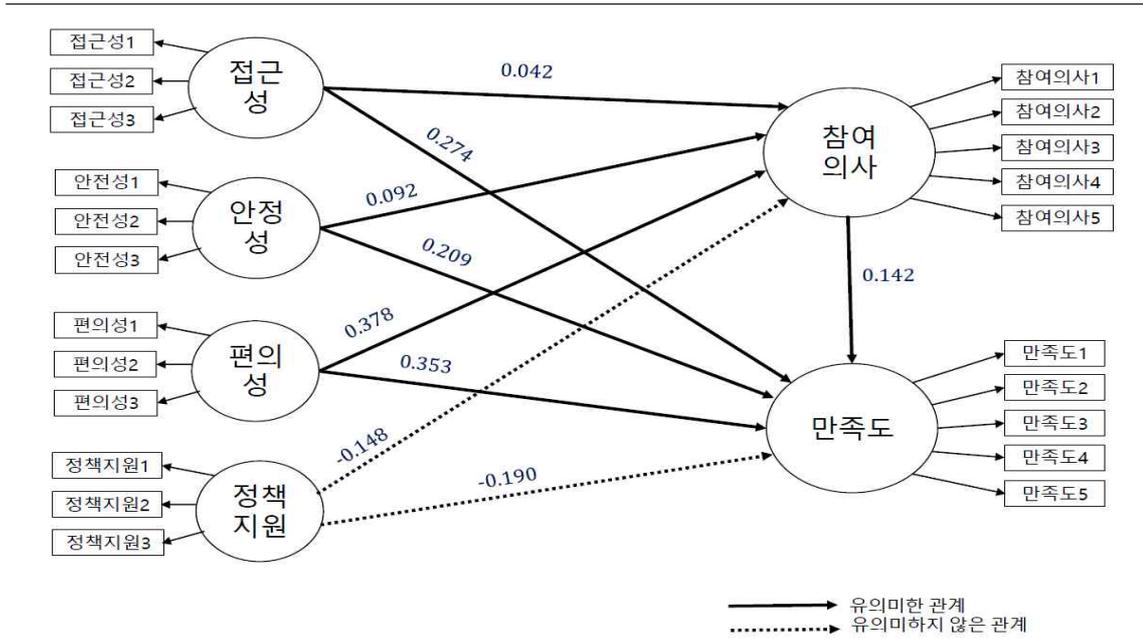
둘째, 문화행사의 안전성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0.092)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값은 0.234로 0.05보다 큰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문화시설의 안전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표준화 요인 값이 0.209로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P값이 0.003로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셋째, 문화행사의 편의성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0.378)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값은 0.000로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문화시설의 편의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표준화 요인 값(0.353)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P값이 0.000로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넷째, 문화행사의 정책지원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0.148)이 부(-)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값은 0.053로 0.05보다 큰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문화시설의 정책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표준화 요인 값(-0.190)이 부(-)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값이 0.006으로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행사의 참여의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0.142)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P값은 0.010로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표 4-33> 문화행사의 구조방정식 및 가설 분석 결과



구분	표준화 요인 값	비표준화 요인 값	표준오차	CR(t값)	P
참여의사 ← 접근성	0.042	0.036	0.059	0.614	0.539
참여의사 ← 안전성	0.092	0.08	0.067	1.19	0.234
참여의사 ← 편의성	0.378	0.3	0.054	5.577	0.000***
참여의사 ← 정책지원	-0.148	-0.115	0.060	-1.934	0.053
만족도 ← 참여의사	0.142	0.145	0.057	2.566	0.010*
만족도 ← 접근성	0.274	0.238	0.055	4.324	0.000***
만족도 ← 안전성	0.209	0.186	0.062	2.991	0.003**
만족도 ← 편의성	0.353	0.286	0.053	5.42	0.000***
만족도 ← 정책지원	-0.190	-0.151	0.055	-2.734	0.006**

\*p<0.05, \*\*p<0.01, \*\*\*p<0.001

#### 4. 가설의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분석의 틀에 따라, 문화시설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

책지원이 독립변수, 문화행사의 만족도를 종속변수, 그리고 참여의사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상에서 검증된 문화행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표 4-34>과 같다.

<표 4-34> 문화행사의 가설 검증 결과

가설	가설의 내용	채택 여부
가설2-1:	문화행사 접근성은 문화행사 참여의사에 정(+) <sup>1</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2:	문화행사 안전성은 문화행사 참여의사에 정(+) <sup>1</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3:	문화행사 편의성은 문화행사 참여의사에 정(+) <sup>1</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4:	문화행사 정책지원은 문화행사 참여의사에 정(+) <sup>1</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2-5:	문화행사 참여의사는 문화행사 만족도에 정(+) <sup>1</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6:	문화행사 접근성은 문화행사 만족도에 정(+) <sup>1</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7:	문화행사 안전성은 문화행사 만족도에 정(+) <sup>1</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8:	문화행사 편의성은 문화행사 만족도에 정(+) <sup>1</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9:	문화행사 정책지원은 문화행사 만족도에 정(+) <sup>1</sup>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문화행사에 대한 구조방정식 및 가설의 분석 결과를 따르면 문화행사의 접근성, 안전성과 편의성은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하고 편의성은 문화행사의 참여의사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 반면에 문화행사의 정책지원은 만족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을 기각하고 접근성, 안전성과 정책지원은 문화행사의 참여의사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을 기각한다. 매개변수인 참여의사는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

## 5. 함의 및 소결

이절에서 문화행사의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기술통계, 교차분석, 구조방정식분석,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가설검증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통계는

종속변수인 문화시설 만족도,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 매개변수인 참여의사 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술통계분석을 한다. 다음으로 교차분석은 주로 성별, 연령, 학력, 한국어 수준, 거주지, 방문 목적 등 6가지 통계변수와 종속변수인 문화행사 만족도,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 매개변수인 참여의사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고찰해 보면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8을 초과하여 문화시설의 결론 신뢰도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고 표준화 요인의 값들 대부분 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R(t)값은 모두 높게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문화행사에 대한 구조방정식 분석 및 가설의 검증결과를 통해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참여의사 향상이 만족도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편의성 향상이 문화행사의 참여의사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접근성, 안전성 정책지원은 참여의사와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 반면 정책지원이 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고 마이너스여서 정책 지원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정책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행사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정학·허상현(2006)은 관광객의 국적별 화상 방문동기 조사에서 중국인이 39.4%로 한국 고유의 전통경관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sup>91)</sup>. 문화행사 참여과정에서 정책지원이 많을수록 문화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재한 중국인들이 문화행사 참여과정에 언어지원, 외국인 공동구매 할인 혜택 등의 정책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보다 완전한 한국 문화행사 체험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3절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비교분석

91) 오정학·허상현 (2006). 「외국인 관광객의 문화관광 행태에 관한 비교 연구: 수원 화상을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21(2):141-154.

앞부분은 각각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교차분석, 구조방정식분석 등을 했다. 본 절에서는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요인 영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앞의 부분을 바탕으로 비교분석을 한다. 정리된 내용은 아래 <표 4-35>와 같다.

<표 4-35>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 비교

구분	문화시설		문화행사	
	표준화 요인 값	P	표준화요인 값	P
참여의사 ← 접근성	0.142	0.038*	0.042	0.539
참여의사 ← 안전성	0.044	0.499	0.092	0.234
참여의사 ← 편의성	0.399	0.000***	0.378	0.000***
참여의사 ← 정책지원	-0.037	0.548	-0.148	0.053
만족도 ← 참여의사	0.176	0.005**	0.142	0.010*
만족도 ← 접근성	0.276	0.000***	0.274	0.000***
만족도 ← 안전성	0.041	0.502	0.209	0.003**
만족도 ← 편의성	0.189	0.003**	0.353	0.000***
만족도 ← 정책지원	0.139	0.017*	-0.190	0.006**

\*p<0.05, \*\*p<0.01, \*\*\*p<0.001

문화시설과 문화행사 결과의 공통점으로 보면, 안전성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값은 0.05보다 큰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편의성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값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정책지원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표준화 요인 값이 다 부(-)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값이 다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참여의사, 접근성, 편의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를 보면 표준화 요인 값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값이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의 안전성이 높아져도 참여의사가 높아지지 않지만 편의성이 높아져 참여의사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지원이 높아지면 참여의사가 낮아진다. 참여의사, 접근성, 편의성이 높아짐에 따라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시설과 문화행사 결과의 차이점으로 보면,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접근성은 참여의사에 모두 표준화 요인 값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화시설의 p값이 0.038로 0.05보다 작은 것은 통계학적 의미가 있고 문화행사의 p값이 0.539로 0.05보다 큰 것은 통계학적 의미가 없다.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안전성은 만족도에 모두 표준화 요인 값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화시설의 p값이 0.502로 0.05보다 큰 것은 통계학적 의미가 없고 문화행사의 p값이 0.003로 0.05보다 작은 것은 통계학적 의미가 있다. 문화시설의 정책지원은 만족도에 표준화 요인 값이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값이 0.017로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지만 문화행사의 표준화 요인 값이(-0.190) 부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P값이 0.006로 0.05보다 작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의 접근성이 높아져 참여의사가 높아질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시설과 달리 문화행사 접근성 높아져 참여의사 높아지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문화행사의 안전성이 높아져 만족도가 높아질 것을 알 수 있다. 문화행사와 달리 문화시설 안전성 높아져 만족도 높아지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지원이 모두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문화시설의 정책지원이 증가하면 만족도가 증가하고 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지원이 증가하면 만족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문화시설의 정책지원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고 문화행사의 정책 지원은 편의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매개효과가 있다. 이상의 비교 분석을 통해 문화 시설과 문화 활동의 정책 지원이 모두 참여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의 정책 지원은 공동구매 혜택, 중국어 지향, 중국어 서비스 등의 관점에서 이뤄졌다. 이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

국인 관광객에게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비교해보면 접근성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책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첫째, 접근성이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개최형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화시설은 고정된 장소가 있는 반면 문화행사의 개최 장소는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두 번째는 안전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이다. 사람들은 문화시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정해진 코스가 있고 문화시설의 참여고객이 집중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지만 문화행사의 코스가 일정하지 않고 문화행사가 열릴 때 많은 고객이 참여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정책 지원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이다. 문화시설은 문화적 저력이 높고 예술작품이 많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지원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문화행사가 그 지역의 문화 분위기를 주로 느끼기 때문에 정책의 간섭이 체험감에 영향을 미친다.

## 제 5 장 제주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제언

본 연구는 중국인 대상으로 제주지역의 문화 및 문화행사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이 문화 참여의사 및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주지역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 격차와 중국인 대상으로 문화예술향유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본 연구의 정책적인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예술 시설 만족도에 대한 정책제언. 둘째, 문화예술 행사 만족도에 대한 정책제언. 셋째, 제주도의 중국인 문화적 적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절 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제언

본 연구의 문화시설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따르면 접근성, 편의성, 정책지원과 참여의사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접근성, 편의성이 참여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하지만 안전성이 문화시설 만족도와 참여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은 기각되어 있다. 그만큼 문화시설 관람 과정에서 안전성이 가장 중요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접근성 부분에서 제주도의 문화시설에 대한 별도의 버스 노선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언이다. 현재 제주도에는 관광노선 설치와 일부 민간기관에만 전용 버스노선이 있다. 제주도의 981파크에는 공항(하루4번)과 노형동(하루3번)을 오가는 셔틀버스 노선이 설치돼 있다<sup>92)</sup>. 제주도는 현재 810번 관광버스가 제주 유명 관광지를 20곳 이상, 820번 관광버스가 25곳을 경유하는 등 여러 관광

92) 9.81파크 홈페이지: [www.981park.com](http://www.981park.com)(2022.11.02.검색).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sup>93</sup>). 하지만 중국인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도는 기존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버스승강장을 문화시설 이름으로, 문화시설 인근에 택시 승하차 전문구역과 주차구역으로 하는 정책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 문화시설 접근 방식의 다양화와 편리화는 만족도뿐만 아니라 인지도도 높일 수 있다.

두 번째는 문화시설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조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시설의 안전성이 문화시설 만족도와 참여 의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모두 반박되어 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서 일어난 화재로 미국중국인박물관(MOCA)이 불에 타 중국인의 미국 이민사와 관련된 전시품 8만5천점이 소실될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sup>94</sup>). 문화시설의 안전문제는 문화재와 설비는 물론 사람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 김성중·주동후·김용수(2001)는 한 연구에서 한국의 사립박물관이 안고 있는 안전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안전교육 확대, 소방기관 정비 등을 제시했다<sup>95</sup>). 따라서 문화시설의 안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시설의 안전지향과 소방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권고하고 있다.

세 번째는 문화시설의 편의성에 대한 조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편의성은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편의시설은 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은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애인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중요하다. 박경일·박종희(2005)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광지의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편의시설에 대한 표시가 불명확하고 종업원의 불친절함이 드러났다<sup>96</sup>). 이에 따라 문화시설의 편의성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의 서비스 역량 강화, 직원들의 서비스 친절도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네 번째는 문화시설에 대한 정책지원 건의 부분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 지원은 중국인의 참여 의향이 높아지지 않지만 정책 지원은 만족도에 영향을

93) 관광지 순환버스 주식회사: [www.jejutouristshuttle.com](http://www.jejutouristshuttle.com)(2022.11.02.검색).

94) 한경뉴스:[www.hankyung.com](http://www.hankyung.com)(2022.11.01.검색).

95) 김성중·주동후·김용수 (2001). 「사립박물관 방재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퍼실리티 매니지먼트학회, 12(1):13-19.

96) 박경일·박종희 (2005). 「경주 문화관광지역의 편의시설 만족도와 접근성에 대한 연구」. 경주 지역발전협의회, 13(03):137-160.

미친다. 이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문화 참여 과정에서 중국 관련 문화시설에는 특별히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대부분 중국어 실력이 중급 이상이어서 언어 지원이 중국인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 중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문화시설에 대해 언어 지원, 할인 등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절 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제언

문화행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따르면 문화행사의 접근성, 안정성과 편의성은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정(+)<sup>97</sup>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하고 편의성은 문화행사의 참여의사에 정(+)<sup>98</sup>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하고 매개변수인 참여의사는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정(+)<sup>99</sup>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는 것이다. 위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문화행사의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언이다. 문화행사의 접근성이 문화행사의 만족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문화행사의 시기적·위치적 불확실성과도 관련이 있다. 문화시설에 비해 문화행사의 불확실성은 문화행사의 접근성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 문화행사가 열릴 경우 교통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화행사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 자금이 허락하는 한 행사 임시전용회선을 개설할 수 있고, 행사 개최 전에 교통대피 등에 대한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두 번째는 문화행사의 안전성 향상에 관한 조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행사의 안전성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참여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문화행사 참여 시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서편의 작은 골목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 발생 하였다<sup>97</sup>. 그 자리에서 300여 명이 의식을 잃고 몸을 빼지 못했고 결

국 20대 156명이 숨졌다. 이번 사건은 적시에 구조되지 않고, 안전 대응 능력이 부족한 것과 모두의 안전 의식이 낮은 것과 큰 관련이 있다. 따라서 문화행사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인력소통을 위한 전담인력을 파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세 번째는 문화행사의 편의성에 대한 조언이다. 문화행사의 편의성은 문화행사의 만족도와 참여의사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화행사의 불확실성과 장소의 한계로 인해 문화행사의 식수대, 음식점, 화장실 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제68회 충남 공주백제문화제 당시 주최 측은 열흘간의 문화행사에 대비해 임시 세면대와 화장실을 설치했다<sup>98)</sup>. 이에 따라 문화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미리 인근 상가에 연락해 임시 장소를 마련해 판매를 허용하고 공주백제문화제처럼 임시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는 제언이다.

네 번째는 문화행사에 대한 정책지원 건의 부분이다. 정책지원이 중국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 정책지원이 많을수록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다.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들이 완전한 한국 문화행사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외국적 요소를 적절히 줄임으로써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문화 체험감을 높일 수 있는 완전한 한국문화체험활동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절 제주도의 중국인 문화적 적응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외국인인 중국인들은 한국 생활에서 문화적 부적응으로 인한 고민과 갈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재한 중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현지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한국과 중국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 유학생의 문화적응성에 대한 한 연구의 적자 박애자(2015)는 재한 중국인 유학생이 다도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재

97) 나무위키:www.namu.wiki(2022.11.01.검색).

98) 참고: 수세식이동식화장실 충남 공주 백제문화제 설치 간이 컨테이너 이동 화장실(광고).

한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다도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다도활동이 재한 중국인 유학생들의 전반적인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지각된 차별감, 향수병, 사회적 고립감,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 문제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sup>99)</sup>. 다음은 한국 내 중국 취업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다. 한수진·왕신우(2022)는 한국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다양한 산업에서 필요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화 적응 및 조직적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주한 중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문화지능과 문화적응간의 관계 및 이들의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리더 정서지능을 높게 인지하게 되면 문화지능이 문화적응에 미치는 정의 관계가 보다 강화된다<sup>100)</sup>. 이에 따라 선행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본문의 연구결과와 제주도의 실태를 종합하여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아래 조언이 나왔다.

첫 번째, 다양한 다문화 문화예술 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과 생활권 중심의 다문화 활동 공간 조성이다. 중국 유학생들은 학교 행사를 통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문화 예술 행사와 문화 공간 구성은 중국인은 물론 다문화 가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의 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은 다문화 외국인 가정을 위한 행사를 자주 열지만 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은 설비와 장소가 노후화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다문화교육복지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과 문화예술 활동 및 예술 공간 마련을 장려해야 한다.

두 번째, 취미/여가생활 정보공유 사이트 구축 및 앱 개발이다. 정부나 관계기관은 문화행사에 대한 정보를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공유해야 한다. 대면 교류는 내·외국인 간 문화교류 활성화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시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는 이를 해결할 뿐 아니라 제주도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에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서로 배울 뿐 아니라 문화 역

99) 박애자 (2015). 「다도활동이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국제차문화학회, 28(2):79-126.

100) 한수진·왕신우 (2022). 「주한 중국인 근로자의 문화지능과 문화적응 관계조절요인 연구: 인지된 문화적 거리감과 리더 정서지능」. 한국문화산업학회, 22(1):151-160.

사 등을 교류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

셋 번째, 중국인 여가활동 비용 지원과 지역 소모임/동호회 육성 및 지원이다. 지원을 통해 중국인의 지방 동호회 및 모임 참여를 촉진한다. 유학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 활동과 동아리를 통해 한국인과의 교류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해 인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문화모임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교류는 물론 갈등 해소와 지방 화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안들을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문화향유에 도움이 되고, 제주지역의 중국인과 한국인의 조화로운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제 6 장 결 론

###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도의 문화시설과 문화 행사에 대한 평가를 문화 향유에 관한 고찰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과 전체적인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문화 참여 의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도 및 문화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제주도에 생활하면서 문화 향유를 고찰한다. 동양의 하와이로 불리는 제주도는 한국의 최남단일 뿐만 아니라 한·중·일의 중심에 있는 중요한 국제자유도시다. 제주도에 국제 대도시로서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 제주도에 사는 중국인들은 제주도의 일원으로서 함께 제주도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린다. 외국인의 지방투표권, 신변안전 등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생활 속에서 문화처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제대로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를 계기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문화적 향유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화 향유에 대해 어떻게 고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다른 지역의 문화 향유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문화시설, 문화행사, 문화정책, 문화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연구는 제주도의 실태를 종합해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서 중국인의 제주도 문화 향유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둘째, 제주도의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에 대한 고찰한 내용이다. 이번 연구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도 중국영사관, 제주도문화원 등을 통해 관련 뉴스와 함께 제주도의 문화시설과 문화행사, 중국과 관련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에 대한 현황 고찰과 선행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주도의 문화시설은 관련 기구의 문화시설 분류와 본 논문의 고찰 요소를 종합하면 크게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문화공원 등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박물관은 인기 많은 국립제주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대박물관, 해녀박물관 등으로 하였고 도서관이 제주도서관, 한라도서관, 탐라도서관 등으로 하였다. 공연장은 제주도문예회관, 아트센터, 탐동 공연장, 서귀포 예술의전당 등이 있다. 미술관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등이 있다. 영화관은 CGV 제주, 롯데시네마(아라점, 삼화동점), 메가박스 제주 등이 있다. 문화공원은 돌문화공원, 4.3평화공원, 향몽유적지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로 본 연구의 기본 평가의 참고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평가 내용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을 문화시설 및 행사 만족도 분석의 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일반 연구와 달리 이번 연구는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요인 부분에서 정책 지원이 추가되었다. 성별, 연령, 학력, 중국인의 한국어 수준, 거주지, 문화시설/행사의 방문목적에 따라 문화 향유 과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계변수로 설정했다. 종속변수는 전체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분위기 만족도, 이용과정 만족도를 5가지 내용으로 만족도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립변수가 문화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문화 참여 의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본 연구 모형은 문화 참여 의사를 매개변수로 연구 모형을 설계하였다. 위의 연구 모형을 사용하여 본 연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설문지를 설계하고,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는 남성 204명, 여성 171명 총 375건의 유효한 설문 결과를 받았다.

넷째, 문화시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에서 수집한 결과에 대해 기술통계, 교차분석, 구조방정식분석,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가설검증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기술통계는 종속변수인 문화시설 만족도,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 지원, 매개변수인 참여 의사 등

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술 통계분석을 한다. 다음으로 교차분석은 주로 성별, 연령, 학력, 한국어 수준, 거주지, 방문목적 등 6가지 통계변수와 종속변수인 문화시설 만족도,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 지원, 매개변수인 참여 의사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고찰해 보면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8을 초과하여 문화시설의 결관 신뢰도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표준화 요인의 값들 대부분 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R(t) 값은 모두 높게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문화시설에 대한 구조방정식 및 가설의 분석 결과를 따르면 문화시설의 접근성, 정책 지원은 문화시설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하고 접근성과 편의성은 문화시설의 참여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 반면에 문화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기각하고 안전성과 정책 지원은 문화시설의 참여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기각한다. 매개변수인 참여 의사는 문화시설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

다섯째, 문화행사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부분이다. 문화행사도 마찬가지로 설문지에서 수집한 결과에 대해 기술통계, 교차분석, 구조방정식분석, 신뢰도 및 타당성검사, 가설검증 등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기술통계는 종속변수인 문화행사 만족도,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 지원, 매개변수인 참여 의사 등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술 통계분석을 한다. 다음으로 교차분석은 주로 성별, 연령, 학력, 한국어 수준, 거주지, 방문목적 등 6가지 통계변수와 종속변수인 문화행사 만족도, 독립변수인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 지원, 매개변수인 참여 의사 간의 교차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그리고 신뢰도와 타당성을 고찰해 보면 Cronbach's  $\alpha$  값이 모두 0.8을 초과하여 문화시설의 결관 신뢰도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고 표준화 요인의 값들 대부분 기준치에 근접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R(t) 값은 모두 높게 나타났으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문화행사에 대한 구조방정식 및 가설의 분석 결과를 따르면 문화행사의 접근성, 안정성과 편의성은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하고 편의성은 문화행사의 참여 의사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 반면에 문화행사의 정책 지원은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을 기각하고 접

근성, 안전성과 정책 지원은 문화행사의 참여 의사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을 기각한다. 매개변수인 참여 의사는 문화행사의 만족도에 정(+)<sup>2</sup>의 영향을 미칠 것을 채택한다. 마지막으로 정책제언 부분을 통해 문화시설, 문화행사 및 제주도에 서의 중국인의 문화생활 적응성 제고를 제안한다.

그리고 문화시설과 문화행사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편의성 모두 참여의향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전성은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정책지원은 참여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는 접근성이 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책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두 차이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문화와 향유에 관한 이론과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하게 되었고,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통해 문화 향유에 대한 고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시사점을 갖게 되었다. 관련 데이터 고찰을 통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구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중국인의 문화 향유 현황에 대한 이번 연구를 통해 중국인의 문화 향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었다.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방향과제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적 향유에 대한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지원과 만족도 사이에 문화적 참여 의사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한다. 본 연구의 갖는 한계점 및 미래 방향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일한 기준으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 두 개의 서로 다른 변수를 평가하는 데 오차가 있다는 한정이 있다. 선행연구 답사에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함께 평가한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대부분 구체적인 한 부분이나 문화 향유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분석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 문화향유조사는 문화시설의 문

화행사뿐 아니라 현지 문화교육, 문화정책, 문화양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고 연구했지만 구체적인 교차통계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양립할 수 있는 평가요소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이번 연구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불법체류나 무비자 입국 등 거주자의 데이터 수집할 때 불합리성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18년 12월 공개된 연도별 불법 체류자 현황을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밀입국자의 65%가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sup>101)</sup>. 이번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연구 쌍방을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라인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요인이 많을 수도 있다. 인터넷 사용이 서투른 사람, 청소년,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포괄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와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상담 방식을 구할 수 없어 이번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불합리한 단점도 있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있어 20대들이 응답자의 66%를 상회하고 있어, 20대를 초점에 맞추어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중 여성의 비중이 59.0%로 차지하였지만 본 연구가 45.6%로 나왔다는 부족이 있다<sup>102)</sup>. 따라서 이번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문화 향유 현황을 반영할 때 주로 20대, 30대 문화 향유 현황을 반영해 전체 중국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분석 결과를 통해 선행 연구의 단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외국인에 대한 정책지원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번 연구는 주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참고했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을 찾는 중국인에 대한 답사 기준을 통해 한국 거주 중국인을 답사하기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런 미흡함 때문에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정책 지원이 많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101)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2018). 연도별 불법 체류자 현황.

102) 참고: 2021년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 <국적별 외국인 인구>에 따르면 등록된 외국인 중 중국 국적 가진 여성 비율이 59.0%이고 <연령별 외국인 인구>에 따르면 30대 이상이 66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6461명, 20대가 5748명, 20대 이하가 1871명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구분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심층적인 분석이 바람직하다. 문화시설과 문화행사를 살펴보는 요소는 이번 연구소가 언급한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정책 지원뿐이 아니다. 예를 들어 문화시설은 공간, 배치, 행사내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고, 문화행사는 장소, 분위기, 행사내용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또 앞으로 제주도의 문화정책 분석, 한국과 중국의 문화정책 비교 분석 등 문화 관련 정책을 분석해 보고 싶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가 후속 연구와 제주도의 문화정책에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호석 (2005). 「지역축제 서비스품질이 만족도와 방문객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관광학회. 16(2):25-47.
- 고혜영·황경수 (2021). 「제주지역 문화행정과 예술경영의 영역설정과 체계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3): 560-567.
- 고승익·윤동구·정승훈·박은아 (2000). 「축제 방문동기 세분화에 따른 지각된 성과와 만족 분석」. 관광학연구. 23(2):246-266.
- 공석주·이석만 (2017). 「대규모 행사 안전 확보를 위한 민간경비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 12(1):23-49.
- 김두이 (2021). 「문화예술향유 다양성 추이와 영향요인 연구」. 한국문화교육학회 16(3): 21-52.
- 김세훈 (2018). 「문화향유증진사업 정책 논거와 쟁점: 문화가 있는날 기획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11(2): 63-89.
- 김태일 (2009). 「제주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분포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濟州島研究. 32(-):69-86.
- 김태관 (2013). 「제주지역 음악축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콘텐츠 육성 방안」. 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3): 37-63.
- 김순화 (2009). 「주한외국인의 문화관광이벤트 방문동기에 따른 시장세분화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303-320.
- 김승혁 (2016). 「문화예술활동 참여 동기가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화교육 학습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용 (202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요인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중섭 (2003). 「제주도내 중국어 안내 책자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연구학회. 8(1):119-128.
- 김태민 (2014). 「지방 공연행사장의 안전관련 법제 고찰 및 정책제언」. 한국지방자치연구. 16(3):241-266.
- 김범석 (2018). 「공연장 서비스 품질이 공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객 경험가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혁신연구. 1(1):181-195.
- 김재영 (2000). 「중국어 문화권 외국인 관광객의 설악원 유치 방안」. 한국호텔관광학회연구. 20(9):33-56.
- 김경선·서구원 (2010). 「지역축제유형에 따른 축제성공요인 영향 비교」.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9(-):147-158.
- 김주경·김영곤 (2017). 「공공조직 구성원이 일중독과 조직 갈등의 관계에 대한 조직 냉소주의의 매개효과 분석」. 行政論叢. 55(1): 266-280.
- 김주경·임은옥 (2019). 「원전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익 인식과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8(03): 221-246.
- 김주진·정봉현 (2018). 「지역 애착도 및 문화시설 만족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 18(06): 266-280.
- 김홍식·좌승희 (2009). 「경기도의 대중국 관광마케팅 전략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31(-):1-8.
- 김현식·김주호 (2015). 「지역축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안전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 금산인삼축제를 중심으로」.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17(3):141-163.
- 김미란·남상문 (2021). 「제주지역 공공 공연장의 운영 활동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濟州島研究. 56(-): 137-165.
- 김두이·금현섭 (2018). 「문화예술향유의 다양성 측면에 대한 분석- 혼종성과 균등성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2(2): 115-143.
- 김봉애·김수희 (2014). 「제주지역 현대건축의 배치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국내 및 제주의 문화·집회시설에 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농촌건축. 12(2):117-124.

- 김성중·주동후·김용수 (2001). 「사립박물관 방재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12(1):13-19.
- 김규리·장영호·김주연 (2021). 「공공문화시설의 안전취약계층을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방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16(1):349-358.
- 갈원모 (2008). 「국내 공연장 안전관리 실태 및 개선 대책에 관한연구」. 대한안전경영학회. 28(1):101-111.
- 구영은·강현주 (2018). 「문화시설기반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천시 동구 우리미술관 문화나눔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교육학회. 13(4): 25-47.
- 권평이·김진희 (2016). 「감천문화마을 주민의 문화욕구 탐색: 의미사용이론을 중심으로」. 글로벌문화콘텐츠. 24(-): 1-26.
- 강승민·강준호 (2015). 「국내 거주 외국인의 문화적응 전략과 관람스포츠 관여도 비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12(2): 805-818.
- 나상배 (2003). 「언어와문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나 은 (2019). 「생활문화 참여자 만족도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남부현·최석규 (2021).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와 삶의 만족도 연구: 사회적지지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10(6):227-257.
- 노봉호·정강환 (2004). 「문화예술제 행사 평가연구: 단원미술제 사례」. 디자인학연구. 17(4):319-326.
- 류재한 (2016). 「광주시민 문화예술 욕구조사의 결과 분석 연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10(1):225-246.
- 류승완·이민하·장웅초 (2019). 「2019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지원 사업“꿈꾸는 예술터”평가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5(6):25-46.
- 문성준·우분 (2019). 「국내에 거주하는 젊은 중국인들의 문화 가치 형성과 대인 접촉도」. 다문화사회연구. 19(2): 79-102.
- 박은희 (2013). 「한국 성인들의 예술문화소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애자 (2015). 「다도활동이 제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 영향」. 국제차문화학회. 28(2):79-126.
- 박선옥 (2021).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참가자의 다문화 인식 개선 연구」. 漢城語文學. 38(-): 109-131.
- 박 원 (2000). 「영어교육학」. 인천대학교출판부.
- 박경일·박종희 (2005). 「경주 문화관광지역의 편의시설 만족도와 접근성에 대한 연구」. 경주지역발전협의회. 13(3):137-160.
- 박광원·강현욱 (2016). 「이주 외국인의 문화적응과 여가만족 및 직무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관계 모형 검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66(71): 209-218.
- 박영주·윤우석 (2013). 「안전하고 편리한 다중운집행사 개최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한국경찰연구. 15(4):69-96.
- 박지수·이재욱·강민규·유승주·은성배·윤영선·곽노섭·정진만 (2017).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지원 모바일 서버 설계 및 구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17(6):138-139.
- 반결·노희경·이승환 (2022). 「한국 체류 중국인의 문화콘텐츠 경험이 문화변용과 목적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이벤트컨벤션학회. 18(1): 25-43.
- 백승기 (2006). 「지역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가락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0(2):137-156.
- 소병희 (2008).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 문화예술 향수 증대를 위한 정책 제언」. 문화정책논총. 20(-): 106-125.
- 송은아 (2012). 「공연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12(5):19-23.
- 서희석·류지원 (2013). 「지역축제의 환경단서가 방문객의 축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라북도 고창군 6개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7(2):133-158.
- 신두섭·박승규 (2012). 「공공문화 기반시설 이용 만족도」. 문화경제연구. 15(3): 139-159.
- 이창기 (2015). 「공공문화예술회관 관점의 지역문화향유지수에 대한 실증연구」. 문화예술콘텐츠. -(15): 273-302.
- 이중무 (2016). 「제주도와 중국 해남도의 문화교류에 관한 시론(試論): 중국 뉴

- 실크로드 전략 시행을 계기로 본 동일문화코드 ‘유배문화’를 중심으로」. 濟州島研究. 46(2): 81-114.
- 이장주 (1997). 「지역축제의 이미지측정척도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희정 (2019).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 역사문화 교육방안 연구: 대구 원도심의 문화유산 답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64(1): 1-30.
- 이귀옥 (2007). 「중국 유학생의 여가활동유형과 대학생활만족도간의 관계」. Tourism Researc. 25(-): 23-41.
- 이대희 (2001). 「문화산업론」. 대영문화사.
- 이민형 (2012).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2):161-184.
- 이정실·양일용 (2003). 「지역축제 방문동기 세분화 및 만족의 차이: 부산 국제아트페스티벌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4(3):143-156.
- 이기영·최혜경 (2018). 「민족정체성 통일 의식 간의 관계의서 다문화 수용성의 매개효과: 한국거주 내국민과 미국거주 해외동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다문화평화. 12(2): 107-127.
- 오정학·허상현 (2006). 「외국인 관광객의 문화관광 행태에 관한 비교 연구: 수원 화상을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21(2):141-154.
- 임 기·홍성화 (2008). 「제주 지역주민과 중국 관광객간 상호인식」. 제주관광학회. 8(1): 29-40.
- 임한나 (2009). 「다문화청소년의 복지에 대한 욕구분석- 외국인근로자 자녀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2(9): 142-168.
- 임지혜·최정화 (2009).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향유 실태 연구- 중국인 유학생의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1(6): 348-363.
- 우기남·송성진 (2008). 「제주지역축제의 활성화 방안 : 2008 정월대보름 들불축제를 중심으로」. 濟州觀光學研究. 12(-):163-200.
- 왕한진·이왕기·손기상(2017). 「공연·행사장 안전 의식도 조사」. 한국문화산업학회. 17(1):53-60.
- 조석주 (2007).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강화방안: 외국

- 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 07(2):271-304.
- 조현호·유영준 (1999). 「지역축제의 만족도에 관한연구: 청도 소싸움축제를 대상으로」. 경주대학교論文集 12(1):49-68.
- 전찬호 (2014). 「도서관의 재난대비와 안전대책: 재난관리를 위한 도서관의 재난 대비계획」. 한국도서관협회. 55(7):16-22.
- 전혜정·이가연 (2015).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6): 137-165.
- 정연학 (2015). 「중국 대문에 등장하는 상징물을 통한 중국인의 문화표상」. 동아시아문화연구. 63(11): 133-175.
- 정보람 (2017). 「소득과 문화소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병웅 (2005). 「아산 성웅이순신 축제의 행사평가: 문화관광축제 지정 이전과 이후 평가를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농촌. -(4):1-22.
- 정철현 (2004). 「문화정책론」. 서울경제경영.
- 증가형·최규환 (2020). 「중국인관광객의 문화친숙도, 관광만족도, 재방문의도의 이미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동북아관광학회. 16(01): 195-281.
- 장기영·김명호·장소운 (2011). 「지역축제의 서비스품질이 축제만족도, 재방문 및 구전 의사에 미치는 영향: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24(1):447-464.
- 정승환·최영재·정혜진 (2017). 「축제서비스품질이 만족도와 행도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중심으로」.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26(4):207-223.
- 최용복·부창산 (2007). 「지역축제의 만족속성이 방문객 만족도와 재방문 및 추천의도에 미치는 영향: 제주벚꽃축제를 중심으로」. 법과정책. 13(2):269-288.
- 허인정 (2010). 「대학생의 문화소비성향과 발레공연 관람분석」.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혜수 (2022). 「학교장의 진성리더십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황경수 (2021). 「문화예술행정론」.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재.
- 황경수 (2015). 「사회적 자본이 제주지역 공동체 문화인 권당문화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3): 1764-1772.
- 한수진·왕신우 (2022). 「주한 중국인 근로자의 문화지능과 문화적응 관계조절요인 연구: 인지된 문화적 거리감과 리더 정서지능」. 한국문화산업학회. 22(1):151-160.
- 현미경·황경수 (2010). 「제주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지역문화 적응에 대한 연구」. 제주학회. 34(-): 191-231.
- 홍광택·박정근 (20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시설의 건축 및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 해외 건축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2(4):265-274.

## 해외문헌

- Aaron Reeves. (2015). Neither Class nor Status: Arts Participation and the Social Strata. *Sociology*. 49(4):624-642.
- A. Parasuraman. V. A. Zeithaml. and L. L. Berry. (1998). SERVQUAL : A Multiple- item Scale for Measuring Consumer Perceptions of Service Quality. *Journal of Retailing*. 64(1):12-40.
- Brown. A. S. (2004). *The Values Study: Rediscovering the Meaning and Value of Arts Participation*, Hartford. CT. Connecticut Commission on Culture and Tourism. :17-30.
- Beard, J. G. and Ragheb, M. G. (1980). Measuring leisure satisfac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2(1): 20-30.
- Bour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ment of Tas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icero, Marcus Tullius. (BC45). *Tusculanes (Tusculan Disputations)*: II. 15.
- Clyde Kluckhohn & William Henderson Kelly (1944). *The Concept of Culture*.  
*The Concept of Culture*: 31.
- Furnham, A. and Li, Y. H. (1993).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the Chinese community in Britain: A study of two generation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2: 109–113.
- Edward Sapir. (1921). *LANGUAG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speech*.  
Harcourt, brace. :26–17.
- Harriet Hustis. (2003). *Deliberate Unknowing and Strategic Retelling: The Ravages of Cultural Desire in Charles Brockden Brown's Edgar Huntly*. *Studies in American Fiction*: Published b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Joseph Campinha-Bacote. (2003). *Cultural Desire: The Key to Unlocking Cultural Competence*. Published Online. 42(6):239–240.
- Kim Dunphy. (2018). *Theorizing Arts Participation as a Social Change Mechanism*. *The Oxford Handbook of Community Music*. 18(05) :301–322.
- Kreidler, J, & Trounstein, P.J. (2005). *Creative Community Index: Measuring Progress Toward a Vibrant Silicon Valley*. San Jose, CA: Cultural Initiatives Silicon Valley. :3–15.
- Katya Johanson. (2014). *New modes of arts participation and the limits of cultural indicators for local government*. *Poetics*. :43–59.
- Kevin F. McCarthy & Kimberly Jinnett. (2001). *A New Framework for Building Participation in the Arts*. *Wallace-Reader's*. :17–18.
- Tylor, E. B. (1871). *Primitive Culture : Researches into the Development of Mythology, Philosophy, Religion, Art, and Custom*. London: John Murray.
- UNESCO. (2017). *Arts in a Digital World Summit*: <https://en.unesco.org/>.
- 區文偉 (2015) . 「區文偉文集：淺談文化」. 廣州：花城出版社.

王 維·毛芳怡 (2020). 「基于文化消費需求的文創設計研究」 理論研究. 12(3):102-104.

傅才武·蔡武進 (2006). 「文化權利論」 中國文化產業評論. 21(2):32-42.

## 기 타

나무위키: [www.namu.wiki](http://www.namu.wiki)

통계청: <https://kostat.go.kr>

한경뉴스: [www.hankyung.com](http://www.hankyung.com)

연합뉴스: <https://cn.yna.co.kr>

新浪文化: <http://www.sina.com.cn>

제주통계포털: <https://www.jeju.go.kr>

朝鮮日報中文版: <https://cn.chosun.com>

## 【Abstract】

**A study on the enjoyment of Chinese culture in the Jeju community**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ultural facilities and cultural events

Zi-Hao Huang

China and Korea are geographically close, culturally cordial, and form a rich cultural and emotional concord through thousands of years of friendly interactions.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made an essenti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East Asian and global civilizations by converging and developing together beyond nationality and ethnicity. This year celebrates the 30th anniversary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also marks the end of the Korea-China Cultural Exchange Year. In addition, the two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s continuously carry out a wide range of cultural events to enhanc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various fields. Therefore, culture plays a vi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However, there are many concerns in the process of cultural participation. For example, 154 people, including 26 foreigners from 14 countries, died during the Halloween event in Itaewon, Yongsan-gu, Seoul, on October 29. Therefore, research on the problems of the cultural participation process is crucial. Thus, this study studied the process of cultural enjoyment for Chinese people living in Jeju Island.

This work conducts a study on cultural enjoyment by evaluating cultural

facilities and cultural events in Jeju Island for Chinese people living in Jeju Island. In addition, this thesis investigates the accessibility, safety, convenience, policy support, and overall satisfaction of cultural facilities and cultural event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cultural participation intention and explore the effect of cultural participation intention on cultural facilities and cultural events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work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work examines the enjoyment of culture by Chinese people living in Jeju Island. Jeju Island, Hawaii in the East, is not only the southernmost part of Korea, but also a critical free international city in Korea, China, and Japan. As an international municipality, many foreigners live in Jeju Island, and among them, the Chinese are the most. Chinese people living in Jeju Island work hard for Jeju Island and enjoy their rights. Foreigners' right to vote in local regions and safety are all legally protected as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whether they enjoy their cultural rights. Consequently, this work executes a study to enhance the cultural enjoyment of Chinese people living in Jeju Island.

This thesis documents a complete and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how to examine cultural enjoyment. By reviewing cultural enjoyment in other regions of Korea, it is deduced that research from various aspects such as cultural facilities, cultural events, cultural policies, and cultural education is feasible. This work is a consolidated analysis of Chinese people's enjoyment of Jeju Island's cultural events with considering the reality of Jeju Island in terms of cultural facilities and events.

Second, this work reviews and describes the cultural facilities and cultural events in Jeju Island. According to the reports and news from the Jeju Island Office website, the Chinese Consulate on Jeju Island, and the Jeju Cultural Institute, this work investigates and summarizes the current situation of cultural facilities and events related to China on Jeju Island. Combining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cultural facilities in Jeju and the elements proposed in this thesis, the cultural facilities can be roughly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museums, libraries, performance venues, art museums, cinemas, and cultural parks. The museums include the famous National Jeju Museum, Folklore and Natural History Museum, Jeju University Museum, and the Sea Maiden Museum, etc. Libraries consist of Jeju Library, Hanna Library, and Tamna Library. Performance venues comprise Jeju Cultural Arts Hall, Art Center, Ta-dong Performance Hall, Seogwipo Art Hall, etc. Art museums include the Do-ri Art Museum, the Museum of Modern Art, the Lee Chung-sub Art Museum, and the Ki-dang Art Museum. Movie theatres include CGV Jeju, Lotte Cinema (Ara branch, Samhwa-dong branch), Megabox Jeju, etc. Furthermore, cultural parks include the Stone Culture Park, the 4.3 Peace Park, and the Anti-Mongolian Site. The aforementioned cultural facilities and events are examined as the main elements of the evaluation of this work.

The third part is the evaluation of this thesis. With the previous studies, this work considers accessibility, safety, and convenience as factors for analyzing satisfaction with cultural facilities and events. Different from other studies, this work focuses on Chinese people in Jeju Island, thus the policy support factor is considered. According to the previous analysis, the process of cultural enjoyment varies depending on gender, 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level of Chinese people, place of residence, and purpose of visiting, therefore, they are set as statistical variables. Besides, the dependent variables are examined in terms of satisfaction with five components: overall satisfaction, service satisfaction, program satisfaction, atmosphere satisfaction, and usage process satisfaction. Furthermore, this study designs a research model with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ulture as a parameter to examine the effect of independent variables on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ulture and the effect of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ulture on satisfaction. The mentioned research model is used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Based

on the model mentioned above, this work uses an online questionnaire to survey Chinese people living in Jeju Island. A total of 375 valid questionnaire results are collected, including 204 males and 171 females.

Based on the collected survey data, the fourth part of this thesis documen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cultural facilities. This section analyzes and evaluates the data using various analytical methods such as descriptive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reliability and feasibility testing, and hypothesis testing. First, descriptive statistics are conducted for fundamental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the dependent variable of satisfaction with cultural facilitie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accessibility, safety, convenience, policy support,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Then, the cross-tabulation analysis is achieved through the analysis of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and six statistical variables, including gender, 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level, residence, and purpose of visiting. Third, by examining the credibility and feasibility, this paper finds that Cronbach's  $\alpha$  values are all over 0.8, which indicates that the credibility of the cultural facility nexus is reliable, the values of the standardized factors are mostly close to the standard values, and the CR(t) values are all high, therefore it is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Follow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 and hypotheses of cultural facilities, the accessibility of cultural facilities and the adoption of policy support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cultural facilities, and the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ultural facilities. On the contrary, the statistical analysis rejects that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cultural facilities have a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and rejects that safety and policy support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ultural facilities. Simultaneously,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affirm the hypothesis that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has a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with

cultural facilities.

The fifth part of the thesis describes the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cultural events. Similarly, this section presents various analyses of the cultural events on the results collected by the questionnaire, such as technical statistics, cross-tabu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reliability and feasibility testing, and hypothesis testing. First, this work analyzes the statistical results between the dependent variable with cultural events satisfaction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accessibility, safety, convenience, policy support, and intention to participate in parameters, by using technical statistical methods. Secondly, this work examines the credibility and feasibility and finds that Cronbach's  $\alpha$  values are all over 0.8, indicating that the cultural facility junctions are trustworthy, the values of the standardized factors are mostly close to the standard values, and the CR (t) values are all high, so they are consider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structural equations and hypotheses of cultural events, accessibility, stability and convenience adoption of cultural events have a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with cultural events, and convenience adoption has a positive (+) effect on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ultural events. In contrast, policy support for cultural events rejects the hypothesis of a positive (+) effect on satisfaction, while accessibility, safety, and policy support reject the hypothesis of a positive (+) effect on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ultural events. Moreover, the research finds a positive (+) effect of participation intention on cultural events satisfaction. Finally, this work proposes improving Chinese cultural facilities, events, and the adaptability of cultural life in Jeju in the policy suggestion section.

With this thesis, basic theoretical knowledge of culture and enjoyment is accumulated, and the most basic insight into the examination of cultural enjoyment is gained through theoretical investigation and preliminary research.

Second, the basic demographic structure of Chinese people living in Jeju Island is obtained through the inspection of relevant data. Finally, this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the cultural enjoyment of Chinese residents has provided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enjoyment of Chinese residents.

**Key words:** cultural enjoyment, intention to participate, cultural facilities, cultural event.

【부록】 조사 설문지(한국어)

I D	
-----	--

**제주지역사회에서 중국인의 문화향유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대학교의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본 연구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것으로 '제주지역사회에서 중국인의 문화 향유에 관한 연구: 문화시설 및 문화행사의 참여의사를 매개효과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를 위해 작성할 것입니다. 이번 설문지는 주로 귀하의 제주도 생활 과정에서의 문화 향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정보는 박사 논문의 데이터 분석에 한정됩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향후 후속 연구에 유용한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하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번 설문조사는 익명제(匿名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번 설문은 총 50개의 문항으로 5-15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니 적절한 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정보는 통계법의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중사자의 등의 의무)에 따라 통계처리에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2022년 10월)

지도교수 : 황 경 수  
 연구원 : 황 자 호  
 전 화 : 010-8866-5310  
 E-mail : huangzihao@stu.jejunu.ac.kr

\*본 설문조사의 문화예술시설과 행사에 대한 자세한 참고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분 류	내 용
문화 시설	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대박물관, 해녀박물관 등
	도서관	제주도서관, 한라도서관, 탐라도서관 등
	공연장	제주도문예회관, 아트센터, 탐동공연장,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미술관	도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등
	영화관	CGV제주, 롯데시네마(아라점,삼화등점), 메가박스제주 등
	문화공원	돌문화공원, 4.3평화공원, 향몽유적지 등
문화 행사	전통풍습축제	제주들불축제, 탐라문화제, 덕수리전통민속재현축제 등
	지역문화축제	제주해녀축제, 제주방어축제, 세계문화유산축제 등
	문화예술축제	제주국제관악축제, 제주책축제, 세계합창축제 등
	자연식물축제	제주왕벚꽃축제, 감귤축제, 동백축제, 유채꽃축제 등

대상자 확인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 로 표하여 주십시오.)

- 귀하께서 문화시설과 행사에 관람하거나 참여한 적이 있으십니까?
  - ① 문화시설만 있다(문항Ⅱ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 ② 문화행사만 있다(문항Ⅲ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I. 응답자 기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 사항에 '√' 로 표하여 주십시오.)

문1. 귀하의 성별은?

- ①.남      ②.여

문2. 귀하의 연령은?

- ①.20대 이하      ②.20대      ③.30대      ④.30대 이상

문3. 귀하의 학력은? (해당 재학생 포함)

- ①.의무교육      ②.고등학교      ③.대학교      ④.대학원 석사      ⑤.대학원 박사

문4. 귀하의 한국어 능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전혀 못 한다      ②.못 한다      ③.보통이다      ④.잘 한다      ⑤.아주 잘 한다

한국어능력시험 본 적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 ①.1급      ②.2급      ③.3급      ④.4급      ⑤.5급      ⑥.6급

문5. 귀하의 거주중인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제주시      ②.서귀포시

문6. 귀하께서 문화시설/활동에 참여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을 위하여      ②. 학교 내 수업으로
- ③. 사람들을 사귀기 위하여      ④. 자신 발전 및 성취감을 위하여
- ⑤. 가족 화목을 위하여      ⑥. 문화여행을 위해서
- ⑦. 기타

II. 제주지역사회에서 문화시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 로 표하여 주십시오.)

1. 다음은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번	설문내용	전혀그 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그 렇다
1	제주도 문화시설 참여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시설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시설의 전시된 내용 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시설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주도의 문화시설 전반의 이용과 체험 과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문화시설의 접근성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번	설문내용	전혀그 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그 렇다
6	문화시설의 접근거리 측면에서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시설에 접근 교통방식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문화시설의 근처의 안내와 지시가 명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문화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번	설문내용	전혀그 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그 렇다
9	문화시설의 계단, 안전통로 등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문화시설의 직원들이 안전 관리 능력은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문화시설의 안전 과 소방시설이 명확히 표시하여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문화시설의 편의성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번	설문내용	전혀그 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그 렇다
12	문화시설의 편의점, 화장실 등 부속시설이 쾌적하게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문화시설의 부속 편의시설의 직원들은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문화시설의 부속 편의시설의 위생이 잘 유지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문화시설의 정책지원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번	설문내용	전혀그 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그 렇다
15	문화시설의 관련 할인(도민할인, 美團 등) 잘 알고 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문화시설의 중국어 안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문화시설의 중국어나 영어 안내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문화시설의 참여의사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번	설문내용	전혀그 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그 렇다
1	제주도의 문화시설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술성이 높은 문화 시설의 참여의사 더 높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시설 선택할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에 더 참가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홍보가 잘 되고, 정보 내용이 상세한 시설에 참여의사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5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에 맞춰 문화시설 참여하는 의사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Ⅲ. 제주지역사회에서 문화행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항에 '√' 로 표하여 주십시오.)

1. 다음은 문화행사의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번	설문내용	전혀 그 렇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제주도 문화행사 참여 자체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문화행사에 출연하는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행사의 전시된 내용 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4	문화행사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5	제주도의 문화행사 전반의 이용과 체험 과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문화행사의 접근성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번	설문내용	전혀 그 렇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6	문화행사의 접근 거리 측면에서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문화행사에 접근 교통방식 다양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문화행사의 근처의 안내와 지시가 명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음은 문화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번	설문내용	전혀 그 렇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9	문화행사의 계단, 안전통로 등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문화행사의 직원들이 안전 관리 능력은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문화행사의 안전과 소방시설이 명확히 표시하여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다음은 문화행사의 편의성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번	설문내용	전혀그 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그 렇다
12	문화행사의 편의점, 화장실 등 부속시설이 쾌적하게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문화행사의 부속 편의시설의 직원들은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문화시설의 부속 편의시설의 위생이 잘 유지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음은 문화행사의 정책지원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번	설문내용	전혀그 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그 렇다
15	문화행사의 관련 할인(도민할인, 美團 등) 잘 알고 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문화시설의 중국어 안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문화행사의 중국어나 영어 안내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문화행사의 참여의사 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순번	설문내용	전혀그 렇지않 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그렇다	매우그 렇다
1	제주도의 문화행사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술성이 높은 문화 행사의 참여의사 더 높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행사 선택할 때 자신에게 유익한 것에 더 참가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4	홍보가 잘 되고, 정보 내용이 상세한 행사에 참여의사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5	요즘 유행하는 콘텐츠에 맞춰 문화행사 참여하는 의사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응답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I D	
-----	--

## 關於濟州地區中國人文化享受問題的研究

您好!

非常感謝您在百忙之中抽出寶貴的時間回答本次問卷調查。本問卷是為就讀于濟州大學研究生院行政系博士課程的本研究者的博士學位論文而制作的,旨在“濟州地區社會中國人享受文化的研究:以文化設施及文化活動的參與意向的媒介效果為中心”的研究。本次調查問卷主要收集您在濟州島生活過程中的文化享受相關的數據,收集的數據僅限于博士論文的數據分析。分析的數據有望為未來的中國人在濟州島文化參與過程的相關後續研究提供有用的幫助。為了更好地表達您的想法,本次問卷調查采用匿名制,本次問卷共50個問題,預計需要5~15分鐘的時間,請選擇適當的答案進行回答。

您回答的問卷內容及個人信息將根據統計法的第33條(秘密保護)和第34條(統計從業人員等的義務)只用于統計處理,并承諾除了調查目的以外絕對不會用作其他用途。

再次感謝您的參與!

濟州大學校 社會科學研究院(2022年10月)

指導教授：黃京洙

研究員：黃子豪

電話：010-8866-5310

E-mail：huangzihao@stu.jejunu.ac.kr

\*本問卷調查的文化設施和文化活動的詳細參考如下。

區分	分類	內容
文化設施	博物館	國立濟州博物館、民俗自然史博物館、海女博物館 等
	圖書館	濟州圖書館、漢拿圖書館、耽羅圖書館 等
	公演場	濟州島文藝會館、藝術中心、塔洞公演場、西歸浦藝術殿堂等
	美術館	道立美術館、現代美術館、李仲燮美術館、基堂美術館等
	電影院	CGV濟州、樂天影院(阿拉店、三化店)、Megabox濟州 等
	文化公園	石文化公園、4.3和平公園、抗蒙遺址 等
文化活動	傳統風俗慶典	濟州燒山慶典、耽羅文化慶典、德修里傳統民俗再現慶典 等
	地域文化慶典	濟州海女慶典、濟州方言慶典、世界文化遺產慶典 等
	文化藝術慶典	濟州國際管樂慶典、濟州書慶典、世界合唱慶典等
	自然植物慶典	濟州王櫻花慶典、柑橘慶典、山茶慶典、油菜花慶典 等

調查對象確認問題。 (請在符合的選項中用"√"表示。)

- 您是否曾參觀或參與過文化設施或文化活動?
  - ① 只參觀過文化設施 (僅回答問題Ⅱ即可)
  - ② 只觀覽過文化活動 (僅回答問題Ⅲ即可)

I. 以下是關於回答者基本事項的問題。 (請在相關選項中用"√"表示。)

問1. 您的性別是?

- ①.男
- ②.女

問2. 您的年齡是?

- ①.20歲以下
- ②.20-30歲
- ③.30-40歲
- ④.40歲以上

問3. 您的學歷是? (包括相應在校生)

- ①.義務教育
- ②.高中
- ③.大學
- ④.碩士
- ⑤.博士

問4. 您的韓語水平是?

- ①.完全不會
- ②.會一點
- ③.一般水平
- ④.比較好
- ⑤.非常好

您是否有韓國語能力考試成績(如果有請在對應選項進行標記)

- ①.1級
- ②.2級
- ③.3級
- ④.4級
- ⑤.5級
- ⑥.6級

問5. 您在濟州島居住的地區是哪里?

- ①.濟州市
- ②.西歸浦市

問6. 您參與文化設施/活動的最主要的原因是什麼?

- ①. 爲了豐富業餘生活和興趣生活
- ②. 爲了完成學校布置的任務
- ③. 爲了提升人際交往能力
- ④. 爲了自我的發展及自我成就感
- ⑤. 爲了家庭和睦
- ⑥. 爲了文化旅行
- ⑦. 其他

II. 您對濟州地區的文化設施有什么看法？（請在合适的選項中用“√”表示。）

1. 下面是關於文化設施整体評價的問題。

序号	調查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 同意
1	對參與濟州島文化設施整体上很滿意。	①	②	③	④	⑤
2	為文化設施提供的服務總体上令人滿意	①	②	③	④	⑤
3	對文化設施展示的內容和項目感到滿意	①	②	③	④	⑤
4	對文化設施的整体氛圍感到滿意	①	②	③	④	⑤
5	對整个濟州島文化設施的使用和體驗過程感到滿意	①	②	③	④	⑤

2. 下面是關於文化設施接近性評價的問題。

序号	調查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 同意
6	在文化設施的位置上設置很合理	①	②	③	④	⑤
7	去往文化設施的交通方式多种多样	①	②	③	④	⑤
8	文化設施附近的引導和導向非常明确	①	②	③	④	⑤

3. 下面是關於文化設施安全性評價的問題。

序号	調查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 同意
9	文化設施的樓梯和安全通道等良好	①	②	③	④	⑤
10	信任文化設施工作人員的安全管理能力	①	②	③	④	⑤
11	文化設施的安全和消防設備標注得很明了	①	②	③	④	⑤

4. 下面是關於文化設施便利性評價的問題。

序号	調查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 同意
12	文化設施的便利店、衛生間等配套設施非常完善	①	②	③	④	⑤
13	文化設施附屬便利設施的職員們很親切	①	②	③	④	⑤
14	文化設施附屬便利設施的衛生維護良好	①	②	③	④	⑤

5. 下面是關於文化設施政策支援評價的問題。

序号	調查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 同意
15	熟悉并使用文化設施的相關折扣(道民折扣、美團等)	①	②	③	④	⑤
16	可以很容易地獲得文化設施的中文指南信息	①	②	③	④	⑤
17	文化設施的中文或英文介紹服務非常完善	①	②	③	④	⑤

6. 下面是關於文化設施參與意向的問題。

序号	調查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 同意
1	對濟州島的文化設施感興趣并想參與其中	①	②	③	④	⑤
2	參與藝術性高的文化設施的意向更高	①	②	③	④	⑤
3	在選擇文化設施時,更想參加對自己有益的	①	②	③	④	⑤
4	對於宣傳效果好、信息內容詳細的設施,參與意向很高	①	②	③	④	⑤
5	對於最近流行的文化設施的參與意向很高	①	②	③	④	⑤

Ⅲ. 您對濟州地區的文化活動有什么看法？（請在合适的選項中用“√”表示。）

1. 下面是關於文化活動整體評價的問題。

序号	調查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 同意
1	對參與濟州島文化活動整體上很滿意。	①	②	③	④	⑤
2	為文化活動提供的服務總體上令人滿意	①	②	③	④	⑤
3	對文化活動展示的內容和項目感到滿意	①	②	③	④	⑤
4	對文化活動的整體氛圍感到滿意	①	②	③	④	⑤
5	對整個濟州島文化活動的使用和體驗過程感到滿意	①	②	③	④	⑤

2. 下面是關於文化活動接近性評價的問題。

序号	調查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 同意
6	在文化活動的位置上設置很合理	①	②	③	④	⑤
7	去往文化活動的交通方式多種多樣	①	②	③	④	⑤
8	文化活動附近的引導和導向非常明確	①	②	③	④	⑤

3. 下面是關於文化活動安全性評價的問題。

序号	調查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 同意
9	文化活動的樓梯和安全通道等良好	①	②	③	④	⑤
10	信任文化活動工作人員的安全管理能力	①	②	③	④	⑤
11	文化活動的安全和消防設備標注得很明了	①	②	③	④	⑤

4. 下面是關於文化活動便利性評價的問題。

序号	調查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 同意
12	文化活動的便利店、衛生間等配套活動非常完善	①	②	③	④	⑤
13	文化活動附屬便利活動的職員們很親切	①	②	③	④	⑤
14	文化活動附屬便利活動的衛生維護良好	①	②	③	④	⑤

5. 下面是關於文化活動政策支援評價的問題。

序号	調查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 同意
15	熟悉并使用文化活動的相關折扣(道民折扣、美團等)	①	②	③	④	⑤
16	可以很容易地獲得文化活動的中文指南信息	①	②	③	④	⑤
17	文化活動的中文或英文介紹服務非常完善	①	②	③	④	⑤

6. 下面是關於文化活動參與意向的問題。

序号	調查內容	完全 不同意	不同意	一般	同意	非常 同意
1	對濟州島的文化活動感興趣并想參與其中	①	②	③	④	⑤
2	參與藝術性高的文化活動的意向更高	①	②	③	④	⑤
3	在選擇文化活動時,更想參加對自己有益的	①	②	③	④	⑤
4	對於宣傳效果好、信息內容詳細的活動,參與意向很高	①	②	③	④	⑤
5	對於最近流行的文化活動的參與意向很高	①	②	③	④	⑤

- 再次感謝您的寶貴意見! -

【부록】 제주도 문화관련 시설의 현황

제주도 문화관련 시설의 현황(2022.10.10기준)

공연장	
제주시	한라아트홀 대극장, Be IN;(비인), 제주해변공연장, 문예회관대극장, 문예회관 소극장, 한라, 노형수퍼마켓, 더마파크 공연장,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 설문대 여성문화센터공연장, 제주아트센터, 제주관광대학 컨벤션홀, 제주폴리아트센터, 세이레아트센터, 오백장군갤러리 공연장, 제주난타극장, 스카이워터쇼, TANK 공연장, 아트락 소극장, 채플린 소극장, 제이엔 씨어터, 이디홀, 공존 예술창작 스튜디오, 오페라인제주 스튜디오, 호은아트홀
서귀포시	서귀포시김정문화회관, (주)이레 제주조랑말타운, 제주아트 서커스, 점보빌리지, 오션 아레나,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퍼시픽랜드, LARVA STAGE, CENTRAL STAGE
영화관	
제주시	씨지브이 제주 1관, 씨지브이 제주 2관, 씨지브이 제주 4DX관, 씨지브이 제주 6관, 씨지브이 제주 5관, CGV제주노형1관, CGV제주노형2관, CGV제주노형3관, CGV제주노형4관, CGV제주노형6관, CGV제주노형5관, 씨지브이 제주 4관, 씨지브이 제주 7관, 롯데시네마 제주아라 5관, 롯데시네마 제주아라 2관, 롯데시네마 제주아라 4관, 롯데시네마 제주아라 3관, 롯데시네마 제주아라 1관, 롯데시네마 제주아라 6관, 제주 롯데시네마 삼화점 제1관, 제주 롯데시네마 삼화점 제2관, 제주 롯데시네마 삼화점 제3관, 제주 롯데시네마 삼화점 제4관, 제주 롯데시네마 삼화점 제5관, 제주 자동차 극장, 씨지브이 제주 8관, 한림 작은영화관 제1관, 한림 작은영화관 제2관
서귀포시	시네메드자동차극장, 롯데시네마 서귀포 1관, 롯데시네마 서귀포2관, 롯데시네마 서귀포 3관, 롯데시네마 서귀포 5관, 롯데시네마 서귀포 6관, 롯데시네마 서귀포 7관
도서관	
제주시	동녘도서관, 한수풀도서관, 제주대학교도서관, 한라도서관, 제주도서관, 우당도서관, 제주시 기억의도서관, 조천읍도서관,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한경도서관
서귀포시	서귀포시 삼매봉도서관, 서귀포시 중앙도서관, 서귀포시 동부도서관, 서귀포시 서부도서관, 서귀포 기적의고서관, 성산일출도서관, 안덕산방도서관, 표선도서관, 제남도서관, 송악도서관, 서귀포도서관

<b>박물관</b>	
제주 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제주4·3평화기념관, 김만덕기념관, 산악박물관, 항일기념관, 제주평화박물관, 선녀와 나무꾼, 메이즈뮤지엄, 넥슨컴퓨터박물관, 그리스신화박물관, SN박물관, 예나르공예박물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세계유산전시관, 제주항일기념관, 세계미니어처전시관, 제주공룡랜드전시관, 테디베어사파리테지움, 제주 아이스뮤지엄, 이랜드뮤지엄, 방림원식물원, 생각하는정원, 한림공원, 에코랜드
서 귀 포 시	서귀포감귤박물관, 아프리카박물관, 제주민속촌, 제주건강과성박물관, 제주화석박물관, 세계자동차제주박물관, 본태박물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헬로키티아일랜드, 세계오지민속박물관, 제주커피박물관바움, 레오나르도 다빈치과학박물관, 토이파크뮤지엄, 피규어뮤지엄, 제주해양동물박물관, 제주테디베어뮤지엄, 소인국테마파크전시관, 석부작박물관, 조안베어뮤지엄, 초콜릿박물관, 제주옹기박물관, 제주유리박물관, 세계조가비박물관, SOS박물관, 세계술박물관, 여미지식물원, 일출랜드식물원, 제주허브동산, 휴애리, 카멜리아 힐
<b>미술관</b>	
제 주 시	제주현대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김창열미술관, 러브랜드미술관, 돌하르방공원, 성안미술관, 제주유리의성, 아라리오뮤지엄, 제주옹기숨미술관, 김택화미술관
서 귀 포 시	기당미술관,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제주추사관, 김영갑갤러리미술관, 자연사랑미술관, 제주조각공원, 박물관은-살아있다, 왈롱미술관, 유민미술관
<b>문화공원</b>	
제 주 시	돌문화공원, 4·3평화공원, 향몽유적지, 9조각공원, 산짓물공원, 신비의도로, 관덕공원, 수월봉공원,
서 귀 포 시	서부공원

출처: 제주도청 공개된 자료로 적자 직적 작성

## 【감사의 글】

2022년 말 첫눈이 내리면서 이별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석박생활도 끝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18년 2월에 시작하여 2023년 2월에 끝나는 국립 제주대학교에서 5년 동안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이자 평생의 수익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추억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이 논문의 완성에 즈음하여 저는 저의 교수님과 박사님들에게 가장 진심 어린 감사와 아름다운 축복을 표합니다. 먼저 은사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저의 은사인 황경수 교수님께서 지난 5년간 저를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교수님은 박학다문하고, 치밀하며, 아버지처럼 세심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황교수님의 지도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제 논문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은사 김주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 교수님은 지도교수는 아니지만 지도교수님처럼 끈기 있게 제 논문을 지도해 주셨고 논문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일대일로 지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황은진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논문 지도 기간 동안 교수님이 굉장히 친근하게 지도해 주셨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혜영 박사님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알고 지냈고 석사 때부터 제 논문을 도와줬고 박사 과정에서도 꼼꼼하게 조언해 주셔서 학위 논문의 최종 완성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 논문에 도움을 주신 강권오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강 박사님은 소중한 의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견을 정리하여 저에게 출력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과 박사님들의 지도와 논문에 대한 귀중한 의견 덕분에 제가 논문을 더 잘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공부했고, 먹고 쓰는 것은 모두 부모님이 땀 흘려 얻은 것입니다. 부모님의 성원과 양육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의 지지는 공부할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고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세상과 변화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20년 넘게 공부하면서 부모님이 흑발에서 백발로 고생하시는 걸 지켜봤습

니다. 생각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보답할 수 없고, 오직 열심히 공부하여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한국인 선배 및 중국인 친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명상 조교님과 이해인 조교님의 도움에 감사드려 김명수 선배님, 박종명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수 선배님, 박종명 선배님이 입학도 같이 하고 공부도 같이 했는데 두 분이 계속 형님처럼 챙겨주시고 계속 선배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이 논문을 완성할 때도, 같이 회식할 때도, 두 선배님들하고 있으면 항상 즐겁습니다. 그리고 두 젊은 후배 우득흠(于得鑫)과 장화상(張化祥)에게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항상 제 곁에 나타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 주십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박사과정을 유학하고 있는 풍초(馮超)가 제 논문의 영어 부분에 고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논문 작성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황자호 

2022. 12